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청소년가출은 그 증가추세와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출 후 직면하게 되는 위험상황이나 일탈행동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998년 집계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전국에 42,309개소로 가출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잠자리와 일자리, 용돈 등을 조달하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만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기호에 맞추어 영업상 경쟁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례가 일반화된 것으로 가출청소년의 자발적인 취업을 조장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유흥업소가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다방(속칭 ‘티켓다방’)은 청소년들의 고용이 자유로운 실정을 악용하여 고용 후 차 배달이외에 일정한 시간동안 손님에게 매춘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사실상 유흥업소의 접대부나 윤락녀와 동일하게 전락되고 있다. 이같은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 불법고용은 주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검찰의 단속결과 종래의 ‘호스트바’이외에 남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술집접대부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티켓영업을 시킨 속칭 ‘남봉다방’까지 등장하여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불법고용한 윤락행위는 종래 윤락촌에서만 행하여져 왔으나 현재는 여관과 단란주점, 일부 찻집까지 보편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비디오 방에서조차 여학생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윤락업소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가출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최근 단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¹⁾ 윤락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져 심지어는 12, 13세의 여학생이 윤락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직접 단속한 사례 중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속칭 「삐끼」로 활동하거나 직접 윤락행위를 한 사례도 있으며, 「영계업소」로 불리는 특정업소에서는 13-14세의 청소년만 고용하여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은 유흥·서비스업소 등에 불법고용되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보편화되면서 업주들은 경비절감과 매출신장을 위하여 미성년자를 선호하여 고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8년 5월말 현재 944개 업소를 단속, 미성년자 1,054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하였고, 이외에 주유소, 편의점, 일반식당가 등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낮은 수입과 열악한 환경으로 탈선·비행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유흥업소 심야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미성년자 불법고용은 한층 심화되었다.

흔히 ‘가출’은 ‘집을 떠나는 것’이란 단순한 의미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가출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 학교, 사회환경 등이 상호 얽혀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전환과 함께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보호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역기능적인 가정환경, 입시위주의 학교환경 그리고 유해한 지역사회환경에서 부모의 승인 없이 가정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 아니라 때로는 유해한 가정환경으로부터 탈출 내지 도피하고, 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집에서 쫓겨난 자들로서 비난이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넓게 보호받고

1)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1998년 12월부터 두달간 2,500여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 적발된 여종업원 3,049명중 10대 소녀가 1,309명으로 42.9%에 달했으며, 이중 가출소녀가 590명(49%)을 차지해 10대 윤락소녀의 절반 가량이 가출소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귀가조치’를 위주로 통제하거나 수용 보호하려는 시각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그것도 인력과 재정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경찰서, 아동상담소, 일시보호시설 및 장기선도보호시설 그리고 직업소개소 등이다. 이들 기관은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찾아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보호조치를 하며, 직업을 소개하는 등 가출청소년의 일차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가출의 위험 등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가출 청소년을 돕는 사회적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출청소년을 단순히 귀가 조치하거나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노출된 위험상황을 차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이나 문제유형,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이 가출 후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 중 특히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중앙단위의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에 근거한(community-based)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 체계화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청소년가출은 단순히 집이나 가정을 이탈한다는 사실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가출한 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 혹은 우범청소년으로 간주하여 통

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집을 떠난 청소년들은 매우 빨리 길거리 생활의 위험상황, 즉 약물중독, 윤락행위, 임신,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에의 감염, 우울증, 영양실조 및 범죄행위 등에 빠져들기 쉬우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출자의 상황은 자신에게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줄 뿐 아니라 범죄에의 개입, 약물남용, 향락산업으로의 흡수 등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대책과 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하다.

가출청소년이 가정을 이탈하여 겪게 되는 위험상황 및 일탈행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가출청소년은 가출 후 어떠한 경로를 거치게 되며,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현행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체제는 어떠하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당면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 운영모델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이러한 연구문제의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출청소년 현황,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현황 및 문제점

가출청소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IMF로 인한 실직가정 증가 등 가정환경의 악화로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가출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해 발표된 공식자료는 대부분 경찰에 신고 접수된 통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출 청소년의 수치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공식통계의 경우 구체적인 ‘가출발생수’라기 보다는 ‘가출신고수’ 내지는

‘가출적발수’에 가깝기 때문에 경찰통계로 가출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부모의 성향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의해 적발된 가출청소년은 가출 이후의 비행 관련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집계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가출 관련 조사시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중퇴자가 제외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출 청소년의 현황파악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김성경, 1997:39).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조사 발표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공식통계를 종합하여 수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가출의 원인, 유형 및 최근 변화된 청소년가출의 양상 등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선행 연구의 결과와 기존 이론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양적인 증가에 반해, 그들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연간 신고된 가출청소년만도 2만 여명, 중도퇴학자가 7만 8천여 명인데 비하여,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해 정부 혹은 민간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특히, 현재 청소년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장기 보호시설 등 현행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국의 보호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각 시설의 특징, 인력구성, 제공되는 프로그램, 운영형태 등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가출청소년의 가출 경로 및 당면 문제 사례 분석

가출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서곤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탈출구로써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가출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굶주림과 배회, 정신적 갈등 및 비행에로의 개입 등 위험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불법화된 생계수단들, 즉 약물판매, 운락행위, 강도 등의 행위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김향초, 1998:184). 최근 1년간 청소년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었던 가출청소년 상담일지 사례조사를 통해 그들의 가출경로와 가출 후 이동경로, 가출후 직면하게 된 문제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얻는다.

3) 외국의 가출청소년 사회복지 서비스 사례조사

유럽과 미국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거대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과 시설에서의 수용·보호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가출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미시적 차원의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가출청소년 지도방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체계와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의 부족 및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한다.

4)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대책

상담일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출청소년의 당면 문제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출 후 다양한 이동경로를 거치며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 가운데, 생존을 위해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향락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생가출은 점차 연소화하는 추세이며²⁾, 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학교 중도 탈락자들이 중퇴이후 첫 번째 직장으로 남자 40.5%, 여자 45.5%가接客 및 유흥업소를 지목('93형사정책연구원조사)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의 불법고용 및 윤락방지에 대한 법적인 대책을 살펴보고, 가출청소년 사후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시한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①접근서비스의 강화, ②수용·보호시설의 재정비, ③교육기회의 부여, ④의료서비스의 확대에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5) 지역사회 중심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부터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제도화되어 단기간 동안 가출청소년을 위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질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 미흡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기존의 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단체, 자원봉사 인력 등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6)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모형 개발

가출청소년의 당면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

2) '97년도 가출 관련 선도 대상 학생 21,739명 가운데 중학생이 10,309명으로 절반 정도(47.4%)로 나타났고, 장기 가출로 인한 퇴학생은 4,295명으로 총 퇴학생수 6,987명 중 거의 3분의2 (62.3%)를 차지함.

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대책을 종합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 시스템 모형을 개발한다. 보다 현실적인 보호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① 가출청소년이 가출 후 직면하게 되는 위기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혹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에 주력하고, ② 가출 후 각종 비행에의 참여로 가출상황이 심각화·장기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적인 통제가 필요할 경우 통제보호를 고려하며, ③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집밖에서도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다.

3. 연구방법

위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1) 문헌연구

가출청소년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며, 청소년가출과 관련한 공식 기초통계 및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 가출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2) 사례연구

외국의 가출청소년 보호프로그램 및 지도방법의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얻는다. 미국의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유형과 유럽, 특히 독

일과 네덜란드에서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가출유형별, 단계별 지도방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상담일지 분석을 통하여 가출경로, 가족력, 당면문제, 장래희망 및 욕구 등 가출청소년의 사례를 분석한다.

3) 조사연구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서비스 현황 조사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가출청소년 수용·보호 시설의 현황을 조사한다. 쉼터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시 및 단기보호시설과 그룹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장기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수용·보호시설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얻는다.

한편, 가출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현 가출청소년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을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절차
○가출청소년 현황 및 가출청소년 보호 현황	○문헌연구 : 가출청소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조사연구 : 전국의 일시 및 단기, 중·장기 보호시설 현황조사
○가출청소년의 가출경로 및 당면문제 사례 분석	○사례연구 : 상담일지 분석을 통한 가출청소년 사례 연구 (가출경로, 가족력, 당면문제, 장래희망, 욕구 등)
○외국의 가출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 사례	○사례연구 : 외국의 가출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및 지도방법 사례조사 (미국, 네덜란드, 독일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 사례)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지역사회 중심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방안	○문헌·조사 연구 : 현행 중앙정부의 가출청소년 보호체계 (법적·제도적) 지역사회의 가출청소년 보호현황
○가출청소년보호시스템 모형 개발	○면접조사 :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에 관한 전문가 면접조사 (대상 : 정부관계자 및 가출청소년 지도자)

4. 선행연구 검토

1) 가출청소년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가출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국내연구는 주로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도방안과 대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문조사와 상담사례 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김향초, 1998, 하순인, 1997, 장종욱, 1997, 엄명용, 1995, 장수환, 1993 등), 이외에 가출과 비행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및 가출청소년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서울 YMCA, 1997, 1998, 김영지, 1995)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의 한계점으로 인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현황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일관된 연구결과의 도출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가출청소년에 관한 국외의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가출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형을 체계화하며, 지역사회에 근거한 대책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Homer, 1973, Brennan, 1975, Miller, 1980, Roberts, 1987). 유럽에서는 특유의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시각 및 개념이 미국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양적·질적인 심각성에 있어서도 차별화 되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문제의 접근방법 및 대책수립에 있어서도 미국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출동기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단절, 이혼, 부모의 결별, 부모의 정서적·성적 학대 및 집안에서의 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정문제를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가출동기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가출을 부추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출청소년의 생활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요소는 가정의 파괴와 대리보호기관에서 비롯된 분열이다. 최근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60%정도의 영국 가출청소년은 분열을 경험했던 가정에서 살고 있었으며, 4명중 1명 정도는 새롭게 생긴 대리가정에서 살고 있었고, 70%정도는 고아원, 양육가정 등을 포함하여 보호기관에서 살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가출 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가게의 물건을 훔쳤고, 7명중 1명은 돈을 위해서 성매매 행위를 가졌으며, 구걸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Stein 외, 1994).

한편, 독일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청소년청을 비롯한 정부 관청의 관계자와 가출청소년 관련 전문 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관성이나 통일성이 전혀 없는 각기 다른 형태의 단편적인 대책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Permien 외, 1998: 350-352). 관련성 없이 나열되는 대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길거리 생활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독일 청소년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기존의 독일 청소년복지의 목적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인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청소년복지 정책의 최대 목표는 인간이 속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갖가지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세분화하고 특별한 형태의 지원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을 최대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향전환으로 인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의 접근방식도 새롭게 달라지게 되었는데, 기존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하여 어려운 상황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작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연구

지금까지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가출의 실태 및 원인과 관련된 연구의 결론부분에 정책적 제언 혹은 예방대책으로 제시되다가, 최근에 이르러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김보령, 1998, 김찬숙, 1998, 이민희 외, 1998, 김성경, 1997, 김미희, 1997,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 1997). 특히 가출청소년 쉼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김보령(1998)의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외에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연구한 김미희(1997)의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거주형 집단치료시설의 효과성 평가’, 이민희 외(1998)의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1996)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보호센터로서의 청소년쉼터 사례연구’ 등이 있다.

김미희(1997)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거주형 집단치료시설의 효과성 평가’에서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단일체계 연구방법과 질적 조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가출청소년 쉼터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쉼터가 제공해 온 프로그램을 토대로 서비스의 단계를 ① 보호중심 서비스, ② 문제해결중심 서비스, ③ 지역사회 자원연결을 통한 서비스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서비스의 개입정도가 강화됨에 따라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율, 재가출율, 재가출시기 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낸,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한 실증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민희 외(1998)의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은 가출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12개소의 청소년쉼터와 2개소의 아동상담소, 5개소의 장기보호시설 등 총 19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고, 아울러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쉼터에 대한 평가 및 욕구조사가 병행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

해 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시설면, 인력면, 재정면, 사업내용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김성경(1997)의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연구'는 중장기 보호시설에 있는 가출소녀 15명과 거리의 가출소녀 15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가출소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 이들에게 당면한 문제,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 및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의 입장에 있는 전문가 24명의 의견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가출소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국내연구가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발전적 운영모델을 거시적으로 제시하거나, 가출소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모형을 통합적으로 도출해 낸 것이라면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 특히 가출소녀가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되는 위기상황에 개입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어 중앙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책을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방안을 미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함이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함에 있어, 앞서 제시된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가출청소년 현황

1. 청소년 가출 현황

1) 가출인 발생 및 처리현황

최근 몇 년간 가출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가출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동안 평균 19.8%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증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서, 전년대비 증가율은 94년 13.3%, 95년 18.4%, 96년 20.7%, 97년에는 26.7%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는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총 가출자는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II-1> 가출인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발 생	연 령		처 리		
		20세미만	20세이상	보호자인계	수 용	수 배
1993	40,203	11,933	28,270	18,710	606	19,740
1994	35,865	13,522	22,343	21,848	590	12,433
1995	40,117	16,013	24,104	19,141	928	20,048
1996	43,739	19,320	21,419	23,574	742	19,423
1997	46,632	19,835	26,797	18,787	1,612	26,233

출처 : 청소년백서 1998 자료원:경찰청

청소년의 가출경험은 일반청소년/문제집단 청소년, 인문계/실업계, 중/고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의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9.9%, 요보호청소년의 52.5%가 가출경험이 있었고, 일반청소년의 경우 실업고 학생(19.2%)의 가출경험률이 중학생(5.7%)나 인문고 학

생(7.6%)에 비해 높아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출예방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초로 가출한 시기는 일반청소년과 요보호 청소년 모두 중학교 때인 경우가 가장 많아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울시, 1997:272).

2) 문제행동 경험 실태

청소년들은 일단 가출하면 갈 만한 곳이 없어 주유소,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등 청소년문제로 발전하기 쉬우며, 이는 곧 청소년 탈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음주, 흡연, 가스흡입 및 폭력가해 경험, 유흥업소 고용경험 등 문제행동 경험율이 높아 청소년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가출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향락업소로 유입되는 경향이 현저히 높아지는데, 첫 번째 가출시 향락업소에의 취직률이 9.5%에 불과하던 것이 두 번째는 13.9%로 증가하였고, 세 번째 가출시는 31.4%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115). 가출한 청소년은 우선 의식주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유해업소에 고용되어 성적인 착취와 매춘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며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가출이 상습화 될수록 그 양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2> 가출소녀의 가출시 취업경험

가출횟수 업소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취직경험 없음	42.9	36.1	25.7
위생업소(목욕, 이발소)	4.8		2.9
식품위생업소(음식점 등)	19.0	36.1	17.1
향락업소	9.5	13.9	22.9
전전취업 (공장, 점포)	23.8	13.9	22.9
계	100%	100%	100%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115

3) 유해업소 불법고용 실태

(1) 불법고용 실태

청소년 유해업소는 가출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잠자리와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한 유인력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98년 8월 현재 전국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149,565개로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업소들은 점점 더 대형화·고급화되는 추세이고, 풍속영업의接客원 연령은 점차 하향화되면서 최근에는 “영계”라는 어린 소녀들을 상품화하는 퇴폐영업이 자행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중 가출청소년, 특히 가출소녀가 가장 쉽게 접근하여 잠자리와 일자리를 해결하는 곳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들 수 있는데 1998년 8월 현재 전국의 유흥 및 단란주점의 수는 42,309개소로 집계되었다(표 II-4 참조).

<표 II-3> 전국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업종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특수 목욕탕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이용업	숙박업	만화 대여점
149,565	17,331	24,978	395	26,924	2,896	31,439	36,230	9,372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21

<표 II-4> 전국 유흥업소 분포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유흥 주점	1,371	1,155	692	600	2,908	1,234	603	833	942	1,536	1,909	3,044	504	17,331
단란 주점	7,027	3,308	357	1,277	3,181	967	485	1,309	639	1,588	1,416	2,482	942	24,978
계	8,398	4,463	1,049	1,877	6,089	2,201	1,088	2,142	1,581	3,124	3,325	5,526	1,446	42,309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21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고용하는 행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데, 윤락가와 티켓다방 등에서는 주거나 출입을 제한하며 강제로 고용하여 인권 및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수요가 급증하는接客원을 공급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나 보도방을 통해 불법적으로 소개받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선불금이나 일수돈, 빚을 담보로 한 인신매매 형태의 소개행위다. 이처럼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취업시키는 보도방은 전국적으로 수천개가 성업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사무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단속을 피하여 사무실 없이 차량과 핸드폰 등 이동 및 통신수단만 갖추고 영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소년을 유인하는 방법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불특정 청소년들에게 명함 배포, 홍보전단과 스티커 등 다양하다.

직업소개소도 청소년 불법고용을 알선하는 주요 매개체이다. 대부분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가출소녀들을 유흥업소에 소개시키고 고액의 소개료를 착취하고 있으나 일부 허가받은 직업소개소도 가출소녀들을 불법소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알선하는 방법은 가출소녀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후 생활비와 유흥비를 빌려주어 빚을 지게 한 후, 여기에 선불금을 빚으로 합산하고, 다시 고리의 이자를 떼는 방법으로 빚을 못 갚는 가출소녀들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친구소개를 통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우도 많아 동반가출 및 동반취업의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가출청소년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고용되어 지는데, 이전에는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구인광고, 친구소개, 보도방 같은 보다 대중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다.

<표 II-5> 미성년자 불법고용 경로

분류	보도방	구인광고	직업소개소	친구소개	인신매매	계
인원	673	2122	457	1791	5	5048
비율	13.3	42.0	9.1	35.5	0.1	100

출처 : 대검찰청, 1999.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백서

(2) 미성년자 성매매 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및 문제점

① 업소 및 업주에 관한 처벌 법규

업소에서의 성매매 금지와 관련한 법적조항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II-6> 업소에서의 성매매 처벌 법규

구 분	조 문 내 용	벌 칙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숙박업자, 이용업 및 미용업자, 목욕장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제공 금지(법 제15조)	- 행정처분 -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풍속영업의 규 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소에서의 윤락·음란행위 알선·제공 금지(법 제3조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술소안에서 퇴폐·음란행위금지(법 제7조 5호)	-행정처분
윤락행위등 방지법	영업으로 윤락행위 장소제공 및 알선한 자(법 제25조 1항) 영업으로 윤락행위 유인·권유 및 윤락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강요(법 제25조 2항 1호)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마시술소는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사격(맹인) 안마사만이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 역시 이용업, 증기탕업 등의 위생접객업소와 같이 성매매춘의 우려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더구나 시술소의 여자종업원의 수는 고용 안마사 수의 3분의 2이하의 비율로 할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여종업원의 역할이나 윤락행위를 금한다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업소 안에 여종업원을 두고 매매춘 행위를 제공하거나 맹인 안마사로부터 자격을 대여받은 정상인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은 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로 화대 중의

일부를 업주에게 떼어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식적인 윤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업소에서의 성매매 금지와 관련한 현행법규의 문제점은 업소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규제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즉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한 숙박업자, 일반목욕장업, 이용업 및 미용업자의 윤락행위 알선 및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3차까지 가야 업장을 폐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안마시술소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등에 대한 단속이 실효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중위생감시원들은 권고나 시정명령의 행정조치만 할 수 있고, 단속권은 경찰이나 검찰이 갖고 있어, 단속주체와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책임성 부재나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를 주게 될 수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업소들을 단속하기에는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업주와 단속공무원의 유착관계까지 형성될 경우, 더욱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② 윤락행위 관련자 처벌법규

윤락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조항으로는 13세 미만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루는 형법,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루는 아동복지법,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루는 청소년보호법, 모든 윤락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관한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 관련 처벌법규는 각 법마다 대상연령을 달리 하고 있으며(형법:13세미만, 아동복지법:18세미만, 청소년보호법:19세미만, 윤락행위등방지법:20세미만) 법체계도 산발적이다. 또한 현행법들은 포주 및 중간착취자,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 윤락행위등방지

법에서만이 윤락행위자 및 상대방에 대한 양벌조항과 포주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락상대방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잘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 매매춘을 막기 위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성인, 미성년 매매춘 알선, 강요, 영업행위자 및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행위자의 이름과 연령, 직업, 범죄사실요지 등이 공개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매매춘을 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의 국회상정을 계기로 이후 다른 법률과의 조정 및 처벌대상, 용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I-7> 성매매 행위 관련 처벌법규

구 분	조 문 내 용	벌 칙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금지(305조)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음행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금지(18조 5호)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26조 2항)	성적접대행위금지(1호)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음란행위금지(3호)	10년이하의 징역
	대가성성적교제행위금지(9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윤락행위등 방지법	윤락행위를 한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26조) (20세미만의 윤락행위자-8조 1항, 2항)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소년부판사의 6개월보호처분)
	폭행,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한 자(24조1항) (20세미만의 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자 -24조 3항)	5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징역)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한자(25조2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및 윤락행위의 상대방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25조2항)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3) 청소년복지 사범 현황

청소년복지 사범은 청소년의 복지를 침해하는 성인범죄를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비행을 조장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출입해서는 안되는 유흥업소에 출입토록 묵인하거나 음주·흡연할 것을 알면서 술·담배를 판매, 청소년들의 남녀혼숙을 묵인, 조장하는 행위 또는 이들을 폭사 학대 및 배후에서 중간 착취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 청소년 복지를 침해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복지사범은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7년 한해동안 유흥업소 출입묵인, 남녀혼숙, 음란디디오 방영, 미성년자 고용 등 총 8,439건을 단속하여 이중 205건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즉심처리 하였다. 청소년보호법은 이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징역, 벌금 및 과징금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다.

<표 II-8> 청소년복지 사범 단속현황

구분	계	단속					처리		
		유흥업소 출입묵인	운락행위 묵인	음란비디오 방영	미성년자 고용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1994	3,489	751	422	33	99	2,516	114	2,354	1,318
1995	5,314	1,045	187	90	165	3,745	158	3,450	1,706
1996	7,764	1,137	187	79	384	5,977	177	6,047	1,540
1997	8,439	1,116	256	99	489	6,479	205	5,642	2,592

출처 : 청소년백서, 1998:370

2. 가출청소년의 가출경로 및 당면문제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가출청소년 개인의 상황과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진다. 개인의 심리적 또는 내면세계의 문제를 고찰하기도 하고, 학교와 가정의 구조와 역동 혹은 사회환경적 유인요인

과 주변 또래집단의 구조와 역동을 분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가출의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가출 청소년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사례조사는 가출청소년들의 가출 경로, 가출후의 이동경로 및 당면문제의 유형들을 분석하여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되었다. 조사설계는 가출청소년 수용·보호시설을 거쳐간 가출청소년의 상담일지 사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열람하고, 분석내용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상담원의 보충설명을 기록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무작위로 선정한 상담일지 중 최소한 2주이상 시설에 기거하며, 5회 이상의 상담과정을 거친, 비교적 구체적으로 개인상황을 알 수 있는 일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총 50개 사례를 수집, 24개 사례를 검토·정리하였다. 분석내용은 가출동기, 문제 상황, 최초가출시기 및 가출 상승화/장기화의 여부, 가출 후 이동경로, 비행경험정도, 유흥업소 유입 실태, 현재의 욕구 및 장래희망 등이다.

1) 청소년가출의 실태

(1) 가출경로

사례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가출동기는 가족요인, 학교부적응 요인, 주변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부모의 이혼/별거/재혼 혹은 부모의 학대, 방임 및 알코올중독 등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에서의 탈출욕구가 비행 또래집단이나 향락산업 등 제반 유인 요인을 억제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II-9>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관계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결손 가정, 가족해체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24개 사례중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가 이혼을 하였거나 별거상태, 어머니가 가출하였거나 혹은 부모 어느 한 쪽이 사망하였거나 자살하는 등 구조적 결손가정이거나 가정이 해체된 경

우이다. 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는 24개 사례 중 8개 사례에 불과하고, 그나마 빈곤가정, 계모나 계부, 질병, 알코올 중독, 난폭함 등 기능적으로 결손된 가정이며 구조적·기능적으로 원만한 가정은 한 케이스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외에 가족으로부터의 신체적 학대에 시달리거나 방치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친아버지, 삼촌, 오빠 등 가까운 직계로부터의 성학대, 친엄마, 고모로부터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하는 등 인륜이 파괴된 가정에서 어려운 성장과정을 거처온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가정에서 밀어내는 요인은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 또래집단의 합의 합류 및 향락산업에의 유입을 부추기고, 결국은 고통과 시련에서 탈출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으로 혹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최악으로 전락하기 위해 가출을 시도하게 된다. 가출의 직접적 동기로 계모나 계부의 학대, 부모의 무관심, 방치 혹은 지나친 간섭, 부의 성폭력 및 구타 등 가출이 최상의 선택인 측면이 자주 등장하였고, 아울러 학원폭력, 따돌림, 학업흥미 상실 등을 비롯한 학교부적응, 심리적 불안이나 정신지체, 보육원 및 사회복지시설 부적응 등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가출을 선택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2) 최초 가출시기 및 가출의 장기화

청소년들이 최초로 가출하는 시기는 중학교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24개 사례 가운데 15개 사례가 중학교 때 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때 가출한 사례도 6개에 이른다. 중학교 2학년 때 최초로 가출한 사례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 각각 5개로 나타났으며, 중3과 고1이 각각 2개, 고2와 초등5 때 최초로 가출한 사례가 각각 한 개씩 있었다.

가출 상황에 있어서도 5회 이상 가출을 경험한 상습적·장기적 가출이 대다수 였는데(24개 사례 중 16개 사례), 한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상습적으로 가출을 시도하여 가출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

초 가출임에도 불구하고 8개월째 떠돌아 다니며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장기가출자도 있었다. 실제적으로 가출청소년의 재가출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가출청소년의 최초 가출시기는 점차 낮아져 저 연령화 되고 있는 현상은 여러 조사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문제는 가정을 떠나는 청소년은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도 이탈된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학교를 포기했거나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자였으며, 현재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는 24개 사례 가운데 5개 사례뿐이었다. 가정에서 부모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 속에 혹은 학교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야 할 청소년기에 가출로 인해 부모 혹은 가족과의 결속력이 끊기고, 학교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청소년은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정체불명의 혼란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가정,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및 학교 등 올바른 사회화의 과정을 익혀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고, 복귀가 불가능 할 경우 대안가정이나 대안학교 혹은 직업교육 등 대안책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3) 비행경험 실태

사례조사 대상의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음주, 흡연을 비롯하여 성비행, 절도, 폭력, 약물 등 다양한 비행전력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습관적으로 혹은 떠돌이 생활에 대한 생존수단으로 절도를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문제는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는데 대한 도의적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상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절도가 일상적인 생활수단이 되었다는 데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출을 전후로 하여 자연스럽게 비행 또래집단과 어울리게 되고, 비행문화에 합류하게 된다. 이성친구와 거리낌없이 어울리며 문란한 성관계를 갖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왜곡된 성문화와 성적

개방화 현상에 휩쓸려 각종 성비행을 경험한다.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성의식 및 성경험은 일반 청소년들과 매우 다르며, 가출과 중퇴의 문제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나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많은 조사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출이나 중퇴를 경험한 여자청소년의 과반수가 중·고등학교 시절의 성관계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3분의 1 가량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도 있으며, 10명중 9명은 유흥·향락업소에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심영희 외, 1999:87). 그러므로 특히 가출소녀로 하여금 건전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가출 후의 가장 심각한 문제상황이라 할 수 있는 유흥업소 취업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본 사례조사 대상의 가출소녀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행의 유형으로는 음주, 흡연을 기본으로 하여 본드나 가스흡입 등 약물비행과 학교 부적응 현상에서 비롯되는 등교거부 및 학교폭력 등 폭력비행이 자주 등장하였다. 특히 약물문제는 가출소녀들의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폐해를 가져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9> 가출청소년의 가출경로 및 비행경험 실태

사례	나이	학력	가출배경	비행경험	가출동기	최초 가출	가출 횟수
A	15	중2 자퇴	부모 별거, 모는 친척 없음 두인니 모두 집을 떠나 가족 해체	음주, 흡연	· 부의 알콜중독 및 육체적· · 성적 학대 · 가족붕괴, 학업흥미 상실	중1	5회 이상
B	14	중2	대가족으로 매우 빈곤 치매에 걸린 할머니 수발	폭력 비행집단 쟁	· 빈곤한 가정의 가사노동으 로부터 탈출욕구가 강함 · 등교·수업거부 횡수가 늘	중2	2-5회
C	16	고2 자퇴	부모의 이혼 다방을 경영하는 고모	음주, 흡연 성비행	· 돈벌기 위해	중2	2-5회
D	13	중1 자퇴	부모의 이혼, 부의 성폭력 친오빠로 부터의 성폭행 경험	흡연	· 계모와의 갈등 · 부의 무관심	초6	5회 이상
E	15	중2 자퇴	부모의 이혼, 모는 연락 두절 이혼한 삼촌과 친오빠의 학대	음주, 흡연, 도박, 유흥업소 취업	· 삼촌, 오빠로 부터의 (성)폭행	중1	5회 이상
F	18	고2 자퇴	모의 가출, 거의 기억 없음 모에 대한 원망이 쌓인 부의 잦은 체벌	절도, 음주, 흡연	· 정신지체 2급, 고교자퇴 · 중학교때 가출후 성폭행 당 한 후 수시로 가출 시도	중2	5회 이상
G	16	중2 자퇴	모의 조기이혼, 가정해체 각각 재혼후 세자매 방치	음주, 흡연	· 부의 무관심 · 계모의 학대	초6	5회 이상
H	17	중2 자퇴	부모의 조기이혼, 가정해체 각각 재혼후 세자매 방치		· 부의 무관심 · 계모의 학대	중2	5회 이상
I	14	중2 자퇴	부모의 이혼, 조모양육 모의 재혼/별거 7년전 인니의 가출	본드, 가스, 웃걸도	· 가정해체로 인한 심리적불안 · 조모의 학대	중1	5회 이상
J	17	고1 자퇴	새아버지의 무관심, 방치 계부에게 의존적인 친모 남동생에게만 관심집중	음주, 흡연	· 부모의 무관심 · 학교부적응, 따돌림	중3	5회 이상
K	14	중2 자퇴	부모의 이혼, 각각 재혼 부와의 갈등심화, 보호자로서 의 권리를 포기하려 함	음주, 흡연	· 부모의 무관심 · 부 재혼후 남동생 출생, 갈등심화	중1	5회 이상
L	14	중2	아버지는 돌아가신(초 1학년) 어머니의 식당일로 생계유지	수업거부, 음주, 흡연	· 엄마의 지나친 간섭 · 이성친구를 못만나게 하는 데 대한 반발	중2	2-5회
M	17	고1 자퇴	부의 실직, 모가 힘겹게 가정 경제를 꾸려감	흡연, 절도	· 부모의 간섭 · 이성친구	중3	2-5회
N	17	고1 자퇴	부모의 이혼, 계모아래 성장 부의 교통사고로 딸에게 경제 적 의존	음주, 흡연	· 학교부적응 · 학교중퇴후 돈벌어 가족을 도우려 함	고1	처음 (장기 가출) 8개월
O	15	고1 자퇴	부의 사망, 모의 자살 삼남매가 각자의 생계해결	흡연, 음주	· 학원폭력, 따돌림 당함 · 가족해체	초6	2-5회
P	18	고2 자퇴	기능직 결혼가정 부의 난폭한 성격, 모의 무기 력함	약물 (향정신성약물)	· 부모관동 · 아버지의 폭행 · 공포, 불안함	고2	5회 이상

사례	나이	학력	가족배경	비행경험	가출동기	최초 가출	가출 횟수
Q	16	중2 재학	모: 어려서 가출함 부: 모의 가출후 내담자를 성 적 대상으로 취급 동생: 보육원 위탁보호 중	흡연, 음주 절도	· 모의 가출 · 부의 성폭력 · 보육원생활 부적응	중1	2-5회
R	17	고2 자퇴	부:알콜중독,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구타를 가함 모: 내담자에게 전혀 지지 기반이 되어 주지 못함	성비행, 흡연	· 부의 심한 알콜중독 및 무기력한 어머니 · 어려운 가정 형편	초6	5회 이상
S	16	중3 재학	친부모는 각각 이혼한 상태 에서 결합 가정의 기능적 결손으로 오 빠도 오토바이 절도, 음주, 흡연등 잦은 비행을 보여옴	음주, 흡연 절도	· 부모의 심한 구타 ·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 · 친구와 함께 동반가출	중2	5회 이상
T	15	중1 자퇴	부:오랜 질병생활로 가정의 역할 상실 모:내담자에게 가족의 생계 부양 강요	흡연, 음주 성비행	· 부의 질병, 경제적 빈곤 · 유종업소 취업	초등 5	5회 이상
U	19	고1 자퇴	할머니의 드센 성격에 어머 니가 가출, 아버지, 동생과 생활 내담자도 할머니 성격 때 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함	흡연, 음주	· 모의 가출 · 조모의 엄격한 통제 · 비행 또래집단과 어울림 · 유종업소 취업	고1	2-5회
V	15	중3	부:잔뜩은성격, 위압적인 자 세, 아내에 대한 불만 모: 부부갈등 및 시댁과의 불화로 알콜 중독 상태	흡연, 성비행	· 모의 심한 잔소리, 통제 · 부모의 갈등, 잦은 이혼 시도 · 모의 알콜중독	중2	5회 이상
W	18	중졸	부모 모두 생업에 쫓겨 내 담자를 할머니댁에 맡김 연로한 할머니가 내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	절도, 성비행	· 지적 지체 ·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 생리전증후군	초등 6	5회 이상
X	18	중3 자퇴	3살 때 보육원에 맡겨 져기 때문에 가족력을 전혀 알 수 없음	폭력, 음주, 흡연	· 사회복지시설 부적응 · 문제행동 으로 인해 퇴소 당함	중2	5회 이상

2) 가출 후 이동경로 및 현안문제

(1) 이동경로

청소년들은 가출 후 다양한 이동경로를 거친다. 가출한 후 지낸 곳으
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친구 자취방 혹은 친구집, 남자 친구집 이었고,

다방이나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지냈다는 경우도 자주 등장하였다. 그냥 막연히 터미널, 공원 등 거리를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사례도 있었고, 각 지역의 쉼터만을 떠돌아 다니는 가출소녀도 있었다.

본 사례조사 대상 가출소녀들은 대부분 근본적으로 가정 복귀가 불가능하여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습 가출자들로 친구집, 자취방 등을 전전하며 뚜렷한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머무를 곳과 돈이 필요해지면 다방, 카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고용되어 숙식을 해결하려 하는 장기 가출자들이 많았다. 일시가출일 경우는 친구집이나 길거리를 배회하다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반복적으로 가출할 경우, 가출횟수가 잦아짐에 따라 가출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주유소나 유흥업소 등 숙식의 해결을 위해 취업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가출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환경의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가출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은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형성을 경험하지 못한 가출청소년들은 가정,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지집단에 동화되어 가출의 장기화를 고착시키게 된다.

이처럼, 아이들은 가출 후 다양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크게 네가지 유형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친구집 등을 전전하다 자의로 남자 친구 등과 동거하며, 혹은 오가다 만난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율 하는 경우, 둘째, 먹을 것과 용돈을 해결하기 위해 080 무료전화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원조교제를 하고, 자발적으로 혹은 각종 유입경로를 통해 다방이나 단란주점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타의에 의해 유혹당하거나 강제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있고, 넷째, 노숙자 생활에 익숙해져 숙칭 ‘까대기’³⁾라는 형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경

3) 지하도나 거리에 머물면서 매일 다른 남자를 만나 수시로 관계를 가졌다 헤어지는 생활을 하는 것을 속어로 ‘까대기’생활을 한다고 표현한다. ‘까대기’라고 할 정도면 이미 그 생활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로 도리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우도 있다. 이러한 각종 성적 문란함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동거의 경우는 임신의 문제가, 080무료 서비스와 원조교제의 경우는 무리한 성관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타의에 의한 유혹과 강제적 납치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다방이나 단란주점의 불법고용을 통해서서는 금전적 악순환과 빼끼들로 부터의 강압적 요구에 시달리며, 까대기의 경우는 노숙자의 생활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어렵게 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2) 유흥업소 유입실태

본 사례조사 대상 가출소녀들은 대부분 유흥업소에서의 취업경험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흥업소에 유입되고 있다. 본 조사대상 가출소녀들의 유흥업소 유입 경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다.

첫째, 직계가족에 의한 강요로 유흥업소에 유입된 경우이다. 사례 C의 경우처럼 가출소녀의 고모가 경영하는 다방에서 티켓과 윤락을 강요당했으며, 거절할 경우 폭력을 경험하기도 했다. 사례 T의 경우는 아버지의 오랜 질병생활로 가족의 부양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어머니가 딸에게 생계를 강요하여 유흥업소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이다. 두 사례의 대상자는 모두 업소일 자체를 힘들어하고,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강하나 계속되는 가족의 강요 및 업소와의 복잡한 채무관계 등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둘째, 가출 후 이곳 저곳을 배회하며 떠돌아 다니다가 가출이 장기화될 경우,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우이다. 사례 G, 사례 H, 사례 J 및 사례 O 등은 모두 가출 후 친구 자취방에 기거하고 노숙을 하기도 하며, 주유소, 다방 등을 거쳐 유흥업소에 유입된 경우로 대부분 가출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비행문화 혹은 비행 또래집단에 합류하다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우이다. 학교부적응 및 이성친구와의 문란한 행동 등으로 이전부터 부모와의 마찰이 심하고, 그러면서 비행 또래집단과 어울리게 되어 함께 유흥업소에 취업하게 된 경우로 사례 J, K, L, M, T, U, V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출소녀가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단기가출의 경우는 유흥업소에 유입될 가능성도 적고,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반복적인 재가출로 가출이 상습화되면 가출의 기간도 점차 장기화되어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흥업소에서의 취업이 불가피해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향락산업에 유입된 대다수의 가출소녀들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 억압되고 강요받는 생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스런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하지만, 일부는 그 곳 생활의 매력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학교 밖으로 내몰린 경우이므로, 비슷한 환경의 또래들과 쉽게 어울리고 동화되며, 향락산업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 집단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지지기반이 되어 그곳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례 G의 경우처럼 다방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것이 현재의 가장 절실한 욕구라 한 것이나, 사례 V의 경우처럼 다방에서 만난 언니들을 우상처럼 여기며 집에서 나가고 싶은 것이 현재의 절실한 욕구라 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문제상황

청소년들의 가출경로나 동기가 다양한 것처럼 가출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당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 없이는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가 불가능해지고, 청소년가출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양상을 띠게 될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가출청

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청소년가출이라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본 사례조사 대상 가출소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가출청소년의 대다수는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 출신으로 복귀할 가정이 없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거나 별거상태, 어머니가 가출하였거나 혹은 부모 어느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자살하는 등 구조적 결손가정이거나, 계모나 계부, 질병, 알코올 중독, 난폭함 등 기능적으로 결손된 가정이며, 가족으로부터의 신체적 학대에 시달리거나 방치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친아버지, 삼촌, 오빠 등 가까운 직계로부터의 성학대, 친엄마, 고모로부터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하는 등 극도로 심각한 가정환경이다.

둘째, 학업흥미 상실, 무단결석 등의 요인으로 대부분 학교를 스스로 포기했거나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자들로, 그대로 방치될 경우 올바른 사회화의 과정을 상실하게 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준비과정이 결여되어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해 질 소지가 많다.

셋째, 사례조사 대상의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음주, 흡연을 비롯하여 성비행, 절도, 폭력, 약물 등 다양한 비행전력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습관적으로 혹은 떠돌이 생활에 대한 생존수단으로 절도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출을 전후로 하여 자연스럽게 비행 또래집단과 어울리게 되고, 비행문화에 합류하게 되며, 이성친구와 거리낌없이 어울리며 문란한 성관계를 갖는다.

넷째, 대다수의 가출소녀들은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문란한 성생활 및 향락산업에의 유입으로 임신·낙태·출산의 경험 및 성병 등의 문제를 갖고 있고, 가정으로부터의 학대 혹은 가출 후의 정서·심리적 불안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나친 음주·흡연을 비롯하여 본드·가스 흡입 및 약물남용 등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가출 후 이곳 저곳을 배회하며 떠돌아 다니다가 가출이 장기화 될 경우,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감금, 폭력, 빚 등 각종 문제에 연루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러한 생활에 무의식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환경의 또래들과 쉽게 어울리고 동화되며, 향락산업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 집단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지지기반이 되어 그곳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하에 다른 직업의 선택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고 건전한 노동관의 확립이 어렵다.

<표 II-10> 가출 후 이동경로 및 당면 문제

사례	가출후 자리방	이동경로	주요문제 및 현상	결실한 욕구	강래희망
A	자취방	친구들 자취방 전전	· 부의 알콜중독 및 육체적·성적 폭행 · 부에 대한 애정과 두려움이 병존, 불안해함	연애인이 되 고싶다	가수, 탈 렌트
B	친구 자취방	거리배회 친구들과 불려다님	· 학교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 비행집단의 우두머리 · 비행집단에서 탈퇴하기 위해 전학을 원할 정도로 자신을 추스리나 빈곤한 가정, 집단 유인력으로 실패	신의 은총	성악가, 신앙인
C	다방	다방	· 오랜 아르바이트 생활로 소비성향이 매우 강함 · 고모가 경영하는 다방에서 티켓과 음막을 강요당하고 폭력을 경험함. 중년남성과의 고정적 성상대	친구들과 만 나 살고싶다	화장품, 옷가게 경영
D	쉼터	각 지방 쉼터 배회	· 제모와의 갈등, 집에서 천대받는 것이 너무 싫어 가 출 시작, 서울, 부산, 조치원 등지로 다니며 쉼터이용 · 부·모·외조모 모두 내담자에게 너무 지쳐 모든 권리 와 의무를 포기하려 함		연애인
E	유흥 업소	다방, 유흥업소	· 폭력 등의 사유로 2년간 보호관찰 대상 · 삼촌과 오빠의 성폭행, 부모의 이혼, 부의 잦은 외 박으로 방치되면서 각종 비행의 세계에 빠진. · 가출 후 다방 등을 전전하며 종업원으로 일함. · 일하던 다방과의 채무문제도 남아있어 피로위함		현모양처
F	친구 자취방	떠돌아 다님	· 가출시 성폭행을 당해서 낙태 한 경험이 많음. · 현재 임신 5개월의 아이를 낙태하여 건강이 안 좋고 성병 도 치료도 안 된 상태, 정신지체 판정의뢰 요망	기술습득 남자친구와의 재회	재행사
G	남자 친구집	남자친구집 자취방 다방취업	· 이혼후 아버지는 세자매를 고아원에 맡기기도 함 · 새엄마와 계혼후 갈등심화, 초등 6 부터 가출시작 · 그후 남자친구집, 자취방 등을 전전하다가 다방에 취업, 단속에 걸려 쉼터로 인도됨	다방에서 오 래동안 일하 고 싶다	가수
H	거리 배회, 친구 자취방	노숙, 친구자취방 다방취업	· 앞 사례의 언니. 어려서 부·모이혼 고아원→귀가 →새엄마→자취, 가출의 행로로 심신이 힘든 상태 · 가출후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생활 (노숙, 친구자취방, 다방 등) · 두번의 혼산경험이 있으며 입양 시킴	미용사가 되 어 돈벌고 싶 고, 기차할 방을 구하고 싶다.	미용사
I	거리 배회, 친구집	자취방	· 4세때 부모의 이혼, 모의 계혼 및 별거 등으로 정서 적·심리적으로 불안 · 조모의 구타로 충동적 가출이후 삼습가출로 이어진 · 약용(가스, 분드)흡입, 남자친구로부터 2-3번의 성폭 행, 절도경험, 약물흡입으로 23일간 감발소에 다녀옴	학교복학, 친구사귀	연애인
J	친구집, 다방	자취방, 다방취업	· 학교생활에는 흥미가 없고, 정서적으로 만족하여 친구들 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며, 가정에도 마음을 두지 못함 · 그간 수차례 가출을 했으며, 최근 가출후 다방에서 일하다 경찰 에 의해 미성년자로 적발되어 쉼터입소	집에 들어가 기 싫다. 자유	사업가
K	쉼터	친구집, 다방취업	· 부와의 갈등으로 중 1때부터 시작된 가출이 이전 거 의 상습과 되었으며, 순·담배 심함 · 다방에 불법 취업, 미성년자로 적발되어 쉼터 입소. · 남자들과도 거리낌없이 어울리며, 성관계 문란	쉼터에서 나 가는 것	연기자
L	여관, 업소	거리배회, 친구집, 유흥업소	·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엄마의 지나친 간섭, 학교생활 의 부적응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 · 임신으로 신장이 날카로우며, 집에 가서 병원에 가고 싫어함 · '자녀안심'의 도움으로 유흥업소에서 빠져나올수 있 었으나 빚을 짐	집에서 아 빠의 차를 지내고 싶다	미용사
M	남자 친구집	남자친구집 주유소, 카페, 단란주점	·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가출을 시작. 고1 자취후 이 성친구 사귀, 주유소, 카페, 단란주점 등에 취업 · 임신후 엄마동장 160만원을 훔쳐 남자친구와 도주, 일주일만에 다스고 결국 귀가해서 임신중절을 받은 상태	학교복학	옷가게

사례	가출후 지넨곳	이동경로	주요문제 및 현상	절실한 욕구	장래희망
N	남자 친구집, 술집	자취방 술집 취업	·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미에 있는 술집에 취직, 티켓 강요 감금 및 폭력, 감시와 구타경험, 주변아이들이 후산도 등 지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 · 도망치긴 했지만 소개소 사람들이 찾아다닐까 신분 노출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상태.		
O	언니 자취방	자취방 주유소 다방	· 현재 가출 5개월째로 아는 언니들 자취방, 주유소, 다방 등을 전전해옴 · 학교 · 또래집단에서 이지메를 당해 몸에 흉이 있음 · 술, 담배 및 문란한 성격임	집에 가고 싶다	교사
P	남자 친구집		· 부가 모에 행하는 폭행으로 인해 늘 불안하다 보니 정서불안이 생김, 결국 부의 폭력이 두려워 가출을 시작 · 유산경험이 있으며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남자 친구를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의지하며 민족관계불 보임 ·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2층에서 뛰어 내려 장에를 지님		
Q	거리 배회	보육원, 저기배회	·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집에서 견딜수 없게 되자 보육 원에 위탁 의뢰됨 · 보육원에서 적응못하고 가출하여 거리를 배회하고 다님 · 아버지는 내담자를 성상품으로 이용하여 주변사람들 에게 헐박, 공갈 등으로 금품을 간취하여 생활함		
R	거리 배회, 교회	거리배회후 다시 돌아 감	· 여러차례의 가출경험, 학교생활도 적응을 못하고 있음 ·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가출, 때로는 산속에서도 자 고 교회등지에서 지내며, 남자친구도 자주 사귀 · 문란한 생활, 잦은 신경증, 성취욕이 전혀 없음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 다	
S	아는 오빠집	터미널, 오 빠집, 절도 후 경찰서	· 식구들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쳐 친구와 함께 가출함. · 중학교 2학년 초기부터 한달에 1회정도 상습적인 가 출, 평소에도 음주, 흡연, 절도 등 잦은 비행을 저질러옴. · 부모님의 훈육방법이 너무 엄한데 대하여(쇠사슬, 쇠 파이프 등을 이용한 구타) 반감을 가지고 있음	돈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모르겠다
T	유흥 업소, 친구집	유흥업소	· 가정의 견제로 인해 시작된 유흥업소의 일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 업소에 빚이 있어 그만 둘 수도 없음 · 초등학교때부터 가출을 시작했고, 같은 비행또래 집 단 과 어울리며 곧바로 유흥가로 취직함	없음	없음
U	유흥 업소	다방, 유흥업소	· 다방에서 여러곳으로 부채를 안고 넘겨졌으며, 현재 650만원의 빚을 진 상태 · 어려서는 아주 양전하고 성실했으나 어머니의 가출후 의지력은 없는 내담자는 비행 또래집단과 어울렸고, 결국 가출, 유흥업소 취업으로 이어져 윤락행위까지 강요당함		
V	친구집	친구집, 다방	· 부모님, 특히 엄마의 심한 잔소리와 통제 · 결국 가출, 남자와 혼숙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잡힘 · 항상 술에 취해있는 엄마, 어려운 내면을 또래를 통해 풀어보려 함. 다방에서 만난 언니들을 우상처럼 여김	집에서 나 가고 싶다	모른다
W	역전 터미널, 공원	거리배회, 터미널, 유흥업소	· 지적으로 다소 지체,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가출 은 그 횟수나 기간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가출후 역전, 터미널, 공원 등을 배회, 집에서 만난 사 랑들과 여관 등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하고 다님 · 생리중후군 증상,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	유흥에서 나가고 싶 다	
X	친구집	친구집, 비디오방	· 서울 소재 선도보호시설에서 생활, 그곳에서 술먹고 주먹질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퇴소 당함. · 새로 입소한 곳에서도 특이한 머리(남자스타일)와 동 성애로 보이는 행동을 하므로 지지를 받지 못하자 퇴소 · 컴퓨터 중신의 아이들끼리 모여 컴퓨터로 입소함	사랑하는 사람 만나 는 것	사업자

3)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과제

많은 조사연구의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문제는 청소년들이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가정을 이탈하면서 시작된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 또는 가족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데, 부모 또는 보호자 혹은 가정과의 결속력이 끊기면서 청소년은 정체불명의 주변인이 되기도 한다. 가출(家出)을 문자 그대로 풀어쓰면, 집 혹은 가정을 떠난다는 의미이다. 청소년가출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 개인의 심리적 또는 내면 정신세계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집을 떠나는 행위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문제, 성적 위주의 교육병리현상 등 집에서 밀어내는 요인과 이성친구를 포함한 또래 집단의 유혹, 향락산업을 비롯한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의 유인요인 등 상호 역동적인 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 속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야 할 청소년기에 가출로 인해 부모 혹은 가족과의 결속력이 끊기면서 청소년은 정체불명의 혼란상황을 맞게 된다.

문제는 가정을 이탈하는 청소년은 대부분의 경우 학교도 이탈하며, 결국 가출은 청소년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의 이탈은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결과로 이어져 끝내는 사회 자체로부터도 이탈되게 한다. 즉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일탈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개인의 일탈은 결국 사회의 무질서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문제를 조장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개인의 문제 혹은 한 가정의 사건이 사회문제로 비약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가출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가출은 사회문제도 아니고 청소년문제도 아닐 수 있다. 가출이 청소년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는 청소년의 가출이 처음에는 일개의 개인사건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이상오,

1997:37-38). 그러므로 청소년가출을 범죄로까지 보는 관점이 있다. 청소년가출은 폭력, 절도, 마약, 매춘과 같은 범죄의 온상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가출은 학업위주의 교육병리현상 및 학교중도탈락의 문제와 함께 결부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육성해야 할 사회체제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가출은 단순한 청소년비행이나 문제행동의 범주에서 이해하기 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화된 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가출청소년 개인의 문제해결 차원을 넘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구조 등 사회체제 전체의 개발정책과 연관되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소녀의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가출동기는 가족요인, 학교부적응 요인, 주변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출하게 되나, 부모의 이혼/별거/재혼 혹은 부모의 학대, 알코올중독 등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에서의 탈출욕구가 근본을 이루어 제반 유인 요인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가족관계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결손가정, 가족해체의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부모 혹은 가족으로부터의 신체적·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5회이상의 상습가출자 및 장기가출자였고, 최초 가출경험도 중학교 시기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가출후의 주된 거처는 친구나 남자친구의 자취방이나 유흥업소(단란주점, 티켓다방 등)가 빈번히 거론되었고, 마땅한 거처가 없어 놀이터나 다리밑을 배회하다 성폭행을 경험하고, 생존을 위해 향락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체계가 해체된데다, 육체적·성적 학대로 인해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며, 임신·낙태·출산의 경험 및 정서·심리적 불안, 비행경험(음주·흡연은 기본, 본드·가스 등 약물경험, 성비행 경험 등)도 높게 나타난 것이 현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체계 해체, 육체적·성적 학대로 인해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하며,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임신·낙태·출산의 경험 및 정서·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을 위해 일정기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흡연을 기본으로 하고, 그외 본드나 가스, 폭력, 절도, 유흥업소에의 유입 등 비행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청소년을 통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이처럼 청소년가출이라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다양한 접근 방식이 다단계에 걸쳐 상호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III. 가출청소년 보호서비스 현황

정부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가는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후대책과 예방대책을 병행하여 펴나가고 있다. 특히 가출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가출이 장기화, 습관화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후대책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가출 청소년을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사후대책 차원의 서비스는 상담시설, 아동복지시설, 선도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대안학교, 긴급전화서비스, 길거리선도보호활동 등을 들 수 있으나 각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정부의 주무부처가 상이하며, 부처간 연계체제도 미흡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992년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한 청소년쉼터는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도출되고 있으며, 순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형태의 소규모시설은 비인가시설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 III-1> 정부의 가출청소년 보호서비스 현황

명 칭	법적근거	관할부처	비 고
○ 상담시설 - 아동상담소 - 청소년상담시설 - 여성복지상담소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윤락방지법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2개소 (서울시) 9개소 (서울시) 30개소 (시·도)
○ 아동복지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직업보호시설 - 교호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전국 9개소 6개소 6개소 11개소
○ 선도보호시설	윤락방지법	보건복지부	9개소
○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10개교
○ 긴급전화서비스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 길거리선도보호활동		경찰서, 지·파출소 시·구청 및 동사무소	

출처 : 보건복지부(1998), 대검찰청(1999) 자료에서 재구성

1. 공공서비스

1) 상담시설

가족의 해체, 청소년비행과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표면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욕구가 높아지므로, 서울시에서 아동상담소 2개소와 청소년상담실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1)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는 특별시, 직할시와 도에는 반드시 1개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에는 시립아동상담소와 동부시립아동상담소가 있다. 특히 시립동부아동상담소는 가출, 약물, 학대 등의 문제를 지닌 아동, 미아 등 요보호아동의 일시보호기능 및 입소 상담·치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95년말 현재 공립아동상담소 13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5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구 등에 아동복지 지도원 378명을 배치하여 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고, 읍·면·동 단위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운데 7,112명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필요한 복지조치 등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2> 아동상담소 상담실적

상담총계			상담 아동 유형						상담 조치				
계	남	여	비행 가출아	가아	학대 방치아	미아	일반 아동	기타	귀가 연고자	시설 입소	취업 알선	가정 위탁	기타
33,132	18,057	15,075	6,310	1,914	911	753	16,182	7,062	15,858	3,918	1,743	381	11,232

출처 : 청소년백서(1997) 자료원: 보건복지부

(2)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과 부모의 고충상담을 처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다. 서울시에는 청소년회

관내에 청소년상담실 9개소를 설치하여 개인 및 집단상담, 인간관계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과 심리·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7년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에 의뢰된 총 139,186건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15.7%(21,825건) 가장 많았으며, 성격 13.5%(18,864건), 성·이성문제 13%(18,245건), 학업진로 11%(15,229건) 순으로 나타나 이들 4가지 문제가 청소년 전반에 걸쳐 많은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대상은 중·고등학생이 전체의 57%(62,800건)을 차지하고, 학부모 25%(35,104건), 근로청소년 5.3%(7,367건)로서 사춘기 연령인 중·고생의 갈등과 고민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상담내용별·대상별 상담실적(1997)

계	성·이성	가정	취업	학업진로	교우	정신건강	성격	여가활동	약물	비행예방	기타
139,186	18,245	19,365	1,068	15,229	16,757	21,825	18,864	2,431	2,242	2,935	20,225
계	학 생						근로	무직	학 부 모	기타	
	소	계	초	중	고	대					
139,186	80,001		5,850	32,285	30,515	11,351	7,367	5,630	35,104	10,942	

출처 : 청소년백서(1998)

(3) 여성복지상담소

윤락여성, 미혼모, 상습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소득 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사후 선도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30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역 및 터미널, 관광지역 등 여성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62개소의 간이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담소에는 여성복지상담원 406명이 배치되어 취업알선, 시설보호 알선 등의 상담사업을 하고 있다. 요보호소녀 및 여성을 수용·보호하기 위한 시설로는 1996년 현재 모자보호시설 37개소, 모자자립시설 2개소, 선도보호시설 9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7개소, 미혼모시설 8개소가 있다.

<표 III-4 > 여성복지상담소 상담실적(1996)

부녀 상담원	상담자 총 수	조 치 현 황						
		선도 귀가	시설 입소	보호 알선	직업 알선	치료 의뢰	교육 및 조언	기타
406	244,884	9,494	2,876	16,834	16,347	3,724	172,750	22,859

출처 : 청소년백서(1996) 자료원: 보건복지부

2) 수용·보호시설

(1)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켜 정상상적인 양육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 11조와 12조에 의하여 정부는 아동을 복지시설에 수용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가출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등이 있는데, 각 시설의 목적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일시보호시설 : 가출아동·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성장과정 및 희망 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996년 현재 9개소)

○ 아동직업보도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996년 현재 6개소)

○ 교호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지원부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996년 현재 6개소).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996년 기준 11개소)

(2) 선도보호시설

여자 가출청소년의 수용·보호가 가능한 시설로 선도보호시설이 있다. 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한 자 및 환경 및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여성복지상담원이 상담하여 이들 중 선도보호가 필요한 여성은 직업보도시설에 6개월~1년간 수용 보호하여, 컴퓨터, 양재, 미용, 한복, 등공예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 외에 사회적응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소절차는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자로서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결과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소조치(선도보호조치)하는 경우와,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로서 소년부 판사가 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입소조치(보호처분)하는 경우, 경찰관서 등이 입소의뢰한 경우는 다는 입소자에 우선하여 입소조치(우선보호조치)하는 경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 숙식제공, 인성변화교육 및 생활지도, 진학·복학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직업교육 실시, 의료보호(1종) 수혜, 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지도와 상담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 1999:4). 1996년도에는 17개소 선도보호시설에서 487명이 교육받아 이중 98명이 취직, 14.4%의 취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6년 이래로 선도보호시설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가출소년들이 선도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가출청소년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도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청소년의 수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다. 그 결과 최근에 2개소가 폐쇄되어 1998년 현재는 선도보호시설이 9개소로 감소하였다. 서울의 은성직업기술원과 한국여성의 집 2개소를 비롯하여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및 경남 1개소 등 총 9개 시설이 있다.

<표 III-5> 여성선도보호시설수 및 보호실적

구 분	시설수	퇴 소 자		
		계	취 직	취직율
1980	24	6,592	1,717	26.0
1985	23	3,524	853	24.2
1990	22	3,020	621	20.6
1992	21	3,106	605	19.5
1994	22	2,667	569	21.3
1996	17	487	98	14.4
1998	11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3) 대안학교

(1) 특성화 고등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1995년도 이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중등학생의 가출 및 중도탈락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된 이래, 1996년 12월 교육부가 학교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종합대책에 의하면 2001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상담전담교사제 도입, 가출학생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교육부, 1997). 특히, 중등학교 중퇴자에 대한 복귀조치와 관련하여 이들을 별도로 수용하여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대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규학교 탈락자와 같이 교육의 음지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시급히 요청되어 왔다. 대안교육의 제도화는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통상적으로 사용해오던 「대안학교」라는 명칭은 일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특성화학교」로 지칭하고 있다.

새 제도도입에 따라 '98년에 개교된 특성화학교는 양업고(충북), 영산성지고(전남), 한빛고(전남), 화랑고(경북), 간디학교(경남), 원경고(경남) 등 6개 고등학교 이고, '99년에 개교한 학교는 동명고(광주), 두레자연고(경기), 세인고(전북), 푸른꿈고(전북) 등 4개교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특별한 교수

법과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에 맞는 교육, 인성교육, 특별활동, 노작교육 등 자연친화적 교육을 실시하며, 지식위주의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띤다.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완전 기숙사제를 운영하여 상시적인 생활지도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성을 함양시킨다. 예컨대, 기숙사생 전체회의를 통한 토론의 생활화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현대 사회에서 약화되어 가는 가정의 역할도 함께 담당해준다. 일부학교에서는 마약, 약물중독 및 비행학생의 교화·선도를 위한 치료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모든 특성화학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 개인이 청소년선도에 대한 사명감으로 대안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학생수는 학교전체 인원이 적게는 20명에서 많으면 100명에 이르는 소규모 학교들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검찰청, 1999:425-430). 학생 개인별로도 교육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일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수업료를 납부하며, 대부분의 학교가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어 전원 기숙사 입소가 필수적이므로 매월 일정액(월 30만원 내외)의 기숙사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가출 등 일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특성화학교에 연계시킨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매월 40~5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면 그나마 대안학교에서의 특성화교육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2)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된 대안학교

교육부 인가 및 지정 특성화 고등학교인 10개의 대안학교 이외에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되어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하는 서울의 성지중·고등학교, 안산의 들꽃피는학교, 마산의 들꽃은누리학교 등 3개의 대안학교가 있다.

서울 성지 중·고등학교는 1998년 12월 설립된 서울지역 유일의 대안학교로서 중학교 174명, 고등학교 522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대안학교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재학 중 108시간의 봉사활동과 90시간의 예절 및 도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를 운영, 학생 자율중심의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들꽃피는학교는 가출청소년을 교회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가출학생 또는 결손 및 비행청소년들을 폐농가나 목사의 집 등에서 가정을 꾸민 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서 교사와 학생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므로 가장 적극적인 계도 및 선도가 가능하다. 각 가정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안산에 ‘예수가정’과 ‘돌국화의집’, ‘에델바이스의집’, ‘중보기도의집’이 있고, 성남에 ‘은행골가정’이 있다. 들꽃피는학교는 1994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시키고 있다.

들꽃은누리고등학교는 경남마산의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학교로 여러 가지 사유로 정규 교육체계에서 벗어난 중도탈락자들을 위해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회교육시설이다. 주요 교과수업을 최소화하고 보육원 자원봉사, 텃밭가꾸기, 요리, 풍물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대검찰청, 1999:431-434).

4) 긴급전화 서비스

현재 가출 및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1366’ 여성상담전화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원하는 ‘1388’ 청소년긴급전화가 있다.

또한 경찰은 현재 미아, 가출청소년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182 신고센타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수용시설(영아원, 육아원, 양로원, 복지원)에 보호된 모든자들의 인적사항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아, 가출인 수배방법은 대상자의 인상착의, 인적사항, 신

체적 특징 등을 문자식으로만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므로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경찰에서는 1995-1997년에 걸쳐 현행 문자식 검열방법을 첨단사진 영상처리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5) 길거리 선도보호 활동

경찰서, 지·파출소의 경찰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구청의 공무원, 아동상담소 직원 등이 비행에 빠지기 쉬운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흥가, 번화가, 피서지, 공원, 역 등의 우범지역을 순찰하여, 가출청소년들을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할 경우 보호시설, 의료시설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외에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한국청소년선도회 등의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도 심야에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는데 이때 발견된 가출청소년들은 경찰에 인계되어 처리된다. 이처럼 거리에서 실시되는 가출청소년들 위한 선도 보호활동은 일종의 현장지원(outreach) 서비스로 볼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우므로 좀더 전문적인 접근으로 상담 및 의뢰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민간서비스

가출한 청소년이 또다른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에서는 무료숙식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유입을 방지하고 조기귀가를 도울 뿐 아니라, 재가출을 막기 위한 가족상담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1992년을 시점으로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가 서울 YMCA에 청소년쉼터 위탁하여 운영해 온 이래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등 7개소이며,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의식주를 제공하는 일시보호서비스, 상담서비스 및 사후지도, 각종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보호기간이 끝나면 귀가시키거나 중장기보호시설, 직업훈련 학교 등에 의뢰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의 기능을 갖는 쉼터를 2007년까지 자치구 별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다.

<표 III-6>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시설 수급계획

	1999년 현재	2001	2004	2007
시설수	7	12	18	25

출처 : 서울특별시, 1997:301에서 재구성

이외에 강남구 청소년쉼터와 노원구 청소년쉼터가 강남구청과 노원구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구로지역 청소년쉼터와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우리세상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외 정부나 시/도의 지원없이 천주교 교구에서 운영하는 비인가시설이 다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와 자립지원을 돕는 시설 및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파악된 비인가 수용·보호시설은 총 48개로, 이중 일시보호(1개월미만)시설 9개소, 단기보호(1-6개월)시설 15개소, 중·장기(6개월이상)시설 24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비인가 시설은 가출청소년을 수용·보호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과 재정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들 48개 비인가 시설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은,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7개소(서울YMCA,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서울시 지원 2개소(구로, 신림), 구청지원 2개소(강남구, 노원구), 지

방자치단체 지원(창원여성의집 무지개뜨는청소년쉼자리) 1개소 등 12개 시설이며, 나머지 36개 시설은 순수 민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여자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며, 남자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시설은 7개소(대구, 인천, 신림, 강남구, 대전, 열린문, 돈보스코)에 불과해 남자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표 III-7> 비인가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구분	수	명	칭	지 원	이용 기간
일시 (9)	7	· 서울YMCA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문화관광부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및 광역시			1개월 이내
	2	· 구로지역 · 신림지역		서울시	
단기 (15)	2	· 강남구 · 노원구		구청	6개월 이내
	13	· 노랑진쉼터 · 해바라기쉼자리 · 우리들쉼자리 · 수지의집 · 모듬이쉼터 · 우리청소년쉼자리 ·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서울나자렛집 · 친구살이 · 씨든해바라기 · 성심어머니집 · 회방의샘쉼자리 · 좋은친구쉼자리		민간 종교단체	
중· 장기 (24)	1	· 무지개뜨는청소년쉼자리		창원시	6개월 이상 · 자립시 까지
	23	· 대한성공회나눔의집 · 수원나자렛집 · 대전나자렛집 · 장성나자렛집 · 광주나자렛집 · 창원젊음의집 · 열린문쉼터 · 동영한울타리 · 마산한울타리 · 진주한울타리 · 다비다의집 · 하늘바라기집 · 빗누리집 · 고척동만남의집 · 아네스의집 · 테레사의 집 · 백합누리 · 좌할독자의집 · 은총의집 · 소년예수의집 · 해오름쉼터 · 막달레나의집 · 돈보스코청소년센터		민간 종교단체	
계	48				

출처 : 현황조사 결과 (1999. 10월 현재)

1) 비인가 일시보호시설

현재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은 9개소로 모두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다. 일시보호의 기간은 2주~1개월 미만이나 대부분의 시설이 기간종료후 마땅히 갈 곳이 없거나, 인계할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몇 개월간 연장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7대광역시 청소년쉼터 7개소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구로쉼터와 신림쉼터 2개소가 있다. 92년 10월 서울YMCA 청소년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96년에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97년에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가 개소하였고, 98년에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 3개소가, 끝으로 99년에는 울산광역시에 개소되어 7대 광역시에는 청소년쉼터가 모두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각 광역시의 청소년쉼터는 8명~15명정도 까지이고, 구로와 신림 청소년쉼터는 20~30명 정도이나 대부분 수용가능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기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공회 대전교구에서 운영하는 대전청소년쉼터와 예수성심전교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울산광역시청소년쉼터,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림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쉼터가 모두 YMCA, YWCA, 청소년연맹,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 청소년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인력구성을 보면, 비교적 많은 수의 가출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구로쉼터와 신림쉼터는 9-10명 정도의 인력체계를 갖고 있고, 각 광역시의 청소년쉼터는 4-6명 정도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장 및 관장 등 비상근인력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상근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2-3명 혹은 4-5명 정도에 불과해 상담, 프로그램, 생활지도, 취사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쉼터의 현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시보호시설의 특성상, 길거리를 배회하는 가출청소년을 신속히 찾아내어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거리지도 혹은 현장파견(Outreach program)지도가 필요하고, 수시로 드나드는 유동인원에 대처하기 위해 상담인력 및 야간지도 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급기야는 소명의식을 저버린채 이직하는 등 인력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심리검사를 비롯하여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각종 상담활동, 집단심성훈련, 봉사활동, 취업교육 혹

은 영화감상, 체육활동, 미술활동을 비롯한 각종 문화활동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간 머물며, 매우 유동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 공간 부족 및 재원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형식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에 그치고 있다.

■ 서울YMCA 청소년쉼터

제도화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로서 가장 최초로 개소한 서울YMCA 청소년쉼터는 199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개소하였으며, 13세-18세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 진로교육, 시청각교육, 놀이견학, 또래상담자교육, 상담자원봉사자교육, 캠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기간은 약 1개월 정도이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두고 있고, 실장 1명과 상담원 1명 외에 사회복지사 2명이 쉼터 운영을 맡고 있다.

■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1996년 11월 1일 개소한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와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한국청소년부산연맹이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9세-24세의 여자청소년으로 부모로부터 방임·유기된 청소년,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의해 발견되어 부모에게 보내지기까지 임시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가 행해질 수 없어 장기시설로의 입소가 불가피한 청소년들이 장기시설로 가기 전에 중간처우의 단계로 보호가 의뢰된 청소년, 잦은 가출로 인한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으로 학부모나 학교에 의해 상담 및 교육이 의뢰된 청소년,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받은 청소년 등이다. 본 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은 물론 상담 및 교육·문화활동 등 보호와 치료의 기능을 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24시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위탁기관인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지원을 받고 있다.

■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

1998년 7월 1일 개소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와 대구광역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구 YMCA가 운영하고 있다. 10세-20세의 가출청소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아동, 상습가출로 의뢰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활동, 교육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협력활동 및 조사·연구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용기간은 1주-2개월 정도이며, 소장 1명과 운영부장 1명, 상담원 2명, 생활관리인 1명 등 총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와 함께 1998년 7월 1일 개소한 광주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와 광주광역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광주YWCA가 운영하고 있다. 만 9세-24세까지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0일-1개월간의 일시보호를 우선으로 하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상담활동과 교육활동 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쉼터운영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소식지를 발간하고 각종 세미나 및 캠페인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문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소장 1명과 주임상담원 1명, 상담원 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 7월-12월까지 6개월간 54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1997년 4월 9일 개소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와 인천광역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가 운영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부모로부터 방임·유기된 청소년,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받은 청소년, 비행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학교나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청소년, 지역신문이나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 오는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 등 만 13-18세까지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 및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1998년 한해 동안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2,014명이며, 이 중 가정 및 학교로 복귀한 청소년(280명)과 보호기관에 의뢰한 청소년(22명), 취업을 알선한 청소년(2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

■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1998년 6월 19일 개소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와 대전광역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성공회 대전교구 나눔의 집이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9-24세의 여자청소년으로 결손가정, 학교부적응, 비행문화(유흥업소 취업청소년, 음주·흡연 등 약물남용, 성문제, 폭력 등) 관련 청소년, 비행으로 인해 사법기관(보호관찰소, 검찰청, 경찰서)으로부터 처벌받거나 청소년범죄 예방기구(자녀안심 운동 협의회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된 청소년, 미진학, 미취업으로 인해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및 치료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전 보호관찰소로부터 수강명령처분을 받은 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40시간 수강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향후 일반적인 사업활동 외에 특성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출청소년의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 상습적 가출행동을 보이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업을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울산광역시 청소년쉼터

1999년 5월 31일 개소한 울산광역시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와 울산광역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예수성심전교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9-24세의 여자청소년으로 가출청소년, 부모로부터 방임·유기된 청소년,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받은 결손가정 청소년, 학교부적응, 비행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학교나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청소년, 지역신문이나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 오는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 및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수용가능 인원은 10명 정도이고 수녀 세사람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구로구 청소년쉼터

1998년 5월 개소한 구로구 청소년쉼터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고 있다. 12-20세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 서비스, 개별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활동과 성교육, 예법교실, 감수성훈련, 현장학습, 취미교실, 자치활동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기간은 1개월 정도이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이며, 소장과 부장, 직원 4명(총무, 사무원, 조리원, 경비), 교육지도과 4명, 상담실 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우리세상

구로구 청소년쉼터와 함께 1998년 5월 개소한 신림지역 청소년쉼터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이 운영하고 있다. 12-20세의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용기간은 1개월 정도이며 약 2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상담보호부, 교육문화부, 조사연구부에 소장, 실장, 보호담당 3명, 상담원 1명, 조사연구원 1명, 행정담당 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가출청소년보호활동(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생활서비스, 심성훈련, 지역봉사, 야외활동, 취미활동 등), 상담활동(가출청소년, 일반청소년, 부모, 가족 등 24시간 운영), 교육활동(지역청소년교육, 보호관찰 청소년교육, 직원교육, 자원봉사자교육 등), 문화활동(문화교실, 문화캠프, 자율적 문화공간 개방, 청소년정보 이용방 개방, 거리간이문화마당, 거리문화축제 등), 홍보·협력활동(거리상담, 안전지대설치,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관련기관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표 III-8> 가출청소년 수용·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현황

구분	명칭	설립일	성별	연령대	이용기간	수용인원	운영단체/ 지원단체	인력(종인원)
일 시 보 호 시설 (9)	서울YMCA 청소년쉼터	92. 10	여	13-18	1개월	10	서울YMCA/ 문화관광부	실장1, 상담원1, 사회복지사 2(4)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96. 11	여	9-24	2주~ 1개월	15	한국청소년연맹/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실장 1, 부장 1, 상담원 2, 생활지도사 1, 생활관리원 1 (6)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	98. 7	남 녀	10-20	1주~ 2개월	8	대구YMCA/ 문화관광부, 대구광역시	소장 1, 운영부 장 1, 상담원 2, 생활관 리인 1 (5)
	광주광역시 청소년쉼터	98. 7	여	9-24	10일~ 1개월	10	광주YWCA/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	소장 1, 주임상담원 1, 상담원 2 (4)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97. 4	남 녀	13-18	2주~ 3개월	15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문화관광부, 인천광역시	관장 1, 실장 1, 상담심 리사 1, 사회복지사 1, 생활지도교사 1 (5)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98. 6	여	9-24	2주~ 1개월	8	성공회 대전교구/ 문화관광부, 대전광역시	소장 1, 실장 1, 회임상담원 1, 상담원 4 (6)
	울산광역시 청소년쉼터	99. 5	여	9-24	2주~ 1개월	10	예수성심전교 수녀회/ 문화관광부, 울산광역시	수녀 3(3)
	구로지역 청소년쉼터	98. 5	여	12-20	1개월	30	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	소장 1, 부장 1, 교육지도자 4, 직원 4, 상담원 2 (10)
	신림지역 청소년쉼터	98. 5	남	12-20	1개월	20	대한성공회 나눔의집/서울시	소장 1, 실장 1, 교호담당 3, 상담원 1, 조사연구원 1, 행정담당 2 (9)

출처 : 현황조사 결과 (1999. 10월 현재), 주소 및 연락처는 부록참조

2) 비인가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은 보통 1개월~3개월까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
나 상황에 따라 2~3개월까지 연장하는 시설이 많으므로 6개월까지 수
용·보호하는 시설을 단기보호시설로 보고 있다. 1999년 10월 현재 파악된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국의 단기 보호시설은 총 15개소이며, 이 중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남구 청소년쉼터와 공릉복지관이
운전을 맡고 있는 노원구 청소년쉼터가 각 구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설은 카톨릭재단 등 순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

다. 살레시오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서울나자렛집이 88년 11월 개소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14개 쉼터는 모두 최근에 개소한 쉼터이며, 1999년 올해 문을 연 쉼터도 우리들쉼자리(서울), 모퉁이쉼터(부천), 우리청소년쉼자리(대전), 씨튼해바라기의집(서울) 및 희망의샘 쉼자리(안동) 등 5개소이다.

지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9개소, 경기(부천) 1개소, 경남지역(창원, 부산) 2개소, 경북지역(대구, 안동) 2개소 및 충남(대전)지역 1개소로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강남구청소년쉼터를 제외한 14개 시설이 모두 여자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자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명내외로 부터 15명 내외까지 수용하는 시설 등 다양하며, 일시보호시설과는 달리 수시로 들고나는 유동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용인원과 현인원의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다.

인력구성은 구청의 지원을 받아 7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는 강남구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쉼터는 수녀 2-3명 또는 사회복지사 2-3명, 혹은 실무진 1-2명에 취사를 담당하는 생활관리인 1명 등 최소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출청소년을 위한 생활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시보호시설처럼 단기간 머무는 유동 인원이 많아 산만함으로 인한 프로그램운영 상의 어려움은 덜 하다고 할 수 있고, 기간도 가출청소년 개개인에 따라 6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등 가출청소년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적 접근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겠으나, 공간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감각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고 못하고 있다.

현황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단기보호시설의 주요 특징 및 연혁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강남구 청소년쉼터

1998년 1월 21일 개소한 강남구 청소년쉼터는 강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정내의 학대와 폭력, 방임, 유기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 10세~18세의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락한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여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 상담, 교육, 집단활동, 취미·기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노원구 청소년쉼터

1998년 7월 개소한 노원구 청소년쉼터는 노원구청의 지원을 받아 평화복지재단 공릉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부모로부터 방임·유기된 청소년,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받은 청소년, 지역신문이나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 오는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 등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 및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 노량진 청소년쉼터

노량진 청소년쉼터는 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가 운영하는 결손가정 및 비행청소년의 자립을 돕기위한 중·장기시설 형태인 '나눔의집'사업의 기능을 분화한 시설로 1997년 6월 개소하였다.

인력구성은 사무국의 사회복지사 1명과 보육사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쉼터의 일만 전담하는 인력은 보육사 한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해바라기쉼자리

1998년 11월 11일 개소한 해바라기쉼자리는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소장 1명과 상담원 2명이 운영하고 있다. 이용기간은 2개월 정도이나 장기시설을 겸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출소녀 지도를 위한 방향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1차-의식주 해결, 2차-상담 및 인성교육, 3차-귀가 가출소녀의 사후지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폭력예방 및 각종 비행예방을 위해 용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찰 및 검찰과의 연계활동, 각종 홍보활동 및 길거리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쉼터에 기거하는 가출소녀와 길거리를 배회하는 가출청소년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1999년 8월에 실시한 “있는그대로를 사랑하는 청개구리들의 여행”이라는 야외캠프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 우리들쉼자리

1999년 4월 개소한 우리들쉼자리는 위로의성모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로 10대 가출소녀들이 2개월까지 머물수 있는 곳이다. 사회복지사 한명이 소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생활보조원 2명이 쉼터의 일을 전담하고 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에게 의뢰하고 있으며, 가출소녀들의 취미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종이접기와 십자수 놓기, 견학 등의 문화활동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외국어 지도 등 교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모퉁이쉼터

1999년 8월에 개소한 모퉁이 쉼터는 성심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비교적 넓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력조직도 책임자 1명, 사회복지사 1-2명, 생활관리인 1명 및 쉼터관리인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검정고시 준비, 취업 기술습득 및 취업알선, 필요시 지역내에 위치한 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 III-9> 가출청소년 수용·보호를 위한 단기보호시설 현황

구분	명칭	설립일	성별	연령대	이용기간	수용인원	운영단체/ 지원단체	인력(종업원)	비고
단 기 보 호 소 (15)	살레시오 노랑진쉼터	97. 6	여	10-20	3개월	5	살레시오수녀회/ -	상담원 1, 생활관리원 1 (2)	
	해바라기 쉼자리	98. 11	여	13-19	2개월	10	천주교마산교구/ -	소장 1, 상담원 2 (3)	장기시설 견비
	우리들쉼자리	99. 4	여	10-19	2개월	10	위로의성모수녀회/ -	소장 (사회복지사) 1, 생활보조원 2 (3)	
	모퉁이쉼터	99. 8	여	12-19	3개월	10~ 20	성심수녀회/ -	책임자 1, 사회복지사 1, 생활관리 1, 컴퓨터관리 1 (4)	
	수지의집	98. 11	여	7-20	2개월	10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	시설장 1, 상담원 1, 생 활관리원 1 (3)	
	우리청소년 쉼자리	99. 6	여	13-20	1개월 ~ 2개월	10	동정성모수도회/ -	소장 1, 상담원 2명 (3)	
	강남구 청소년쉼터	98. 1	남	10-18	2주~ 6개월	15	태화기독교사회 복지관/ 강남구청 지원	관장 1, 과장 1, 사회복지사 2, 사무원 1, 생활관리원 2 (7)	
	노원구 청소년쉼터	98. 7	여	9-24	1개월 ~ 6개월	6	평화복지재단 공릉복지관 노원구청지원	관장 1, 중간관리자 1, 실무자 2 (4)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98. 1	여	10-24	2주~ 6개월	15	함께가는 감리교여성회	관장 1, 사회복지사 2, 생활관리원 2 (5)	구로/ 성남
	서울 나자렛집	88. 11	여	13-18	6개월	10	살레시오수녀회	위원장 1, 사회복지사 및 상담원1, 생활관리원 1 (3)	
	친구살이 쉼자리	98. 9	여	13-18	1개월 ~ 6개월	4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수녀 2 (2)	
	씨튼 해바라 기의 집	99. 3	여	12-20	2주~ 6개월	10	사랑의 씨튼 수녀회	책임자 1, 상담원 1, 사 무원 1, 위사원 1, 야간 근무자 1 (5)	
	성심의 어머니집	96. 10	여	14-25	2주~ 6개월	6	예수성심전교 수녀회	실무책임 1, 생활관리 1 (2)	대상: 가정 및 비혼모
	희망의샘 쉼자리	99. 9	여	10-19	1개월 ~ 2개월	7	안동교구청	수녀3명	
	좋은친구 쉼자리	98. 10	여	10-19	1개월 ~ 6개월	7	성베네딕도 수녀회	수녀2명	

출처 : 현황조사 결과 (1999. 10월 현재), 주소 및 연락처는 부록참조

3) 비인가 중장기 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은 보통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본인이 원할 경우 자립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총 24개 중장기 시설 가운데 무지개뜨는샘자리가 유일하게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23개 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장기시설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하여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학대, 방임 및 유기되고 있는 청소년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거나 결손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속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중단된 학교교육을 지속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홈 형태의 시설로 마산한울타리, 통영한울타리, 진주한울타리, 살레시오수녀회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는 나자렛집(수원, 대전, 장성, 광주, 창원 소재), 하늘바라기집, 고척동 만남의 집, 아네스의집, 테레사의 집, 착한목자의 집, 은총의 집 등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이곳은 이미 비행 및 가출을 경험했으나 새로운 생활을 꾸려 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청소년들을 의뢰 받는 경우도 있다. 둘째, 일시 및 단기시설에서의 적응기간을 거쳐 어느 정도 자아 통제가 가능하나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다시 비행의 세계로 빠져들 소지가 있는 가출소녀, 혹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결손가정의 가출소녀를 의뢰받아 학교교육, 직업훈련 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중장기 시설로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 다비다의 집, 백합누리, 빛누리집, 무지개뜨는샘자리, 해오름쉼터 등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가정해제나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의뢰받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남자 가출청소년 및 결손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문쉼터, 소년예수의 집과 윤락의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막달레나의 집이 있다. 또한 직업보도시설로서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남자청소년 대

상의 돈보스코청소년센터와 여자청소년 대상의 마자렐로센타가 있다.

이러한 중장기시설의 문제점은 가출 및 비행전력이 없는 결손가정의 청소년들과 이미 여러 유형의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할 경우, 성향의 차이로 인한 서로에 대한 적응문제 및 비행의 전이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진들은 이미 여러 차례의 각종 비행 전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통제력이 약한 가출소녀들이 입소할 경우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입소의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가출소녀의 중장기 시설 입소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중장기시설은 한번 입소하면 자립시 까지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동인원이 적고, 이로인해 시설이 수용가능한 인원을 항상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마땅히 의뢰할 만한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중장기 보호시설의 인력구성은 2-3명 정도의 실무진이 생활지도 및 전체의 운영을 맡아 하고 있으므로 15-2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부족한 인력이라 할 수 있으나 장기시설일 경우, 어느 정도 적응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므로 별도의 통제가 필요 없고, 생활의 규율을 스스로 잘 지켜나가므로, 일시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겪는 어려움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장기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는 그룹홈 형태의 시설로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고,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립해 가는 과정이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은 일시보호나 단기보호시설에 비해 적다. 그러나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며 받은 심신의 고통을 치유하고 자아상실감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적 치유 및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문화·취미활동 등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몇몇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III-10> 그룹홈 형태의 중·장기보호시설 현황

구분	명칭	설립일	성별	연령대	이용기간	수용인원	운영단체	인력(총인원)	비고
중·장기보호(24)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	95. 5	여	14-19	6개월 이상	15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사회복지사 3, 생활지도 2 (5)	
	수원 나자렛집	98. 12	여	8-13	자립시까지	15	살레시오수녀회	원장 1, 상담원 1, 생활관리원 1 (3)	결손가정
	대전 나자렛집	98. 5	남	8-18	"	20	"	원장 1, 상담원 1, 생활관리원 1 (3)	"
	강성 나자렛집	97. 6	여	8-13	"	7	"	원장 1, 수녀 1, 생활관리원 1 (3)	"
	광주 나자렛집	98. 11	여	13-18	"	18	"	원장 1, 상담원 1, 생활관리원 1 (3)	"
	창원 죄물의집	99. 4	여	13-18	"	5	"	원장 1, 상담원 1, 생활관리원 1 (3)	"
	마산 한울타리	94. 1	여	10-19	"	7	마산교구회	수녀 2명	결손가정 (남·중·고·대)
	봉영 한울타리	96. 1	여	10-19	"	6	"	수녀 2명	결손가정
	전주 한울타리	98. 11	여	10-19	"	8	"	수녀 2명	결손가정
	연립문쉼터	94. 11	남	10-19	"	20	연립문사회복지센터	대표 1, 상담간사 1, 생활지도사 5 (10)	서훈시 지원
	다비다의 집	96. 1	여	10-19	"	12	"	대표 1, 상담간사 1, 생활지도사 5 (10)	
	백합누리	99. 3	여	10-20	"	10	샬트로성바오로수녀원 대구관구	시설장 1 (수녀), 지도교사 1 (2)	
	하늘바라기 집	94. 1	남녀		"	10	마리아프란치스코 수녀회		고아 및 결손가정
	빛누리집	95. 9	여	6-18	가정복지, 자립	10	그리스도의 성혈홍충 수녀회	책임자 1, 생활지도사 1 (2)	
	두지개뜨는 청소년 쉼자리	97. 6	여	12-20	6개월 ~ 1년	20	카톨릭사회복지법인 범숙/창원시지원	관장 1, 상담원 2 (3)	
	고척동 만남의집	91. 6	여	6-18	자립시까지	15	성베네딕도 수녀회	수녀 4 (4)	결손가정
	효주 아네스의집	86. 5	여	14-20	"	10	성요셉에덕수녀회	원장 1, 자원봉사자 1 (2)	"
	테레사의 집	77. 9	여	4-13	"	14	성요셉에덕수녀회	수도자 3 (3)	"
	착한 목자의 집	96. 12	여	16-19	1년 ~ 2년	7	착한목자 수녀회	전담수녀 2 (2)	"
	은총의 집	87. 11	여	11-20	자립시까지	10	평신도공동체	실무자 2 (2)	"
	소년예수의 집	91. 7	남	5-19	"	15	샬트로성바오로 수도회	수녀 3 (3)	"
	막달레나의 집	85. 7	여	20세 이상	자립시까지	10	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	수녀 1, 산무간사 1, 생활관리원 1 (3)	
	해오름쉼터		여	9-24	"	5	안산청소년 운동연합모임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65.5	남	13-24	"	40	살레시오 수녀회		직업 전문 자원 생활 관 병행

출처 : 현황조사 결과 (1999. 10월 현재), 주소 및 연락처는 부록참조

3.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가출청소년은 우범 또는 비행청소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호와 처리문제는 경찰의 책임하에 있으나 경찰에 의한 가출청소년의 관리는 가출을 가족이나 사회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다루므로 가족상담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일괄적으로 청소년들을 귀가시켜, 재가출이 빈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출은 유흥업소 및 율락업소 등의 취업으로 이어져 장기적·영구적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가출의 장기화는 학교중퇴, 비행, 범죄 등을 유발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처음 가출했을 때, 조기에 개입하여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상담을 통해 조기귀가를 유도함으로써 가출로부터 파생되는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92년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쉼터가 제도화된 이래 지금까지 7개의 쉼터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개소되었으며, 2001년까지 12개소로 확대될 방침이다. 그 외 순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수용·보호시설이 40여개소 있으나 인력 및 재정난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가출동기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불화, 학대, 학교부적응, 또래집단의 유인 등 가출이유와 가출횟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 가출유형과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가출유형별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수용·보호시설은 시설규모나 인력, 재정면에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

의 유형에 따라 각자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선 각종 수용·보호시설과 지역사회, 학교, 가정,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경찰 등을 연계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연계망의 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비인가 시설로 청소년을 수용·보호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시설의 법인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에 앞서 법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시설운영 총괄을 주도할 주무부처(문화관광부 혹은 보건복지부)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IV. 외국의 가출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 사례

본 장에서는 유럽(네덜란드 및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일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과 미국은 가출청소년을 보는 시각과 개념 정의가 다르고, 가출의 유형 및 심각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방법도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이 거대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유럽의 경우는 시설에서의 수용·보호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가출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미시적 차원의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 소개되는 유럽과 미국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의 사례도 양 대륙의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1. 유럽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

1) 네덜란드의 인스텝 프로젝트 (INSTAP-Projekt)

(1) 개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네덜란드의 민간단체에 의해 시도된 인스텝 프로젝트는 가출청소년의 가족 혹은 친척 등 직접적 인적자원과 가출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사회복지사, 사회교육전문가, 경찰, 법률가 및 청소년 관련 전문집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고안해 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각 분야의 가출청소년관련 전문가

(청소년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 경찰, 법률가, 교사, 의료계 종사자, 직업 관련 기관 종사자 등) 20여명 정도가 팀을 구성, 가출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네트워크(Problem Solving Network)”가 형성되며, 청소년 개개인에게 각자의 문제의 유형이나 심각성의 정도에 따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Permien 외, 1998:364-369).

본 사업은 비행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업방식으로 네덜란드에서 80년대 말 시작된 이래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2) 사업 수행 과정

인스텝은 청소년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네덜란드의 민간단체로서, 가출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인스텝은 4-5명이 T-팀이라 불리우는 소그룹을 이루어 함께 일하는데, 팀원은 교육사회학 전공자 뿐 아니라 교사, 경찰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력구성을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적 견해가 수렴될 수 있고, 많은 관련 기관과의 접촉 및 협력체제 구축이 용이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팀의 목표집단은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가출청소년이다. 그들은 대부분 약물을 복용하며, 여러 가지 비행을 경험했고, 적어도 3개월 이상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닌 청소년들이다.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T-팀은 다음 4단계의 작업을 수행한다.

① 1 단계 : 가출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T-팀은 먼저 가출청소년이 접근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예를 들어 청소년복지 및 사회사업 관련 기관, 경찰, 법조계, 학교, 보건소 및 병원 등 건강 관련 기관, 직업소개소 등에 홍보활동을 개시한다. 이러한 각종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가출청소년과 접촉이 있거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일부 전문인력에게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특별 책임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약 20

명 정도의 전문가가 구성되면 가출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네트워크(Problem Solving Network)”를 형성하게 된다. 이 전문가 집단은 세미나의 형태로 혹은 사례연구 작업시 T-팀과 연계되어 가출청소년 개개인의 상황과 정도에 맞는 도움을 제공한다. 각 도시별로 구성된 문제해결네트워크는 두 달마다 한번씩 모여 건강, 직업, 교육, 주거 등 분야별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② 2단계 : 개별작업-가출청소년과의 접촉 및 동기유발

T-팀원들은 청소년청 혹은 사법관으로부터 가출 및 부랑청소년으로 판정된 청소년들을 최대 12주간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에 대한 강한 동기의식을 갖도록 유도한다. 각 팀원들의 목적은 가출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길거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일정한 주거 혹은 직업 등 사회와 연결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가출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계속되는 위기감’이 동기유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길거리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통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포착하려 하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원들은 절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금의 생활을 조속히 청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길거리 생활 이외의 곳에서 접하게 된 체험에 더 만족하여 길거리 생활에 대한 의미와 미련을 더 이상 찾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위기개입은 외부에서 이루어지지만 매우 집약적이다. 가출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해 주고, 그들의 경제상태를 법원에 알려 교육을 받게 하고 일자리를 얻도록 추천한다. T-팀의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사의 한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들은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청소년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을 믿어도 되는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

해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출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 및 사회복지 등과 관련한 정부 관청과 더 이상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T-팀의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관청 및 관련 기관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표현한다. 또한 그들은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보다는 긍정적 측면과 장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③ 3단계 : 개개인의 사회적·인적 자원 분석 및 접촉

T-지도자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단계별로 모형을 그리는 작업과 미래의 희망에 대한 작업을 시도한다. 이러한 모형제시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사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람들 및 사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과거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개인이 출생 이후 어떤 신체적·정신적인 문제상황을 겪었는지, 아동기의 주변 환경적 요소는 어떠했으며, 접촉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알아본다.

현재분석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이루어진다: 보통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교육, 직업, 금전, 주거, 사회성, 사회적 지지망 중 어느 부분이 더 보충되어야 하는가? 범죄행위와의 개입은 없으며, 체류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적·신체적 결합은 없는가? 끝으로 미래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나 목표하고 있는 바 등을 구체적으로 전개시킨다.

청소년 개개인의 과거와 현재분석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 단계에서 개개인의 문제해결과 희망사항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가족이나 친척, 혹은 학교나 청소년복지사업관련 담당자 등 이전에 긍정적인 대리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개입시킨다. 청소년 자신도 T-지도자와 함께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다시 재결합을 시도하며, 이전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관계유지

등에 대해 함께 결정한다. T-지도자들은 이러한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도움이 될 만한 접촉인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사회지지망은 청소년의 현재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물들로까지 확장하여 형성된다. 청소년들이 가출 후 만나게 되어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접촉인물을 오히려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강한 저항심을 유발하지 않고, 새로운 생활로의 전환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회소속감이 형성되거나 혹은 이전의 관계를 다시 찾는 경우, 대부분 그 이전의 생활은 청산하였고, 이전 생활패턴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T-팀원들은 보고하고 있다.

3단계 과정에서 가출청소년과 T-지도자가 함께 세웠던 장·단기 목표, 행동계획 및 모든 수행과제 등은 일단락 된다. 보편적으로 이 단계에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이나 직업의 기회를 가지며, 사회적 소속감이 형성된다.

④ 4단계 : 미래 행동계획의 실현

가출청소년과의 4주 혹은 8주간에 걸친 3단계의 집약적 개별작업이 끝나면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실현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해결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지원력으로 기능하며, T-지도자들은 점차적으로 퇴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T-지도자와의 개별작업에서 청소년들에게 제시되었던 계획들, 예를 들어 주거문제 해결 및 구직 등을 실행에 옮기도록 도와준다. 또한 전문가들은 T-지도자들의 집약적 개별지도를 이어받아 지도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제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관찰한다. 즉, 그들은 청소년들이 또 다시 거리를 헤매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다시 부모의 집에서 기거하기를 원하고, 부모 중 한사람 만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가정으로의 성공적인 재통합

과 새로운 갈등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청소년의 가정복귀에는 집약적인 가족지원이 이루어진다.

2) 독일의 아이·에스·이 프로젝트 (ISE-Projekt)

(1) 새로운 청소년복지 정책 도입의 배경

독일의 대중매체는 청소년 범죄 및 가출청소년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청소년비행 관련법의 강화, 수용시설로의 송치 등 정책적인 제도의 강화가 공론화 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 교육학자 및 사회사업가 등은 제도의 강화가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대책에의 자발적 참여와 참여한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이 많을수록 장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복지의 교육적 입장은 학문적 연구와 현장분야에서도 검증이 되었으며, 90년 초반부터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법」에 반영되어졌다.

한편,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독일에서 가출청소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Permie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Permien 외, 1998: 350-354).

첫째, 청소년청을 비롯한 정부 관청의 관계자와 가출청소년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관성이나 통일성이 전혀 없는 각기 다른 형태의 단편적인 대책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성 없이 나열되는 대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길거리 생활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장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청소년청 관계자들이 업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한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지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담당자에게로의 인계가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수혜자는 정부 관계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항상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감을 갖고 임하지 않는 가

운데, 수혜자는 서비스 제공 담당자를 따라 여기 저기로 이동할 뿐이다.

둘째, 청소년복지 사업의 잘못된 개입이 오히려 청소년의 가출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가정이나 낯선 시설로 억지로 인계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재가출과 각종 위험상황을 유발하게 된다.

셋째, 정부의 청소년복지 정책이 가출청소년의 사회복지 및 재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집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은 욕구에서 혹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길거리 생활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을 청소년층에게 보다 넓게 개방하여 실제적인 사회로의 재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의 문제제기는 독일 청소년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부여하게 된다. 기존의 독일 청소년복지의 목적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인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청소년복지 정책의 최대 목표는 인간이 속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갖가지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세분화하고 특별한 형태의 지원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을 최대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향전환으로 인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의 접근방식도 새롭게 달라지게 되었는데, 기존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하여 어려운 상황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작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행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업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네덜란드의 인스탐(INSTAP)⁴⁾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생활세계집약적 접근방식을 시도하는 본 사업은 단기간(3개월)이지만 집중적 개입을 하는 독일의 가족지원사업

4) 독일에서는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INSTAP 방식을 “외래 집약적 지도”(ambulante, intensive Begleitung, AIB)로 해석하여 AIE 지도방법이라 일컫는다.

과 유사한 형태를 띄며, 소그룹(4-5 명의 담당자)이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을 보완하거나 연계 체계화하는 작업을 주도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한 지원책을 펼 수 있다. 본 사업은 네덜란드 청소년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지방 도시의 지원을 받아 도입되었으며, 정부의 요청으로 검증과정을 거쳐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2) 아이·에스·이 지도방법(ISE-Methode)의 의의

네덜란드의 인스텝 프로젝트와 유사한 것으로 독일의 아이·에스·이 프로젝트(ISE-Projekt)⁵⁾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이·에스·이」 사업은 가출청소년과 지도자가 개별적인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지점을 함께 설정하며 그에 따른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아이·에스·이」 지도자들도 청소년들 편에 서서 이해하려 노력하며,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기관 및 사람들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Permien 외, 1998: 369-371).

일반적으로 「아이·에스·이」 지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지도자가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하는, 소위 “대리적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에게는 의존성이 새롭게 생겨날 소지가 있다. 가능하다면 광범위하게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인적자원을 찾는다면 청소년의 아주 어린시절의 근원을 추적해가는 측면은 「아이·에스·이」 사업 목적이 아니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에스·이」는 지도자가 가출청소년과 개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측면에서는 INSTAP 프로젝트와 유사하지만,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팀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5) ISE는 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의 약자로 사회복지 대상자를 “집약적으로 사회교육적 접근방식에 따라 개별 지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INSTAP-프로젝트와 차별화된다. 즉,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들이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결여되어 있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전문가 집단이 소속된 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했던 INSTAP-프로젝트와는 달리, 가출청소년을 돕는데 있어 관청 및 관련 기관간의 의도되지 않은 분열이 생겨날 수도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집약적인 지도가 가능하여 단기간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고, 청소년 자신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잘못된 연대의식을 바로잡고,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여 T-지도자들에게의 의존성이 생겨나지 않았던 INSTAP-프로젝트와는 달리, ISE-프로젝트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지도 방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출청소년이 자칫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 독립된 인격체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 미국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

1) 커브넌트하우스(Covenant house)⁶⁾

커브넌트하우스⁷⁾는 부랑아 및 가출청소년을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기관이다. 본 기관의 사업은 1969년 성직자 Bruce Ritter가 맨하탄 동부에 있는 그의 작은 아파트에 6명의 가

6) 커브넌트하우스 프로젝트는 본 연구자가 「외국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청소년보호위원회, 1998:151-160)에 편역하여 수록한 부분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7) covenant는 신과 인간 사이의 성약(聖約)을 뜻하는 단어로 *the Land of the Covenant*는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의미한다.

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규모 보호시설로부터 출발한 커브넌트하우스는 현재 최대규모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접근 서비스, 상담, 입소에서부터 치료, 직업훈련,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기관의 사업은 부랑아 및 가출청소년을 단순히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외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치료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며, 각종 자립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돕는 재활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1) 발전과정

1972년 정식으로 조직을 갖추고 출발한 커브넌트하우스는 1977년 뉴욕시에 처음으로 위기센터를 설립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점차 성장하였다. 처음 10년간은 뉴욕 시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였으며, 그 다음 10년간은 6개 국가의 17개 도시로 확장되었다.

80년대에는 곤경에 처한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프로그램도 점차 복잡성과 다양성을 띄며 성장해 갔다. 1986년에 「Right of Passage(ROP)」로 알려진 전통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ROP에서는 교육, 고용기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 안에서 각각의 청소년들과 일대일로 작업한다.

현장접근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은 곳곳의 거리아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들이 위기센터에 들어와 생활하도록 유도한다.

1980년대부터 미혼모와 그 아기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몇몇 지역에서 시작되어, 편모로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 여성들을 돕고 있다.

위기전화(Nine Line:1-800-999-9999)서비스는 1987년 10월에 시작된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로서 조언, 상담 혹은 근처로의 이송이 필요한 아

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다. 이 서비스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90년대 커브넌트하우스는 국경을 초월하여 지역단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센터의 목표는 위기쉼터와 자립훈련(Right of Passage) 과정을 마치고, 본 기관 직원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수지도와 사후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동 센터는 청소년들이 집을 뛰쳐나오기 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서비스센터는 처음으로 토론토(1988)에 설립되었고, 이어서 미국의 여러 도시에 세워졌다.

현 원장인 Mary Rose 수녀의 지도력 하에, 문제 위험이 있는 아이들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내 각지에 지역사회서비스센터가 확대되었다.

본 사업은 「열린 수용(Open Intake)」에서 그 사업효과가 검증되는데, 그곳을 방문하는 아동 및 10대들의 어느 누구도 첫 방문에서 외면 당하는 경우가 없으며, 질문에 대한 아무런 대답 없이도 아이들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이다.

1997년에는 48,000 명의 청소년들에게 거주 및 비거주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약 13,000 명의 청소년들이 커브넌트하우스 쉼터(Covenant House Crisis Shelter)와 자립훈련(Right of Pass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14,000명의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서비스센터 혹은 방과후 지도 및 예방 서비스 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그 외 21,000여명의 거리 청소년들은 현장지원 지도자로부터 거리에서 도움을 받았다.

커브넌트하우스의 성장은 거의 극적이라 할 수 있다. 설립 25주년체인 1997년의 총예산은 8,300만 달러(약 1,100억원; 1달러당 1,320원 기준)였으며, 이 액수의 약 85%가 기부금에 의한 것이다.

(2) 제공되는 프로그램

① 현장접근 서비스(Outreach Service)

주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본 기관의 현장과전지도자들은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대형차를 이용하거나 혹은 걸어서 아이들을 찾아 거리를 나선다. 부랑아 및 가출청소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희망의 말을 전하면서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는 가두에서, 혹은 차안에서 대화를 나눈다. 아이들은 대부분 어른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으므로 차에 탑승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강요하지 않는다. 배회 첫날 차에 탑승하여 쉼터에 함께 오는 청소년들도 있다. 오는 첫날 상담원과 대화를 시작해 그 다음날 지역사회서비스센터의 일원이 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한해동안 거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청소년의 수는 21,000 명 정도에 달한다.

② 위기전화(Nine Line)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인라인의 훈련을 받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상담을 통해 그들을 돕고 있다. 아이들의 주된 상담내용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의 다툼, 학교문제, 건강, 파트너 문제 및 약물문제 등이다.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상담을 받기도 한다.

나인라인의 상담원들은 주로 가출을 중재하여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아이들이 가출을 했을 경우 그들을 근처 쉼터의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위기전화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학교, 교회,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커브넛트하우스는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가능한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협력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위기전화는 홍보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 부분, 라디오, 신문 및 지하철 등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며, 도시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에 배포된 포스터는 문제아들로 하여금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다리에서의 첫걸음(a first step on a bridge to a better life)」을 취하도록 촉구한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나인라인 전화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열려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위기쉼터(Crisis Center)

커브넌트하우스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대로부터 도주한 아이들이거나 가족이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버려진 아이들, 거리에서 표류하며 자포자기와 절망에 빠진 아이들은 언제든지 이곳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24시간, 일년 365일 중 언제든지 그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경우 이 쉼터에 올 수 있다. 이곳 쉼터에서는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여 의학적인 치료가 요구될 경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위기쉼터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쉼터와 마찬가지로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가정 혹은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약물치료, 정신치료 및 질병치료 등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주선했고, 자립을 원할 경우 직업훈련교육이나 일자리 주선 등을 통해 돕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이 낮을 경우 장기보호시설에 위탁보호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입양을 주선하기도 한다. 또한 임신중이거나 혹은 이미 어린 아기가 있는 젊은 여성들은 본 기관의 모자특별센타에 체류를 의뢰한다.

④ 자립훈련(Right of Passage)

대다수의 가출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간다. 그러나 독립된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수단을 거리에서 가져올 수는 없다. 커브넌트하우스의 자립훈련(Rights of Passage) 프로그램은 거주지가 필요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18세~21세의 청소년을 위한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뉴우저지, 뉴욕, 텍사스 및 워싱턴의 커브넛트하우스에서는 ROP(Rights of Passage)를 통해 가능성을 지닌 적극적인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을 증진시키고, 미래의 직업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ROP는 커브넛트하우스 시설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적 욕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합리적이고 자립심이 강한 청소년들은 자립하기 위해 3~4개월 동안의 지원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신감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18개월 혹은 그 이상을 머물기도 한다. ROP는 청소년들이 직업을 찾고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진정한 자립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커브넛트하우스는 본 기관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처음에는 보통의 직업을 위해 훈련시킨 후, 경험을 토대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청소년들은 네트워크 형성 방법, 체제와의 협상법, 현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직업세계에 잘 적응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중요한 것은 직업은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ROP의 생활방식내에서 거주자들은 돈을 짜임새 있게 쓰는 방법,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아파트를 구하고 장을 보고 요리하며 세탁하는 방법 등 그들이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아이들은 대부분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성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갖지 못했으므로 ROP 지도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ROP 거주자에게는 한사람의 지도자 혹은 자원봉사자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아이들과 일대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들은 대부분 그들을 돌봐주고 관심을 갖는 성인이 있음을 그들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다. ROP를 떠난 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몇 년동안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ROP 프로그램의 성공 척도라 할 수 있다.

ROP의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많은 아이들은 in-house 훈련 프로그램, 예를 들어 컴퓨터, 사무기술, 안전, 정비, 간호사, 교사 보조 및 요리법 등에 참가하고 있다. 요리법 프로그램에서는 1997년 뉴욕의 Greenwich Village에 있는 조그마한 레스토랑 Ezekial 카페 사업에 착수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식준비로부터 주문에 이르기까지 고객을 맞이하는 모든 것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직업훈련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ROP이상으로 확장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⑤ 의료서비스

모든 거주자들은 이곳에 입소한 즉시 종합 신체검사를 받는다. 커브넌트하우스 클리닉에 있는 의사, 간호사, 보조원 및 다른 모든 사람들은 10대들의 의학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무엇을 질문해야 하고, 무엇을 검진해야 하며, 아이들과 그들 건강에 대해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클리닉은 전형적인 의사집무실과 같이 진단과 처방을 위한 모든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임신한 미혼모를 위해 태아검진도 제공하며, 태어날 아기는 면역성 주사를 포함한 모든 소아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병을 앓고 있거나 주의를 요하는 만성 질병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 클리닉과 연결된 외부의 전문가와 지역 병원에 진단서가 첨부되어 인계된다. 커브넌트하우스 클리닉은 지역사회 의 유아, 아동 및 10대 청소년 -21세 미만이면 누구나-에게 전국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⑥ 약물치료 서비스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위험이 높다. 이 경우 자기자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길거리 생활의 비참함에

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약물을 선택하기도 한다.

일부 커브넛트하우스에서는 약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중부 지역과 멕시코의 부랑아들은 배고픔을 잊고 거리에서 잠들기 위해 본드를 흡입한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서는 본드를 흡입하는 7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을 약물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커브넛트하우스의 약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10대들인데 그들의 약물 선택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미 잘 알려진바 데로, 약물남용은 신체적 후유증 이외에 정신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커브넛트하우스의 전문상담원들은 약물과 알코올로 모든 것을 잊고 환각의 상태에 빠지고 싶은 욕구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약물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욕구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을 때, 직업훈련과 생활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⑥ 모자 서비스(Mother/Child)

커브넛트하우스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최상의 여건에서도 어려운 책임감이 따르는 것인데 직업, 경제력, 생각 등 부모가 되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10대의 미혼모들에게는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10대 미혼모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고, 가정으로부터 버려져 거리에서 절망적으로 살아 왔으므로,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엄마가 되기 위해 꼭 배워야 할 역할모델을 제시해 주기 위해 젊은 미혼모들과 집중적으로 작업한다. 편안하게 머무를 장소를 제공하여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연결시켜주며, 필요할 경우 학교를 마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어머니와 아기에게 생겨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 형성은 바로 본 기관 종사자들의 특별한 기쁨이다.

⑦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센터는 본 기관의 상담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조건 미흡으로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센터는 가정이 파멸하기 전에 가정생활이 안정되도록 조정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며, 가난, 불충분한 교육, 10대 임신, 실업,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 희망이 없는 미래 등 곤경에 처한 10대들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청소년의 자립과 진로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 지역사회서비스센터의 중점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개별지도를 포함한 방과후 교육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력서를 쓰는 방법, 인터뷰 기술 및 옷 입는 방법 등에 관한 워크숍은 직업을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 10대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은 부모를 위한 반에 참여하여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방과후 활동이 제공됨으로써 가출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인근지역 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한 현장접근지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단체, 관청 및 교회와 상호지원 연결망을 형성하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최대한의 복지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아이들을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⑧ 대중을 위한 홍보사업

커브넌트하우스는 부랑아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처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모든 젊은이를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곳에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청소년들의 사연을 담은 책을 주기적으로 출판하여 널리 보급시키고 있다. 이러한 출판사업의 목

적은 가출청소년에 대해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을 없애고, 이 사회의 열악한 부분에 대한 공공부분 지원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커브넛트하우스의 출판물은 언제 가출할지도 모를 아이들과 부모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충고와, 가정내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출을 고려하는 아이들에게 대안적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2) 어텐션 홈(Attention home)⁸⁾

(1) 발전과정

Attention home은 학대, 부랑인, 비행에 노출된 성인들에게 상담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1966년 Boulder에 설립되었다. 당시 「사랑의 집」에서는 학대, 방임 및 유기, 만성적 가출로 인한 부랑아동, 극도의 가족갈등 관계에 처한 아동, 비행에 노출된 아동, 독립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84년에 Attention home은 단순한 주거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가출 및 부랑 아동에 대한 원조에까지 확장되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게 되었다. 그 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강화,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대규모의 기관으로 발전되었으며, 지역사회내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은 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985년에는 Boulder시의 외곽도시에까지 서비스 제공을 확장시켰다. 모든 서비스의 62% 정도가 Boulder시의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수많은 주변 Colorado도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Attention Home은 현장교육시설로서의 인가를 획득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 어텐션 홈은 본 연구자가 「외국의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청소년보호위원회, 1998:161~167)에 편역하여 수록한 부분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2) 수행 사업

Attention home은 우리나라의 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가출 및 부랑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보호, 상담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갈등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현장파견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근로기술 및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장학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서비스 대상자를 지역사회내의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복귀시키고, 건전한 성인으로의 육성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Attention home은 콜로라도주 정부에 의해 인가된 시설로 Boulder에서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서비스, 단기간 주거 서비스가 두 달동안 브로드웨이 아동 쉼터(Broadway Youth Shelter)에서 제공되고 있고, 장기간의 주거서비스는 Pine Street에 위치한 Holmes-Hargadine과 Bridge에서 제공되고 있다. Holmes-Hargadine은 여성 전용 주거공간이며, Bridge는 남성을 위한 주거공간이다. 그 외 인가된 현장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브로드웨이 아동쉼터 (Broadway Youth Shelter)

브로드웨이 아동쉼터는 남녀 모두 이용 가능한 개방된 기관으로서, 12세에서 18세의 가출 및 부랑청소년, 가정으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및 청소년, 약물남용 및 비행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60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Attention Home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브로드웨이 아동쉼터는 체계적 점수와 단계별 시스템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점수는 하루 일과 중 적절한 행동 및 책임 수행에 대한 정도에 의해 측정되고, 일정 점수의 취득 이후 상위단계로 올라가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단계들은 부차적인 책임과 특권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점수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들은 문제해결 교육 및 각 점수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되며, 벌칙 점수가 상환된 이후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 모든 거주자들은 고용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며, 이에 따라 인가된 ‘현장학교 프로그램(On-site School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② Holmes-Hargadin home

Pine Street에 위치한 Holmes- Hargadine(Pine St.) Home은 12-18세의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Attention home의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체계적 점수와 단계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처음 입소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시작 단계가 적용된다. 시작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매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일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일상 잡일을 수행하며, 매일 아침 각자의 침실을 청소하는 것이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은 더 많은 특권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기대도 점점 높아진다. 시작 단계의 종료 후,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의무와 행동에 관련된 점수를 받기 시작한다. 점수가 올라가면 높은 단계로 이동하고, 반대로 부정적 점수를 받게되면 더 낮은 단계로 떨어지게 된다.

프로그램 의무는 침실청소, 시설청소, 기술습득, 학교와 작업장 출석, 개인위생 등이다. 점수는 학교와 작업장에서의 행동, 태도, 책임감, 관심 등 프로그램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에 따라 매겨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각각의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계획은 단계별 방식으로 개발되고 이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최대 목적은 소외와 이탈을 야기시키는 가족 문제의 해결에 있다.

③ Bridge, Attention Home

이 시설은 남성청소년을 위한 장기 주거보호시설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사회의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의사결정,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본 시설에서의 단체생활로 청소년들은 타인과 협동적이고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지도자들은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Holmes-Hargadin home과 마찬가지로 체계적 점수와 단계별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④ 현장학교 프로그램(On-Site School Programe)

Attention home은 1985년 이후 콜로라도 교육성과 Boulder 교육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 ‘현장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장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교를 무단 결석한 경우이거나, 학습 무능력자, 혹은 학습환경을 훼손시키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퇴학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장학교에서 일반학교로의 전학을 촉진시키는 데 있으며,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수행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재정관리, 양육, 보건, 이력서 준비, 구직 기술, 주택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3)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1) 가출 및 청소년 서비스 전국 네트워크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

이 네트워크는 가출 및 집없는 청소년과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 단체로서 전국의 약 900여 기관을 대표하여 각종 정보와 교육자료, 모델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며, 직업훈련과 기술지원을 하고,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일 등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미국청소년법(Young Americans Act)의 발전과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1992년에는 ‘가출 및 집없는 청소년관련법’을 제공인하게 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자금을 후원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하여 유지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김향초, 1998:234-237). 아울러 주 단위 및 지역단위의 기관들간에 좀더 공식적이고 연합된 연계망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며, 일반대중에서의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2) 안전보호소 프로젝트 (Safe Place Project)

이 프로젝트는 쉼터를 위한 Outreach 프로그램으로 1983년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즈빌 시내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루이즈빌 시내의 교회, 편의점, 피자 가게 등에 300여개의 안전보호소가 있으며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이곳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길거리에는 청소년들을 위기상황으로 빠지게 하는 요인이 많으므로, 이들이 가출후 길거리에 나가기 전에 즉각 안전보호소로 오게하여 상담자와 함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보호소는 일종의 쉼터 접수통로로서 이 보호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15분 이내에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를 만나게 되고 상담이나 쉼터를 원하는 청소년은 쉼터로 안내된다. 이 프로젝트의 실시 이후 얻은 바람직한 효과로 인해 미국 전역에 걸쳐 115개 도시에 안전보호소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생겨나는데 기여하였다.

(3) 브리지 프로젝트 (The Bridge, Inc)

이 기관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는 취지하에 집없는 청소년과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70년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 설립되었다(김향초, 1998:241-243). 이 기관의 특징은 가출청소년

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도움을 주고자 한 점으로 Outreach 담당자에 의해 가출청소년이 기관과 연결되면 먼저 이들의 생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에 따라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다음단계인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 즉, 직업과 교육관련 계획, 장기간 거주지, 독립된 삶을 위한 기술습득, 인간관계 형성 등을 해결하는 능력의 습득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효과를 보게되었다.

3.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Covenant House 나 Attention Home처럼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이 거대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가출청소년 개개인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유럽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계별 지도방법을 택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사례는 주거, 치료, 교육, 재할 등 가출청소년 개개인의 문제상황 및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 개의 시설에서 모두 제공되어, 위기상황 개입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이 중단됨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대한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 및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집에서 떠난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며 대리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한 시설에 대한 부담감 및 규율에 대한 적응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체계와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미국의 「가출 및 청소년서비스 전국

네트워크」나 「안전보호소 프로젝트」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현장접근서비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출청소년을 조속히 찾아내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편의점 등을 안전보호소로 이용하여 쉼터나 보호시설로의 통로역할을 부여한 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유럽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 중,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네덜란드의 민간단체에 의해 시도된 인스텝 프로젝트(INSTAP-Project)는 가출청소년의 가족 및 친척 등의 직접적 인적자원과 가출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사회복지사, 사회교육전공자, 경찰, 법률가 및 청소년 관련 전문집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출청소년의 성공적인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그 지도방법의 효과를 이미 검증받은 바 있다. 인스텝은 4-5명이 T-팀이라 불리우는 소그룹을 이루어 함께 일하는데, 팀원은 교육사회학 전공자 뿐 아니라 교사, 경찰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력구성을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적 견해가 수렴될 수 있고, 많은 관련 기관과의 접촉 및 협력체제 구축이 용이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 경찰, 법률가, 교사, 의료계 종사자, 직업 관련 기관 종사자 등 각 분야의 가출청소년관련 전문가 20여명 정도로 구성된, 가출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 네트워크(Problem Solving Network)”는 주거, 교육, 구직 등 가출청소년의 사후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 혹은 사회복귀 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문제상황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재가출 및 각종 비행에의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쉼터 등 일시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개개인의 문제가 미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땅히 연계할 중장기 시설도 없어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출청소년의 재가출율이 현저히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후지도 방법은, 가출청소년의 재가출을 차단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원만한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하여 반영되어야 할 대안이다.

V.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모형

1.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정책 모형 개발 방향

지금까지 고찰해 본 가출청소년 현황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례 등을 분석·종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호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가출청소년이 가출 후 직면하게 되는 위기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혹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에 주력한다. 지금까지 가출청소년을 위한 접근서비스라 할 수 있는 길거리 선도보호활동, 현장접근서비스 혹은 각종 상담서비스 등은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귀가조치나 시설·기관외에 목표를 두고 시도되고 있으나,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홍보 부족 및 서비스의 양적인 부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이 각종 서비스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가출청소년은 비난이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넓게 보호받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만 가출 후 각종 비행에의 유입으로 가출상황이 심각화·장기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적인 통제가 필요할 경우 통제보호를 고려한다.

셋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집밖에서도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출청소년의 사례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많은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가정에서 육체적·성적 학대에 시달려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조치할 경우 재가출 및 가출상황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현재까지의 성장과정에서 육체적 학대 및 신체적인 질병 혹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신체적, 정서·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를 위해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다섯째,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통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사회환경의 변화와 사회자원의 최대한 활용에 목표를 둔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기존의 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단체, 자원봉사 인력 등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정부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대책

1) 접근서비스의 강화

(1) 위기전화(Hotline) 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이 여러 형태의 위기상황에 직면했을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일시보호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는 쉼터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24시간 전화상담 및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지만, 전화연락처나 주소 등 청소년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번호를 갖는 위기전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가출청소년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정보제공, 기관의뢰 알선, 위기개입 상담 등 길거리를 배회하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위기전화는 가출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상황에 처한 모든 청소년

이 도움을 청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 체제의 형태로 전국의 각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으로는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시·도 아동상담소 및 전국의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 위기전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때 전산화를 통해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된 절차와 통일된 정보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전화 서비스체계가 수립되면 가출청소년을 비롯하여 일반청소년 및 부모, 교사, 현장지도자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장접근 서비스(Outreach Service)가 확대되어야 한다.

위기의 전화가 청소년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청소년 자신이 자발적으로 찾는 서비스라면, 현장접근 서비스는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나서서 각종 위기상황의 차단이나 비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거리상담이라 지칭되기도 하는 현장접근서비스는 거리상담원이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리플렛, 소책자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활동을 벌이는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리상담을 통해 접근된 청소년의 다수가 쉼터나 기관으로 입소하게 되고, 강한 현장성으로 홍보효과도 크므로 거리상담에서 배포된 유인물을 보고 기관입소나 상담을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장접근 서비스가 확대되고,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가출청소년이 가출 후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상황이나 비행에의 유입으로부터 구조될 수 있을 것이다.

2) 수용·보호시설의 재정비

(1) 쉼터 등 소규모 일시보호시설의 법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수용·보호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쉼자리로 구분된다.

1992년 현 문화관광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서울 YMCA가 시작한 청소년쉼터가 제도화된 이래 지금까지 7개의 쉼터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개소되었으며, 2001년까지 12개소로 확대될 방침이다. 그 외 순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쉼자리도 ‘청소년 상담소·쉼자리 전국협의회’(소년협)를 주축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쉼터 형태의 일시보호시설은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비인가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출청소년을 수용·보호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인력 및 재정난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시설의 법인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에 앞서 법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시설운영 총괄을 주도할 주무부처(문화관광부 혹은 보건복지부)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제보호시설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넓게 보호받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가출 후 각종 비행에의 참여로 가출상황이 심각화·장기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적인 통제가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통제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강제적 성격의 통제보호시설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거리를 배회하다 혹은 유흥업

소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된 가출청소년은 상당수에 이르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기회를 탐색하여 다시금 쉼터를 떠나 향락 산업으로 뛰어들려 하며, 쉼터에 기거하는 동안에도 기회가 되면 하루 이틀 쉼터를 빠져나가 유흥행위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유흥의 경험이 있고, 성향으로 보아 유흥행위를 하게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가출소녀들을 일정기간(6개월~1년) 통제보호하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건전한 직업관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해야한다.

현재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보건복지부 산하의 선도보호시설이 있다. 선도보호시설은 유흥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된 20세 이상의 여성 혹은 유흥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가 소년부 판사로부터 선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및 자발적으로 시설입소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수용보호하며 직업훈련 교육 및 의료혜택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유흥경험자 및 성향으로 보아 유흥행위를 하게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쉼터를 비롯한 일시보호시설 혹은 단기보호시설에 기거하는 유흥의 우려가 현저한 가출소녀를 일정 기간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선도보호시설과 차별화된 통제보호시설의 근거마련과 설립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강제적 통제보호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3) 중·장기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을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긴급구호 및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쉼터의 실무자들은 쉼터를 운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일시보호의 기간이 종료 된 후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을 마땅히 인계할 시설이나 기관이 없어 안타깝다는 점을 지적한

다. 가출청소년의 사례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부모로부터 폭력 및 학대로 시달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가출청소년이 많고, 또한 대다수의 경우 학교를 쫓겨났거나 자퇴하여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이 학교의 중도탈락으로 이어진 상태이므로 이들을 2~3개월간의 일시적 단순보호 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이어지는 문제상황은 예측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가출청소년을 자립할 때까지 위탁 보호 할 수 있는 중·장기시설로 인제 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시설 현황조사 결과, 현재 20여개의 중·장기시설이 있지만 과반수 가량이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결손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단된 학교 교육을 지속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과반수 가량의 시설이 일시 및 단기시설에서의 적응기간을 거쳐 어느 정도 자아 통제가 가능하나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다시 비행의 세계로 빠져들 소지가 있는 가출소년, 혹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가출소녀를 의뢰받아 학교교육, 직업훈련 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시설이다. 이러한 중장기시설은 한번 입소하면 자립시까지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동인원이 적고, 이로 인해 시설이 수용가능한 인원을 항상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마땅히 의뢰할 만한 빈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시보호시설 형태인 청소년쉼터를 양적으로 늘려가는 것과 병행하여 중·장기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시설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육시설이 있겠으나 유아기 혹은 아동기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자와는 달리, 청소년기에 갑자기 보육원에 보내져 잘 적응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거의 대부분 단기간내에 탈출하여 다시 거리를 배회하게 되므로 소규모의 그룹홈 형태인 중장기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민간 종교단체에서 운

영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3개월~6개월)을 중장기시설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정적으로 지원하여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 남자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대부분이 여자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며, 남자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시설은 극히 일부(7개소 : 대구, 인천, 신림, 강남구, 울산, 열린문, 돈보스코)에 불과해 남자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여자청소년일 경우 가출의 장기화로 인한 향락산업으로의 유입문제가 남자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범죄나 비행 등 다른 유형의 문제를 지니게 되므로 보호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자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교육기회 부여

(1)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패배의식을 가지며 성장해 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폐적 피해의식, 열등감 및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의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정부가 1996년 12월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 추진정책을 시행해 온 이래, 1998년에만 충북 양업고등학교 및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설립되었고, 1999년 올해 경기도 화성의

두레자연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설립되어 2년간 10개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급정원이 20명 정도, 전체 학급이 2-3개 학급인 소규모 학교로 공식통계로만 10만명이 넘는 전체 가출청소년과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의 양적인 수와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안학교의 설립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기숙사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장기보호시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재 가출청소년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보호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안학교 설립의 확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2) 대안학교는 가출청소년의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이므로 수업료 외에 매월 일정액(30만원 정도)의 기숙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출청소년들이 저소득층이거나 해체가정일 경우 사실상 진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현행 대안학교 설립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가출청소년을 위한 충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는 농촌형 기숙학교라는 특징이 공식처럼 부여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자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행할 수 있고, 개개인의 비행적 성향을 통제하지 못했던 또래집단을 비롯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의 가정에서 성장해온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한 인내와 적응을 요하는 낯선 환경이 될 수 있다. 시설보호 프로그램 및 인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정상화(Normalization)”이론⁹⁾이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형 및 비기숙사형 대안학교 등 청소년 개개인의 성장배경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3)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현행 정책에 의하면 대안고등학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마련되었을 뿐 중학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가출은 중학교 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중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상당수의 중학교 과정 중퇴자들은 기존의 학교에 다시 복학하던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던가 혹은 학교과정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학교 과정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이 시급하며, 특히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자녀이거나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상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의료서비스의 확대

(1) 국립 청소년전문 치료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대다수는 사회의 기본 가치관이나 규범의식에서 이탈되어 있어 술, 담배는 기본이고, 가스나 본드 등의 약물경험 및 성병, 임신 등 성비행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문제를 지니고 있다. 가출소녀의 일부는 불결하고 문란한 성관계로 질염이나 기타 일반 성병에 감염되어 있고, 심하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으로 인한 검진 및 치료를

9) ‘정상화(Normalization)’란 용어는 스웨덴의 Bengt Nirje에 의해 “정신지체자들의 생활의 원형과 조건을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정상인들 생활의 표준과 원형에 가깝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돕는데 있어 그가 있던 이전의 환경과 가장 유사한 곳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배근, 1999:65).

요하는 때도 있다. 또한 오랫동안의 길거리 생활로 위장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담배의 과용으로 기관지 문제를 갖고 있으며,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 행동상의 장애 등으로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산부인과를 비롯하여 내과, 이비인후과, 임상병리과 및 정신과 등 총체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가출상태이므로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수술이나 응급환자일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크며, 병원 및 진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부 시설에서는 무료 혹은 실비 정도만 지급하고 진료를 받기도 하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료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청소년 전문치료센터가 설립되어 각 쉼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 무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 보호시설에 국립병원 무상이용 혜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국립 청소년전문센터의 설립이 제도화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진료가 필요한 가출청소년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보호시설에 국립병원 무료 진찰 및 치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시설에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치료의뢰가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서비스 체제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방안

1)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1) 청소년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쉼터의 발전적 운영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가출하는 청소년의 수와 비교하여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면에 있어서도 미흡한 청소년쉼터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청소년 가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정신과적인 치료를 비롯하여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성폭력이나 학대로부터 약물치료나 안전한 은신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개인이 지닌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때, 장기보호시설, 약물 및 정신치료 관련 기관 및 병원 등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기관과의 의뢰망이 형성되어 있다면 청소년 개인의 문제상황에 적절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쉼터와 학교와의 연계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상당수는 학교를 자퇴하였거나 학교로부터 쫓겨난 중도탈락자들로 이들의 일부는 학교교육 혹은 직업교육 등 배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무단 가출한 청소년을 쉽게 자퇴시키지 말고, 자퇴한 청소년이 전학이나 복학을 원할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하며, 담당 교사들은 이들이 심리적·환경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쉼터는 학교의 상담교사 등과 연계하여

가출한 청소년이 학교에 돌아가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 지도에 힘쓰며, 문제청소년을 비롯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

2) 지역사회 인적 자원 활용 방안

(1) 쉼터의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현재 일부 청소년쉼터에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혹은 운영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쉼터가 위치한 지역의 청소년 관련 주요 인사를 운영위원 혹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며 직면하게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받게 된다. 운영위원들은 주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등 청소년관련 학과 교수, 변호사 및 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약물 및 심리치료와 관련한 기관 종사자, 산부인과, 정신과 등 관련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출청소년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고,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의료적 혜택 등 가출청소년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므로 현재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의 회의 개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이들이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은 “문제해결네트워크(Problem Solving Network)”의 기능을 수행한다면(V장 1절 참조), 청소년가출과 관련한 각종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생 및 지역주민 등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현황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청소년쉼터를 비롯하여 중장기 시설들의 대부분은 2-3명 정도의 실무진이 가출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 및 야간관리, 취사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고충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인력을 보다 체계화·조직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청소년학과 등 청소년관련 학과 혹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예체능 관련 학과, 쉼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학과 등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하고, 활동한 내용을 실습점수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인력을 집결하여 결연 및 후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가출청소년의 사후관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보호시설의 전문적·유기적 분화

(1) 일시 및 단기보호시설이 전문적으로 특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일시적 혹은 단기적으로 청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인력 및 재정적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형의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교정,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가출동기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불화, 학대, 학교부적응, 또래집단의 유인 등 가출동기와 가출횟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 가출유형과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램 및 서비스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가출유형별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수용·보호시설은 시설규모나 인력, 재정면에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의 유형별로 청소년쉼터를 특성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시보호시설에서는 그야말로 가출청소년을 1개월 이내로 일시보호하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의 형태로 운영하고, 3개월~6개월 이내로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공에 주력하는데, 이때 역점을 두는 프로그램별로 쉼터를 기능적으로 특성화한다. 공부가 하기 싫거나 학교폭력 등에 연루되어 가출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쉼터, 본드나 가스 등 약물문제를 지닌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에 주력하는 쉼터 혹은 성문제를 지니고 있거나 성비행의 성향이 높은 가출청소년을 위해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쉼터 등 각 쉼터가 기능적으로 특성화 된다면 가출청소년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한층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쉼터간의 연계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직업보도시설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보도시설로 선도보호시설을 들 수 있다. 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윤락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된 20세 이상의 여성이나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가 소년부 판사로부터 선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자발적으로 시설입소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6개월~1년간 직업훈련 교육 및 의료혜택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쉼터에서의 일시보호가 종료되면,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가출소녀를 중·장기시설에 인계하기 위해 선도보호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낙후된 시설과 통제적인 분위기로 가출소녀들의 적응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윤락녀로 낙인되는 문제가 있어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도보호시설은 시설, 입소조건 및 운영방식 등에서 총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에서는 미용, 양재, 제빵, 컴퓨터 등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출소녀가 향락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기능을 바탕으로 노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출청소년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대책과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가출청소년에게 전달되는 통합적인 서비스의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V-1] 과 같다.

VI.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출 후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상황을 차단하여 가정 혹은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대안과 지역사회에 근거한(community-based)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 체계화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출청소년이 가정을 이탈하여 겪게 되는 위험상황 및 이탈행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가출청소년의 현황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각 정부부처의 서비스 현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청소년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형태의 중·장기 보호시설 등 비인가 형태로서 순수 민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국의 보호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각 시설의 특징, 인력구성, 제공되는 프로그램, 운영형태 등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보호시설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가출경로, 가출 후 이동경로, 생존을 위한 비합법적 행위예의 개입 및 현안문제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청소년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었던 가출청소년의 상담일지를 사례조사하여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외국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출청소년 보호사업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체제와 지역사회 연계체제 구축이 미흡하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의 부족 및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보호 서비스 현황조사와 가출소년 상담일지 사례조사 및 외국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 사례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유형화하여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대책과 지역사회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시스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출청소년 현황

최근 몇 년간 가출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가출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평균 19.8%의 증가율을 보였고, 1997년 현재 20세 미만의 가출청소년은 19,835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공식적 통계는 경찰에 신고된 숫자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총 가출자는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일단 가출하면 갈 만한 곳이 없어 주유소,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등 청소년문제로 발전하기 쉬우며, 이는 곧 청소년 탈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음주, 흡연, 가스흡입 및 폭력가해 경험, 유흥업소 고용경험 등 문제행동 경험율이 높아 청소년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가출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생존의 수단으로 향락업소로 유입되는 경향이 현저히 높아진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가출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잠자리와 일자리를 해결

할 수 있는 곳인데, 특히 가출소녀가 가장 쉽게 접근하여 숙식을 해결하는 곳으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들 수 있다. 가출청소년이 유해업소로 유입되는 경로는 직업소개소나 보도방, 생활정보지, 홍보전단과 스티커, 핸드폰이나 삐삐 등의 통신이용 등 다양하며, 이전에는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졌다면, 최근에는 구인광고, 친구소개, 보도방 같은 보다 대중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 청소년가출의 실태

사례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가출동기는 가족요인, 학교부적응 요인, 주변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부모의 이혼/별거/재혼 혹은 부모의 학대, 방임 및 알코올중독 등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에서의 탈출욕구가 비행 또래집단이나 향락산업 등 제반 유인 요인을 억제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밀어내는 요인은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 또래집단과의 합류 및 향락산업에의 유입을 부추기고, 결국은 고통과 시련에서 탈출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으로 혹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최악으로 전락하기 위해 가출을 시도하게 된다. 가출의 직접적 동기로 계모나 계부의 학대, 부모의 무관심, 방치 혹은 지나친 간섭, 부의 성폭력 및 구타 등 가출이 최상의 선택인 측면이 자주 등장하였고, 아울러 학원폭력, 따돌림, 학업흥미 상실 등을 비롯한 학교부적응, 심리적 불안이나 정신지체, 보육원 및 사회복지시설 부적응 등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가출을 선택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청소년들이 최초로 가출하는 시기는 중학교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출 상황에 있어서도 5회 이상 가출을 경험한 상습적·장기적 가출이 대다수 였는데, 한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상습적으로 가출을 시도하여 가출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가정을 떠나는 청소년은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도 이탈된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학교를 포기했거나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자였

으며, 현재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가정에서 부모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 속에 혹은 학교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야 할 청소년기에 가출로 인해 부모 혹은 가족과의 결속력이 끊기고, 학교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청소년은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정체불명의 혼란상황을 맞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가정,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및 학교 등 올바른 사회화의 과정을 익혀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고, 복귀가 불가능 할 경우 대안가정이나 대안학교 혹은 직업교육 등 대안책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편, 사례조사 대상의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음주, 흡연을 비롯하여 성비행, 절도, 폭력, 약물 등 다양한 비행전력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습관적으로 혹은 떠돌이 생활에 대한 생존수단으로 절도를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본 사례조사 대상의 가출소녀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행의 유형으로는 음주, 흡연을 기본으로 하여 본드나 가스흡입 등 약물비행과 학교 부적응 현상에서 비롯되는 등교거부 및 학교폭력 등 폭력비행이 자주 등장하였다. 특히 약물문제는 가출소녀들의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가져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복귀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들은 가출 후 다양한 이동경로를 거친다. 가출한 후 지낸 곳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친구 자취방 혹은 친구집, 남자 친구집 이었고, 다방이나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지냈다는 경우도 자주 등장하였다.

본 사례조사 대상 가출소녀들은 대부분 근본적으로 가정 복귀가 불가능하여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습 가출자들로 친구집, 자취방 등을 전전하며 뚜렷한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머무를 곳과 돈이 필요해지면 다방, 카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고용되어 숙식을 해결하려 하는 장기 가출자들이 많았다. 또한 가출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환경의 또래

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가출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은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형성을 경험하지 못한 가출청소년들은 가정,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지집단에 동화되어 가출의 장기화를 고착시켜,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어렵게 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본 사례조사 대상 가출소녀들은 대부분 유흥업소에서의 취업경험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흥업소에 유입되고 있다. 본 조사대상 가출소녀들의 유흥업소 유입 경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다. 첫째, 직계가족에 의한 강요로 유흥업소에 유입된 경우이며 둘째, 가출 후 이곳 저곳을 배회하며 떠돌아 다니다가 가출이 장기화 될 경우,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입된다. 셋째, 비행문화 혹은 비행 또래집단에 합류하다 유입된다. 향락산업에 유입된 대다수의 가출소녀들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 억압되고 강요받는 생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스런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하지만, 일부는 그 곳 생활의 매력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의 가출경로나 동기가 다양한 것처럼 가출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본 사례조사 대상 가출소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대다수는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 출신으로 복귀할 가정이 없고, 학업흥미 상실, 무단결석 등의 요인으로 대부분 학교를 스스로 포기했거나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자들이며, 대부분의 경우 음주, 흡연을 비롯하여 성비행, 절도, 폭력, 약물 등 다양한 비행전력을 갖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가출소녀들은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문란한 성생활 및 향락산업에의 유입으로 임신·낙태·출산의 경험 및 성병 등의 문제를 갖고 있고, 가정으로부터의 학대 혹은 가출 후의 정서·심리적 불안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나친 음주·흡연을 비롯하여 본드·가스 흡입 및 약물남용 등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가출 후 이곳 저곳을 배회하며 떠돌아다니다 가출이 장기화 될 경우,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감금, 폭력 빚 등 각종 문제에 연루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 가출청소년 보호서비스 현황

정부차원의 공공서비스로는 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실, 여성복지상담소 등의 상담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선도보호시설, 대안학교 등의 수용·보호시설이 있다. 이외에 긴급전화서비스와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길거리선도보호활동 및 쉼터 등이 있다. 순수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형태의 일시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형태의 중·장기보호시설 등 비인가 수용보호시설이 다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와 자립지원을 돕는 시설 및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파악된 비인가 수용·보호시설은 총 48개로, 이중 일시보호(1개월미만)시설 9개소, 단기보호(1-6개월)시설 15개소, 중·장기(6개월이상)시설 24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비인가 시설은 가출청소년을 수용·보호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과 재정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들 48개 비인가 시설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은,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7개소(서울YMCA,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서울시 지원 2개소(구로, 신림), 구청지원 2개소(강남구, 노원구), 지방자치단체 지원(창원여성의집 무지개뜨는청소년쉼자리) 1개소 등 12개 시설뿐이며, 나머지 36개 시설은 순수 민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여자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며, 남자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시설은 7개소(대구, 인천, 신림, 강남구, 대전, 열린문, 돈보스코)에 불과해 남자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4) 외국의 가출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 사례

유럽(네덜란드 및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일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Covenant House 나 Attention Home처럼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이 거대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가출청소년 개개인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유럽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계별 지도방법을 택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사례는 주거, 치료, 교육, 재활 등 가출청소년 개개인의 문제상황 및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 개의 시설에서 모두 제공되어, 위기상황 개입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이 중단됨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대한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 및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집에서 떠난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며 대리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한 시설에 대한 부담감 및 규율에 대한 적응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유럽의 가출청소년 보호사업 중,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네덜란드의 민간단체에 의해 시도된 인스텝 프로젝트(INSTAP-Project)는 가출청소년의 가족 및 친척 등의 직접적 인적자원과 가출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사회복지사, 사회교육전문가, 경찰, 법률가 및 청소년 관련 전문집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출청소년의 성공적인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그 지도방법의 효과를 이미 검증받은 바 있다. 특

히, 청소년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 경찰, 법률가, 교사, 의료계 종사자, 직업 관련 기관 종사자 등 각 분야의 가출청소년관련 전문가 20여명 정도로 구성된, 가출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네트워크(Problem Solving Network)”는 주거, 교육, 구직 등 가출청소년의 사후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 혹은 사회복지 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문제 상황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재가출 및 각종 비행에의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아이·에스·이 프로젝트 (ISE-Projekt) 는 네덜란드의 인스텝 (INSTAP)방식을 도입하여, 비행 및 가출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있어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생활세계집약적 접근방식을 시도하는 본 사업은 단기간(3개월)이지만 집중적 개입을 하는 독일의 가족지원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띄며, 소그룹(4-5 명의 담당자)이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을 보완하거나 연계 체계화하는 작업을 주도한다. 일반적으로 「아이·에스·이」 지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지도자가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하는, 소위 “대리적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에게는 의존성이 새롭게 생겨날 소지가 있다. 광범위하게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인적자원을 찾는다거나 청소년의 아주 어린시절의 근원을 추적해가는 측면은 「아이·에스·이」 사업 목적이 아니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에스·이」는 지도자가 가출청소년과 개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측면에서는 INSTAP 프로젝트와 유사하지만,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팀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INSTAP-프로젝트와 차별화된다. ISE-프로젝트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지도 방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출청소년이 자칫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 독립된 인격체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5)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정책 모형 개발

지금까지 고찰해 본 가출청소년 현황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례 등을 분석·종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호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본 방향으로 접근서비스의 강화, 수용보호 시설의 재정비, 교육기회의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제도화를 설정하였다.

첫째, 접근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위기전화(Hotline) 서비스체제의 구축과 현장접근서비스(Outreach Service)의 확대를 제언하였으며,

둘째, 수용보호시설의 재정비 방안으로 쉼터 등 소규모 시설의 법인화와 통제보호시설 설립의 고려, 중·장기 보호시설의 확충 및 남자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셋째,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과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설립 및 가출청소년의 현실에 맞는 대안학교의 운영을 제시하였고,

넷째, 의료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방안으로 국립 청소년전문치료센터의 설립을 논의하였으며, 설립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에 보건소 등 국립병원의 무상이용 혜택의 제도화를 제언하였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지역사회의 물적 자원 활용방안으로는 가출청소년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학교와 쉼터와의 연계방안을 제언하였고, 인적자원 활용방안으로 쉼터의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대학생 및 지역주민 등 자원봉사 인력 활용의 제도화를 들었다.

2. 결론

가출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가정을 이탈하면서 시작된다. 청소년기의 가출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인해 단순히 집을 떠나는 행위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문제, 성적위주의 교육병리현상 및 학급붕괴 현상 등 집에서 밀어내는 요인과 이성친구를 포함한 또래집단의 유혹, 향락산업을 비롯한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의 유인요인 등 상호 역동적인 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가정을 이탈하는 청소년은 대부분의 경우 학교도 이탈하며, 가정과 학교의 이탈은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결과로 이어져 끝내는 사회 자체로부터도 이탈되게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조장하게 된다. 청소년의 가출은 처음에는 일개의 개인사건에 불과하지만 학업위주의 교육병리현상 및 학교 중도탈락의 문제와 함께 결부되어 있고, 가출 후 폭력, 절도, 마약, 매춘과 같은 범죄의 온상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약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가출은 단순한 청소년비행이나 문제행동의 범주에서 이해하기 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화된 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가출청소년 개인의 문제해결 차원을 넘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구조 등 사회체제 전체의 개발정책과 연관되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가출이라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다양한 접근 방식에 따라 상호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단계별로 우선 순위를 가려 시급히 요구되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가출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부처로는 문화관광부, 보건복

지부, 교육부 등을 들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가출청소년 쉼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윤락여성을 위한 선도보호시설을, 교육부에서는 대안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 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의 재정적인 보조만 받고 있을 뿐,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비인가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출청소년 수용보호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부처별 통합이 어려울 경우 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가출문제를 다루는 정부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부처간의 현실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기본전제는 부처간의 이기주의 혹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출청소년의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의 불충분한 혹은 잘못된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가출상황이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이 약물이나 매매춘 등 가출생활의 위험상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악용하여 길거리 생활을 한층 지연시키고, 각종 비행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현행의 가출청소년 복지서비스 체제를 고려할 때, 가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의 선정은 더 이상 시기를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한국문헌

- 강병상(1996). 가출을 꿈꾸는 아이들. 서울:이서원.
- 강지원(1998). 나쁜 아이는 없다. 서울:삼진기획.
- 교육부(1997). 교육복지 종합대책(III). 교육부
- 김문조(1991). 향락문화와 청소년가출. 가출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나. 청소년가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pp.59-62.
- 김미희(1997).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거주형 집단치료시설의 효과성 평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김보령(1998).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양희(1995). 가출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 김영지(1995).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찬숙(1997). 가출청소년의 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논문.
- 김향초(1997). 청소년가출 조장환경 억제를 위한 정책적 과제. 청소년가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청소년건전육성 정책토론회 자료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pp. 83-108
- 나동석·이용교 역(1991). 가출청소년 연구. A. R. Roberts 저. 한국청소년연구원.
- 대검찰청(1999).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

-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1996).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보호센터로서의 청소년쉼터 사례연구. 서울: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백서.
- 박경기(1998). 가출청소년현황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부일(1992). 청소년 가출예방대책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선도대책.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박성수(1997). 청소년 가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청소년건전육성정책토론회 자료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pp. 5-16
- 박용철(1998).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실제와 과제. 분야별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pp. 49-68). 사회복지그룹홈세미나자료집
- 박종삼(1992). 가출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시설현황.
-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1994). 청소년가출 어떻게 할 것인가. 제9회청소년상담세미나 자료집.
- 서울특별시(1997).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1998). 동부아동상담소 사업현황. 서울
- 서울 YMCA(1995). 외국 가출청소년 연구자료집
- 서울 YMCA(1997). 청소년쉼터 리포트.
-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나남
- 심영희 외(1999).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6). 아동복지편람.
- 안창규 외(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집문당
- 엄명용(1995). 청소년가출의 현황과 예방대책. 여의도 정책논단. pp. 132-142.

- 엄명용(1996). 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지역복지 서비스 모형. 한
국사회복지학, 29.
- 이배근(1999). Group Home 모형개발을 통한 청소년쉼터의 발전적 운
영. 가출청소년 현황과 대책. 청소년가출 및 아동학대 분과원
원회 토론회 자료집. pp. 64-69
- 이상오(1997). 청소년가출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도방안. 청소년가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청소년건전육성 정책토론회 자료집. 청소년폭
력예방재단. pp. 29-54
- 이용교(1995). 청소년복지 서비스기관의 협력방안 모색. 서울 YMCA. 청
소년을 돕는 사회적지지망 형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pp. 63-76.
- _____(1996). 청소년가출, 밥먹듯 집나가는 아이들. 서울:예향
- 이중근(1992). 한국가정환경과 청소년가출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임종렬·김순천(1996). 대상분열에 의한 자기도취적 자기학대 -가출청
소년의 심리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0호. pp.199-226
- 장중옥(1997). 가출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업소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최선화(1995). 여성복지의 발전방향에 관한 일고.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5
호. pp. 189-208
- 하순인(1997). 사회적환경과 개인적 특성이 청소년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황미경(1997). 가출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 연구. 이화여대 사회사
업학과 석사논문.

■ 일본문헌

- 寺山修司(1993). *ドキュメンタリー家出*. 東京:河出書房新社.
- 波田あい子・平川和子・編(1998). *サエルター*. 東京:青木書店
- 児童虐待防止制度研究会編(1993). *子どもの虐待防止*. 大阪:朱鷺書房.
- 永井憲一 (1995). *子どもの権利條約の研究*. 東京:法政大学現代法 研究所.

■ 영미문헌

- Garbarino, James, Janis Wilson & Anne C. Garbarino(1986), *The Adolescent Runaway*. James Garbarino, Cynthia J. Schllenbach & Janet M. Sebes(eds.), *Trouble Youth, Troubled Families: Understanding Families At-Risk for Adolescent Maltreatment*. New York : Aldine Publishing Company.
- Rees, G.(1993). Hidden truths: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running away. *The Children's Society*.
- Roberts, A. R.(1987). *Runaways and Non-runaways*, Chicago : The Dorsey Press.
- Stein, M. Rees, Frost, N.(1994). Running the Risk:Young people on the streets of Britain today, *The Children's Society*, 1994
- Welsh, Lesley A., Francis X. Archambault, Mark-David Janus & Scott W. Brown(1995). *Running for Their Lives*, 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Inc.

■ 독일문헌

- Jogschies, P.(1997). Die Lebenswelt von Strassenkindern in Deutschland -Überlegungen und Erkenntnisse im Verlauf eines Forschungsprojektes. Adick, C.(Hg.)(1998). *Strassenkinder und Kinderarbeit (pp. 193-209)*. Frankfurt:IKO-Verlag.

Permien, H · Zink, Gabriela(1998). *Endstation Strasse?*

Strassenkarrieren aus der Sicht von Jugendlichen. Verlag
Deutsches Jugendinstitut

Seidel, M.H.(1994). *Strassenkinder in Deutschland. Schicksale, die es
nicht geben dürfte.* Frankfurt/M., Berlin.

<부록 1>

가출소녀 사례

(사례 A)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경험	최초가출	가출후지낸곳	가장 질실한 욕구
15	중2 자퇴	· 부의 알콜중독 및 육체적·성적 학대 · 언니들도 집을 떠나고 혼자 남아 불안해짐 · 학업에 흥미를 잃음	· 부모의 별거 · 모는 태어난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 · 18, 17세의 두 언니 모두 취업 동거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난 상태	처음		자취방	고모의 도움으로 기술이라도 배우고 싶다
주요문제 및 현상		· 부모의 별거, 부의 알콜 중독 및 육체적·성적 폭행 등으로 가족체계가 거의 해체된 상태 · 언니들은 결혼이나 취업, 동거 등의 형태로 출가하게 되자 막내인 ct는 말 그대로 오갈곳 없이 무작정 가출 · 그동안 언니들의 집이나 친구들 자취방을 전전하며 학교도 그만두고 술, 담배도 배우게 됨.					

(사례 B)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경험	최초가출	가출후지낸곳	가장 질실한 욕구
14	중2	· 매우 빈곤한 가정, 끊임없는 가사노동 등 답답한 가정에서 탈출하고 싶었음 · 등교거부, 수업거부 횟수가 늘어남	· 대가족으로 매우 빈곤한 가정, 치매에 걸린 할머니 수발	2~5회	중2 봄	자취방	이러한 생활을 정리하고 고교진학 및 신학, 대학진학을 원함
주요문제 및 현상		· 수차례의 가출경험이 있고, 학교 동급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행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후 비행수준이 더 심각해짐. · 금년 봄 답답한 가정에서 탈출해 보고싶어 친구들과 서울행. 한강고수부지에서 술마시고 지나던 중년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함. · 현재는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 전학을 강력히 원할 정도로 자신을 추스리기 시작했으나 가정형편이나 집단유인력 등으로 실행되지 못함					

(사례 C)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6	고2 자퇴	· 돈벌기 위해	· 부모의 이혼 · 막내고모와 깊이 연 루됨. 막내고모가 경 영하는 다방에서 티켓 과 율락을 강요당하 고, 폭력행사를 경험	5회 이상	고2 봄	다방	친구와 만나 노는것
주요문제 및 현상		· 중학시절부터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벌이를 하면서 옷가지나 화장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소비경향이 상당히 강해짐. · 다방에서 티켓 및 율락행위를 강요받고, 중년남성의 고정적 성 상대로 어려움을 겪다가 다방업주와 중년남성을 신고하기로 결심 · 중년남성과의 고정적인 관계가 성립된 후로는 경제적인 의존성도 파생, 떠올려 돈 벌 생각이 전혀 없음					

(사례 D)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3	중1 자퇴	· 부모의 학대 및 계모와의 갈등 · 부의 무관심	· 부모의 이혼 · 부는 여성편력이 심함 · 친오빠로부터 성폭행 경험 · 부·모·외조모 모두 ct에게 너무 지쳐 모 든 권리와 의무를 포 기하려 함	5회 이상	초6	서울 썬터	
주요문제 및 현상		· 집에서 천대받는 것이 너무 싫어 가출함. 가출 목적지와 썬터입소를 미 리 계획하였음. · 입소 첫날부터 옷가지와 신발, 먹을 것 등을 가방에 꾸러두고 도망갈 준 비.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지역 썬터로 갈 계획 · 아주 어려서부터 가출을 시작, 서울, 부산, 조치원 등지로 돌아다니며 썬 터 등의 기관 이용 경험도 다수.					

(사례 E)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5	중2 자퇴	· 삼촌, 오빠로 부터의 (성) 폭행	· 부모의 이혼 · 이혼한 삼촌과 친오 빠의 학대 · 모와는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	5회 이상	15세	유홍 업소	
주요문제 및 현상황		· 현재 2년간의 보호관찰 대상으로서, 폭력 등의 사유로 2000년 2월까지 정기적인 면담을 필요로 함. · 삼촌과 오빠의 성폭행, 부모의 이혼, 부의 잦은 외박으로 방치되면서 각종 비행의 세계에 빠짐. · 가출 후 다방 등을 전전하며 종업원으로 일함. · 보호관찰소측의 권유로 쉼터에 입소했으나 귀가를 거부하고 일하던 다 방과의 경제적 채무문제도 남아있어 괴로워함					

(사례 F)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8	고2 자퇴	· 정신지체 2급 · 중학교때부터 가출하여 성 폭행을 당한 후 수시로 가 출함	· 엄마가출, 거의 기억 없음 · 아버지는 ct에게 많이 지쳐있는 상태. 빈번 한 제벌 · 엄마에 대한 원망, 언니와는 어느정도 대화함	5회 이상	중	자취방	기술습득, 남자친구와 의 재회
주요문제 및 현상황		· 정신지체자로 수시로 가출하여 친구들에게 구타당하며, 때로는 성폭행을 당해서 낙태를 한 경험이 많음. · 현재 임신 5개월의 아이를 낙태하여 건강이 안 좋고, 성병도 치료가 안 된 상태 · 시설보호요망					

(사례 G)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6	중2 자퇴	· 부의 무관심 · 계모의 학대	· 가정해체 · 부모의 조기이혼 (ct2세) · 각각 재혼후 세자매 방치	5회 이상	초등 6	남자 친구집	다방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
주요문제 및 현상		· 부모의 이혼후 부가 언니, ct, 여동생을 양육하며 고아원에 맡긴적도 있음. 부가 새엄마를 만나며 배신감을 느껴오다 초등 6학년때 부에 의해 심한 야단을 맞고 가출, · 여중2때 자퇴후 세자매가 함께 가출, 귀가한 적이 있으나 새엄마에게 쫓겨남. · 그후 남자친구집, 자취방 등을 전전하다가 다방에 취업함. 단속으로 다방에 더 있을 수 없게 되자 주인이 쉼터로 인도, 다방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					

(사례 H)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7	중2 자퇴	· 부의 무관심 · 계모의 학대	· 가정해체 · 부모의 조기이혼 · 각각 재혼후 세자매 방치	5회 이상	중2	놀이터, 다리밀, 친구 자취방	미용사가 되어 돈벌고 싶고, 거처할 방을 구하고 싶다
주요문제 및 현상		· 앞 사례의 언니. 어려서 부·모이혼 고아원→귀가→새엄마→자퇴, 가출의 행로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태 · 가출후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생활 (노숙, 친구자취방, 다방 등), 현재 동거하고 있는 친구 자취방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상태로 입소 · 두번의 출산경험이 있으며 입양					

(사례 I)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4	중2 자퇴	· 조모의 학대	· 부모의 이혼 · 조모양육 · 모의 재혼/별거 · 7년전 언니의 가출	5회 이상	중1		학교복학 친구 사귀
주요문제 및 현상		· 4세때 부모의 이혼, 모의 재혼 및 별거 등으로 정서·심리적으로 불안, 조모의 구타로 중동적 가출이후 상습가출로 이어짐 · 약물(가스, 본드)흡입, 남자친구로부터 2-3번의 성폭행, 절도경험 · 약물흡입으로 23일간 감별소에 다녀옴					

(사례 J)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7	고1 자퇴	· 부모의 무관심 · 학교부적응, 따돌림	· 새아버지의 무관심, 방치 · 계부에게 의존적인 친모 · 남동생만 부모사랑을 독차지, 가정에서 외 톨이 됨	5회 이상	중3	다방	집에 가기 싫음 자유
주요문제 및 현상		· 학교생활에는 흥미가 없고, 정서적으로 미숙하여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며, 가정에도 마음을 두지 못함 · 아버지는 무척 완고한 성격이고, 어머니도 따뜻한 어머니 역할을 못하므 로 집에 가기 싫어함 · 그간 수차례 가출을 했으며, 최근 가출후 다방에서 일하다 경찰에 의해 미성년자로 적발되어 쉼터입소					

(사례 K)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4	중2 자퇴	· 부모의 무관심 · 부 재혼후 남동생 출생, 갈등 심화	· 부모의 이혼 · 부모 각기 재혼 · 부와의 갈등심화, 부는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려 함	5회 이상	중1	숙소	쉼터에서 나가는 것
주요문제 및 현상황		· 부모가 일찍 이혼, 부와 함께 살았으나 모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심해 괴로워 함 · 부와의 갈등으로 중 1때부터 시작된 가출이 이젠 거의 상습화 되었고, 술·담배 심함 · 다방에 불법 취업, 미성년자로 적발되어 쉼터 입소. · 남자들과도 거리낌없이 어울리며, 성관계 문란					

(사례 L)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4	중2	· 엄마의 지나친 간섭 · 이성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데 대한 반발	· 부의 타계 (초 1학년) · 모의 식당일로 생계 유지	2-5회	중2	여관, 업소	집에가서 아빠의 차를 지내고 싶다
주요문제 및 현상황		·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과 엄마의 지나친 간섭,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 · 충동적으로 나왔던 가출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임신이 확실하여 집에 가서 병원에 가고 싶어함 · '자녀안심'의 도움으로 유흥업소에서 빠져나올수 있었으나 빚을 짐					

(사례 M)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7	고1 자퇴	· 부모의 간섭 · 이성친구	· 부의 실직 · 모가 힘겹게 가정 경제를 꾸려감	2-5회	중3	남자 친구집	
주요문제 및 현상		·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가출을 시작. 고1 자퇴후 이성친구 사귀 · 주유소, 카페, 단란주점 등에 취업 · 임신후 임마통장 160만원을 훔쳐 남자친구와 도주, 일주일만에 다쓰고 결국 귀가해서 임신중절을 받은 상태 · 엄마의 힘든 삶에 대한 넋두리에 부담스러워함					

(사례 N)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7	고1 자퇴	· 학교부적응 (따돌림, 소외감) · 학교 중퇴후 돈을 벌어 가족을 도우려 함	· 부모의 이혼(12세때) · 계모밑에서 성장 · 부의 교통사고로 생활력이 없어진후 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어함	처음 (장기 가출) 8개월 째	고1	남자 친구집, 술집	
주요문제 및 현상		· 돈을 벌어 가족을 돕고 싶어 가출후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남자친구를 만나 동거 시작 · 돈을 벌기 위해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 곧바로 술집으로 감. 술집에서 받은 선수금으로 아버지의 치료비에 보태기도 함 ·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미에 있는 술집에 취직을 했으나 티켓을 강요하며 거절하면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감시와 구타를 당했고 주변아이들이 흑산도 등지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침. · 도망치긴 했지만 소개소 사람들이 찾아다닐까 신분노출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상태.					

(사례 O)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5	고1 자퇴	· 학원폭력 따돌림 당함 · 가족해체	· 부의 사망 · 같은날 모의 자살 · 삼남매가 각자의 생 계를 해결, 주위의 도움을 받음	2-5회	초등 6	언니 자취방	집에 가고싶다
주요문제 및 현상		· 현재 가출 5개월째로 아는언니들 자취방, 주유소, 다방 등을 전전해옴 · 입소 2-3일전 다방일자리를 구하다 주민의 신고로 파출소 인계 · 초등 6학년때 임대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친구 미란과 만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가출 시작, 중 1때 자퇴 · 학교 · 또래집단에서 이지매를 당해 몸에 흉이 남아 있음 · 술담배 및 문란한 성격					

(사례 P)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8	고2 자퇴	· 부모갈등 · 아버지폭행 · 공포, 불안함	· 부 : 난폭한 성격 가족의 모든 기능을 파괴시키고 있음 · 모 : 부에 대한 대항 세력 전혀 없음 · 오빠 · 언니: 부에 대 한 저항세력 및 모의 지지세력	5회 이상	고 2	남자 친구집	
주요문제 및 현상		· 가출한지가 6개월이 넘었으며, 남자친구집에서 함께 동거함 · 나이를 속이고 동거하며 실제적으로 주부처럼 생활하는 것이 힘겨워 다 시금 집을 나옴 · 부가 모에 행하는 폭행으로 인해 늘 불안하다 보니 정서불안이 생김 특히 큰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 견디지 못함. 결국 부의 폭력이 두려 워 가출을 시작 · 의지력이 약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존감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유산경험이 있으며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남자친구를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의지하며 밀착관계를 보임 ·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2층에서 뛰어 내리다 다쳐 장애를 지니고 있음					

(사례 Q)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6	중2 재학	· 모의 가출 · 부의 성폭력 · 보육원생활 부적응	· 모: 어려서 가출함 · 부: 모의 가출후 내담자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 · 동생 : 보육원 위탁 보호 중	2-5회	중 1	거리 배회	
주요문제 및 현상황		·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집에서 견딜수 없게 되자 보육원에 위탁의뢰됨 · 아버지는 현재 주민들의 신고로 수감중 · 내담자는 보육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여 거리를 배회하고 다님 · 어려서 어머니의 가출후 주변아이들에게 늘 놀림감이 되었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성폭행 대상으로 전락함 · 아버지는 내담자를 성상품으로 이용하여 주변사람들에게 협박, 공갈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생활함 · 아버지는 내담자의 인생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힘					

(사례 R)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7	고2 자퇴	· 부의 심한 알콜중독 및 무기력한 어머니 · 어려운 가정 형편	· 부 : 알콜중독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구타를 가함 · 모: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모습.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담자에게 전혀 지지기반이 되어 주지 못함	5회 이상	초 6	거리 교회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주요문제 및 현상황		· 여러차례의 가출경험이 있으며 학교생활도 적응을 못하고 있음 ·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가출, 때로는 산속에서도 자고 교회동지에서 지내며, 남자친구 등과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질주함 · 문란한 생활, 잦은 성경험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것을 이루려는 성취욕이 전혀 없음. · 낮은 자존감과 기능을 전혀 해내지 못하는 가정형편이 내담자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농사일을 하는 부모,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며, 일이 안되면 내담자 에게 화풀이, 집에 있을 수 없도록 계속적인 학대를 가함					

(사례 S)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6	중3 재학	· 부모의 심한 구타 ·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 · 친구와 함께 동반가출	· 친부모는 각각 이혼한 상태에서 결합 · 장사일로 부모는 거의 부재중 · 가정의 기능적 결손으로 오펜도 오토바이 절도, 음주, 흡연등 잦은 비행을 보여옴	5회 이상	중 2	아는 오펜집	돈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주요문제 및 현상함		· 식구들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쳐 친구와 함께 가출함. · 중학교 2학년 초기부터 한달에 1회정도 상습적인 가출을 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음주, 흡연, 절도 등 잦은 비행을 저질러옴. · 부모님의 훈육방법이 너무 엄한데 대하여(쇠사슬, 쇠파이프 등을 이용한 구타) 반감을 가지고 있음 · 거짓말을 꾸며 대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대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직선적이고 반항적임					

(사례 T)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5	중1 자퇴	· 부의 질병 경제적 빈곤 · 유흥업소 취업	· 부 : 오랜질병생활 가장의 역할 상실 · 모 : 내담자에게 가족의 생계 부양 강요	5회 이상	초등 5	유흥업소 친구집	
주요문제 및 현상함		· 가정의 결손으로 인해 시작된 유흥업소의 일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 · 업소에 빚이 있어 그만 둘 수도 없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현실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 · 초등학교때부터 가출을 시작했고, 같은 비행또래 집단과 어울리며 곧바로 유흥가로 취직함 · 현재의 생활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채 쉽게 돈버는 일에 익숙해져 있음 · 엄마는 오히려 업소일을 쉬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 자신에 대한 존중감 상실과 이로 인해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향상을 위한 대화 접근이 어려움					

(사례 U)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9	고1 자퇴	· 모의 가출 · 조모의 엄격한 통제 · 비행 또래집단과 어울림 · 유흥업소 취업	· 할머니, 아버지, 동생과 함께 생활 · 할머니의 드센 성격에 어머니가 가출 · 내담자도 할머니의 성격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함	2-5회	고 1	유흥업소	
주요문제 및 현상		·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를 하였고 그 후 가출하여 유흥업소에 취업 · 다방에서 여러곳으로 부채를 안고 넘겨졌으며 650만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다방일을 그만 두므로 업주가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 어려서는 아주 얌전하고 성실했으나 어머니의 가출후 의지력을 잃은 내담자는 비행 또래집단과 어울렸고, 결국 가출, 유흥업소 취업으로 이어져 윤락행위까지 강요당함 ·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내담자에게 아무 지지세력이 되지 못함					

(사례 V)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5	중3	· 모의 심한 잔소리, 통제 · 부모의 갈등 · 모의 알콜중독	· 부: 불같은 성격 위압적인 자세 · 아내에 대한 불만 · 모: 부부갈등 및 시댁과의 불화로 알콜중독 상태	5회 이상	중 2	친구집	
주요문제 및 현상		· 부모님, 특히 엄마의 심한 잔소리와 통제가 내담자를 힘들게 함 · 결국 가출로 이어졌고, 남자들과 혼숙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잡힘 · 다시 재가출하여 다방에 취직했다가 다시 붙잡힘. 부모님에 의해 입소 · 초등학교 6년 동안 전학을 다섯 번 다님. 이로 인해 원만한 교육관계를 성하지 못함 · 항상 술에 취해있는 엄마, 집안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내면을 또래를 통해 풀어보려 함. 다방에서 만난 언니들을 우상처럼 여기며 심리적 밀착감을 형성 · 부모의 갈등관계, 여러차례의 이혼시도, 별거 등 가족기능 회복이 현안 문제					

(사례 W)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8	중졸	· 지적 지체 · 심리적 불안 · 스트레스 · 생리전증후군	· 부모 모두 생업에 쫓겨 내담자를 할머니 댁에 맡김 · 연로한 할머니가 내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 · 형제자매들은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	5회 이상	초등 6	역전 터미널 공원	
주요문제 및 현상		· 정신박약 내지 정신지체 증상을 보이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음 · 지적으로 다소 지체되어 중학교를 겨우 마쳤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가출은 그 횟수나 기간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가출후 역전, 터미널, 공원 등을 배회하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여관이 나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하고 다님 ·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매달 생리기간이 되면 집을 나와 돌아다닌다고 함 · 원인불명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증상을 보임 · 생리중후군 증상이 보이므로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					

(사례 X)

나이	학력	가출동기	가족관계	가출 경험	최초 가출	가출후 지낸곳	가장 절실한 욕구
18	중3 자퇴	· 사회복지 시설 부적응 · 문제행동 으 - 로 인해 퇴 - 소 당함	· 3살 때 보육원에 맡겨 졌기 때문에 가족력을 전혀 알 수 없음	5회 이상	중 2	친구집	사랑하는 사 람을 만나는 것
주요문제 및 현상		· 서울 소재 선도보호시설에서 생활했으며, 그곳에서 술먹고 주먹질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퇴소 당한 후, 지방의 직업보도시설에 인솔하여 인계함 · 이곳에서도 특이한 머리(남자스타일)와 동성애로 보이는 행동을 하므로 지지를 받지 못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소 한후 · 쉼터 출신의 아이들끼리 모여 쉼터로 입소함 · 3살 때 보육원에 맡겨진 후, 여러 보육시설을 거쳤으며, 특히 여자에게 집착하는 모습과 함께 본인은 남자처럼 보이려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함 · 자기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사람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우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함					

<부록 2>

전국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현황

(99. 10. 30. 현재)

	명칭	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이용 기간	수용 인원	주 소	운영단체/ 지원단체	비고
1	서울YMCA 청소년센터	02)3142-1318	여	13-18	1개월	1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5-17	서울YMCA/ 문화관광부	
2	부산광역시 청소년센터	051)621-0042	여	9-24	2주~ 1개월	15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50-10	한국청소년상담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청소년센터	053)426-2275	남녀	10-20	1주~ 2개월	8	대구시 중구 삼덕3가 202-2	대구YMCA/ 문화관광부, 대구광역시	
4	광주광역시 청소년센터	062)525-1318	여	9-24	10일~ 1개월	10	광주시 북구 유동 107-5	광주YWCA/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	
5	인천광역시 청소년센터	032)761-7942	남녀	13-18	2주~ 3개월	15	인천시 중구 송학동 2가 1	대한불교청소년교과 연합회/ 문화관광부, 인천광역시	
6	대전광역시 청소년센터	042)256-7942	여	9-24	2주~ 1개월	8	대전시 중구 대흥3동 38-16	성공회 대전교구/ 문화관광부,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청소년센터	052)272-1003	여	9-24	2주~ 1개월	10	울산시 남구 신정동 795-2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문화관광부, 대전광역시	
8	구로지역 청소년센터	02)3281-8200	여	12-20	1개월	30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58	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	
9	신림지역 청소년센터	02)876-7942	남	12-20	1개월	20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 1428-12 대경빌라 3층	대한성공회 나눔의집/서울시	
10	샬레시오 노랑진센터	02)826-3274	여	10-20	3개월	5	서울시 동작구 노랑진 1동 211-25	샬레시오수녀회/ -	
11	해바라기 집자리	0551)252-7666	여	13-19	2개월	10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24-14	천주교마산교구/ -	
12	우리들 집자리	02)765-0635	여	10-19	2개월	10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20-7	여로외성모수녀회/ -	
13	모듬이집터	032)343-1880	여	12-19	3개월	15	파주시 원미구 역곡3동 101-2	성심수녀회/ -	
14	수지의집	053)741-3122	여	7-20	2개월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번어3동 5-1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	
15	우리청소년 집자리	042)226-6300	여	13-20	1개월 ~ 2개월	10	대전시 중구 대흥동 183-2	동정성모수도회/ -	
16	강남구 청소년센터	02)3445-7942	남	10-18	2주~ 6개월	15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71-4	대화가톨릭사회복지관/ 강남구청 지원	
17	노원구 청소년센터	02)3992-2662	여	9-24	1개월 ~ 6개월	6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93-28	평화복지재단 공생복지관 노원구청지원	
18	새날을 여 는 청소년 센터	02)867-1255	여	10-18	2주~ 6개월	15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1동 135-72	함께가는 감리교여성회	
19	서울 나자렛집	02)605-4580	여	13-18	6개월	10	서울시 양천구 신원3동 195-1	샬레시오수녀회	
20	친구살이 집자리	02)765-0635	여	13-18	1~ 6개월	4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841-11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명칭	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이용기간	수용인원	주소	운영단체/지원단체	비고
21	써든 해바라기의 집	02)747-4713	여	12-20	2주~6개월	10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가 115	사랑의 써든 수녀회	
22	성심의 어머니집	02)691-4365	이	14-25	2주~6개월	6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02-280	예수성심전교 수녀회	미혼모
23	희망의 생원자리	0571)857-6137 857-6481	여	10-19	1~2개월	7	안동시 안익동 136 안동교구청	안동교구청	
24	좋은친구원자리	051)759-6166	여	10-19	1~6개월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69-13 25/1	베네딕도 수녀회	
25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	02)877-7942	여	14-19	6개월 이상	15	서울시 관악구 남원9동 산102-30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26	수원 나자렛집	0331)205-2018	여	8-13	자립까지	15		살레시오수녀회	
27	대전 나자렛집	042)272-7667	남	8-18	"	20	대전시 동구 이사동 276-2	"	
28	장성 나자렛집	0685)392-4519	여	8-13	"	7	전남 장성군 난면 25	"	
29	광주 나자렛집	062)951-3009	여	13-18	"	18	광주광역시 완산구 비아동 693-1	"	
30	광원 칠은의집	0551)296-7241 255-8295	여	13-18	"	5	광원시 소담동 27-1	"	
31	마산 한울타리	0551)245-6767	여	10-19	"	7	마산시 합포구 교방동 주공A. 12-203	마산교구회	
32	통영 한울타리	0557)612-5771	여	10-19	"	6	경남 통영시 병정동 252-5 2/1	"	
33	진주 한울타리	0591)753-6174	여	10-19	"	8	진주시 질암동 517-11	"	
34	열린문쉼터	02)2207-4310	남	10-19	"	20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210-2	열린문 사회복지센터	
35	다비다의 집	02)2207-4310	여	10-19	"	12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210-2	"	
36	백합누리	053)254-6566	여	10-20	"	10	대구시 중구 남산3동 190-1	샬트르성마리오수녀원 대구관구	
37	하늘 바라기집	0385)581-6590	남녀		"	10	강원도 태백시 장성2동 190-1	마리아프란치스코 수녀회	교아 및 건손가정
38	빛누리집	0551)245-9297	여	6-18	"	10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3가 3-1	그리스도의 성령흙송 수녀회	
39	무지개뜨는 청소년원 원자리	0551)238-8363	여	12-20	6개월 ~ 1년	20	창원시 북면 동진리 532-1	카톨릭사회 복지법인 범숙/창원시 지원	
40	교회동 만남의 집	02)689-9715	여	6-18	자립까지	15	서울 구로구 고척2동 241-180	성베네딕도 수녀회	건손가정
41	아네스의 집	02)2604-5781	여	14-20	"	10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105-89	성요셉애덕 수녀회	"

	명 칭	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이용 기간	수용 인원	주 소	운영단체/ 지원단체	비 고
41	테레사의 집	02)303-4301	여	3-14	※	14	서울시 은평구 용암3동 579-34	※	결혼가정
42	착한 목자의집	02)201-5805	여	16-19	1년~ 2년	7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554-10	착한목자 수녀회	※
43	은총의집	02)911-4373	여	11-20	차립 까지	10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산 1 3/1	평신도공동체	※
44	소년 예수의 집	02)400-6108	남	5-19	※	15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93-7 4/6	샬트르성바오로 수도회	※
45	박달메나의 집	02)794-8384	이	20세 이상	※	1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7-27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윤곽여성
46	해오람센터	0345)416-992 8	여	9-24	※	5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631-4	안산청소년 운동연합모임	윤곽 청소년
47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02)833-4010	남	13-24	※	4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4491	샬레시오 수녀회	직업전문 자립생활 관 병행
48	마차렐로 청소년센터	02)832-5796	여	11-18	※	3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253-242	샬레시오 수녀회/서울시	직업보도
49	온성 직업기술원	02)844-0486	여	15-20	6~ 12개월	2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1327	사회복지법인 온성원/ 보건복지부	직업보도
50	한국 이성의 집	02)333-7511	여	10-20	※	30	서울시 마포구 창천동 376-1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 보건복지부	직업보도

강 남 구 청 소 년 쉼 터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71-4	전화번호	(02) 3445-7942
설립일자	1998년 1월 21일		
운영주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지원단체	강남구청		
성 별	남	연 령 대	10~18세
이용기간	2주~6개월	수용인원	15명
시 설	-지하 : 놀이문화실, 연구자료실, 시청각실, 물품창고 -1층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단기보호대상자 침실, 응접실, 식당, 목욕실 -2층 : 집단활동프로그램실, 중기보호대상자 침실, 공부방, 응접실, 화장실		
인 력	관장 1명, 과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1명, 생활관리인 2명 등		
설립목적	가출 및 기타 다른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가정내의 학대와 폭력, 방인, 유기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안락한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도와줌		
사업내용	- 보호서비스: 의식주 무료제공/목욕, 세탁, 이발,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거리상담, 집단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 집단활동 : 대인관계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 진로탐색 집단활동 등 - 취미·기능프로그램 : 수영, 농구 등 사회체육활동/놀이문화활동/영화, 운동경기 관람, 박물관 견학 등 여가활동 - 자원봉사 : 정기적인 장애아동시설 자원봉사/ 장애인 캠프자원봉사 - 사후관리 : 개별상담, 가정방문, 부모상담, 후속프로그램 제공		
특기사항	- 가출청소년 가족에 대한 도움 자녀의 가출로 고민하는 가족을 위해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있도록 돕는다 - 청소년문제 예방활동 가출, 학교폭력, 약물남용, 성폭력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 활동 및 통합서비스 제공,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조사 활동, 세미나개최,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광 주 광 역 시 청 소 년 쉼 터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7-5번지	전화번호	062) 525-1318
설립일자	1998년 7월 1일		
운영주체	광주 YWCA		
지원단체	문화관광부/광주시		
성 별	여	연 령 대	만 9세~24세
이용기간	10일~1개월	수용인원	10명
시 설	총면적 : 70.02 방(침실) 2개, 주방 1, 욕실 1, 화장실 2, 사무실 1, 집단상담실(프로그램실) 1,		
인 력	소장 1명, 주임상담원 1명, 상담원 2명		
설립목적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출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를 제공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서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방지하고 탈선 및 비행 예방 (10일 정도 일시보호, 숙식제공) · 청소년 상담활동 :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여 건전한 성장에 도움 (전화상담, 면접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학교상담, 입소자 개별상담, 거리상담) · 교육활동 직업상담 · 교육, 영화감상, 음악감상, 독서토론, 토론회, 봉사활동, 또래상담 교육, 인성검사, 지도력 훈련, 일반인 상담교육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쉼터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함. 분기별 1회 운영 · 청소년 문제 예방활동 세미나 및 캠페인, 소식지 발간, 청소년 문화 · 예술 활동 전개 · 홍보활동 -언론매체, 사회단체, 학교, 지역사회에 홍보해 쉼터활동 전개 -광주YWCA를 비롯 각종 소식지에 홍보 -매달 쉼터 소식지를 발간하여 홍보 · 조사 · 연구활동 : 조사,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청소년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착을 제언		
특기사항	입소자 현황(98년 7월 1일-12월 31일) : 869명		

다 비 다 의 집			
주 소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325-58	전화번호	02) 2207-4310
설립일자	1996년 1월 28일		
운영주체	열린문사회복지센터		
지원단체	열린문 사회복지센터 후원회, 서울시, 전국공동모금회		
성 별	여	연 령 대	10~19세
이용기간	자립할 때 까지	수용인원	12명
시 설	침실 4, 욕실 2, 식당, 거실, 상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그룹상담실, 놀이문화실, 물품창고 등		
인 력	대표: 1명, 상담간사: 1명, 생활지도간사: 1명, 행정간사 상담심리사: 5명 등		
설립목적	가정폭력이나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 및 가출청소년들에게 부담없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는 가정개념의 집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중단된 학교교육이 지속되도록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생활공동체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 보호서비스: 숙식 및 피복제공, 의료 및 위생 서비스, 사회 활동비 제공 등 - 교육서비스: 학교 교육, 성교육, 감수성 훈련, 약물예방 교육, 예절 교육, 취미생활 등 - 문화,교양서비스: 연극교실, 노래교실, 영화관람, 놀이문화 활동, 캠프 - 상담서비스: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MBTI, MMTIC, MMPI, TAT, 16P 등), 시간-에너지 관리프로그램, 인지행동 집단프로그램, 진로탐색 검사, 적성검사 등		
특기사항	유기된 아동들이 유해 업소에 유입되거나 또래집단으로 부터 이탈되어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수용시설에서 나타나는 획일된 행동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재능이 개발되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가정개념의 그룹 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사회적응 및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사고를 하도록 지지해 줌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			
주 소	대구구 중구 삼덕 3가 202-2	전화번호	053) 427-2275
설립일자	98. 7. 1		
운영주체	(재)대구기독교청년회(YMCA)		
지원단체	문화관광부/대구시		
성 별	남 녀	연 령 대	10세 ~ 20세
이용기간	1주~1개월	수용인원	8명
시 설	1 층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단기보호대상자 침실, 주방, 휴게실		
인 력	소장 1명, 운영부장 1명, 상담원 2명, 생활관리인 1명		
설립목적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출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를 제공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서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		
사업내용	대상 : 가출청소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아동, 상습가출로 의뢰된 청소년, 주간 가출자 등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 · 상담 : 보호활동, 개별상담, 심리검사, 미술진단, 도예를 통한 심성개발 · 교육 : 성교육, 봉사활동, 감수성훈련, 체육활동, 취업알선, 취미교실, 특별활동, 등반활동 등 · 홍보·협력활동 : 유관기관 방문, 학교, 경찰서에 공문발송, 전단배포 등 · 연구 : 활동 및 연구보고서 발간 외 · 주요사업추진실적 1998. 7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 개소 1998. 10 청소년쉼터 지침서 발간 1998. 12 대구지역 가출청소년생활에 관한 심포지엄 1999. 1 대구지역 가출청소년리포터 발간 1999. 5 생활환경이 가출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포지엄		
특기사항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존중과 책임성을 가지고 Follow up을 통한 사후관리에 노력하여 가출청소년 사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네트워크를 형성과 가출청소년 생활자운동을 전개하려고 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hollian.net/dgymca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1동 112-2	전화번호	042) 256-7942
설립일자	1998년 6월 19일		
운영주체	성공회 대전교구 성남동 나눔의 집		
지원단체	문화관광부, 대전광역시		
성 별	여	연 령 대	9~24세
이용기간	2주~1개월	수용인원	5~8명
시 설	1층: 사무실, 개별상담실, 물품보관실, 화장실 2층: 친실, 가족상담실, 프로그램실, 세면실, 부엌, 화장실		
인 력	소장 1명, 실장 1명, 책임상담원 1명, 상담원 4명		
설립목적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가출·배회하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 학교와 청소년관련 단체를 통해 위탁된 부적응 청소년과 현장접근 방법을 통하여 조기발견된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편안한 숙식을 제공함은 물론 상담, 교육, 문화활동, 야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 통합시키며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됨		
사업내용	· 제공되는 서비스(프로그램) - 가출청소년 보호사업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예방사업 -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교정사회사업 · 세부사업 - 상담활동 : 거리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거리상담 - 치료활동 : 자아성장, 싸이코드라마 - 문화, 교육활동 : 대안문화 활동의 장 제공 - 사후관리 및 예방활동:중퇴생관리 - 조직활동 : 지역 사회 내 청소년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들과 연대하여 의뢰·지원망을 구축 - 홍보·연구활동 · 사업수행 목표 - 가출청소년의 자아력 강화 - 가출청소년의 가족기능강화 - 가출청소년의 사회 및 가족통합률 증진		
특기사항	·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교정사회사업 대전광역시 보호관찰소와의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상습적인 가출과 비행행위를 보이는 청소년을 직접 위탁, 의뢰받아 일시 보호를 통한 치료와 교육활동을 시행함과 더불어 청소년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가족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 9동 635-543	전화번호	02) 877-7942
설립일자	1995년 5월		
운영주체	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		
지원단체			
성 별	여	연 령 대	14 - 19세
이용기간	단기 - 1개월 ~ 3개월 장기 - 6개월 이상	수용인원	15명
시 설	1 층 : 사무실, 상담실, 단기보호 침실, 거실, 응접실, 식당, 목욕실 2 층 : 집단활동프로그램실, 장기보호 침실, 공부방, 응접실, 화장실		
인 력	보호상담 사회복지사 3 인 / 생활지도 사회복지사 1 인		
설립목적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빈민·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으로 구성, 기획된 사회사업적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따뜻한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치유와 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정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사회사업체로서 청소년쉼터가 세워지게 됨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보호사업 - 단기보호: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비행 및 가출에 빠진 청소년과 그 가정을 단기간의 치료적 프로그램으로 보호, 접근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에 복귀하게 함. - 장기보호: 가정의 장기적인 불화와 해체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가정과 같은 정서적 지지분위기를 형성하여 대안가정의 역할을 함 ○ 적응청소년지지사업 ○ 교육연구사업 ○ 지역청소년육성을 위한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구축사업 - 청소년관련 민관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구축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밀집지역을 중심으로) - 가출청소년보호시설 네트워크모임참여 및 활성화		
특기사항	사업방향 : - 자아성장을 통한 건강한 치유를 지향함 - 다양한 경험과 관계에 대한 경험 통해 삶은 참으로 살아 볼 만한 것임을 느끼게 함 - 가정의 따뜻한 기능을 회복하여 생명의 출발점에서부터 수용되도록 함 -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고, 알려 나가는 활동을 전개함		

모 통 이 쉼 터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 3동 101-2	전화번호	032)343-1880
설립일자	1999년 8월		
운영주체	성심수녀회		
지원단체	성심수녀회		
성 별	여	연 령 대	12-19세
이용기간	3개월 이내	수용인원	10-20명
시 설	- ½층 : 샤워실, 목욕실, 세탁실, 약장, 상근자 침실2, 공동침실-중장기 보호, 대상자, 개인침실, 물품창고 - 1층 : 현관, 책임자 사무실, 면담실, 양호실, 공동도임방-TV, 비디오, 녹음기, CD기 설치 - 1½층 : 상근자 침실, 공동침실-단기보호대상자, 공동공부방, 흡연실, 주방, 식당 - 2층 : 사무실, 명상실 - 2½층 : 상근자 침실, 개인침실, 목욕실		
인 력	책임자 1명, 사회복지사 1(+1)명, 생활관리 및 영양사 1명, 쉼터관리 1명		
설립목적	본 시설은 가톨릭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함. 특히 가출청소년의 윤락방지 및 보호·육성과 이를 통한 가정복귀, 중장기 선도보호시설과의 인계를 통해 그들의 건전하고 바른 사회화를 유도한다		
사업내용	- 일시보호 :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유해환경 접촉을 방지하고, 재탈선 및 비행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와 충분한 휴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상담 : 전화상담, 개별면접 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기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상담접근으로 청소년들의 개인적·심리적·사회적인 욕구와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건전한 성장 유도 - 교육 : 검정고시 준비, 취업 기술습득 및 취업알선, 생태교육(동물, 식물, 흙 등 자연접하기), 신문기사 토론, 독서토론, 견학, 필요시 지역 사회내에 위치한 종합복지관과의 연계 위탁교육 실시		
특기사항	<지역사회활동> -지역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주민과 종교단체의 인력자원 도움으로 가출소년들에게 필요한 제반활동의 도움을 받음 - 지역자원과의 연결 : 지역내 병원, 상담소, 보건소, 구청, 시청, 도청, 파출소, 경찰소, 보호관찰소 등의 관공서와 중·고등학교, 종합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들과의 상호협조, 교류와 연대로 물질적,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나눔		

무 지 개 뜨 는 청 소 녀 쉽 자 리			
주 소	경남 창원시 북면 동전리 532-1 (창원여성의 집)	전화번호	0551)298-8363
설립일자	1997년 6월 28일		
운영주체	가톨릭 사회복지법인(법숙) 창원여성의 집		
지원단체	경상남도, 창원시		
성 별	여	연 령 대	12~20세
이용기간	6개월~1년(중·장기 서비스)	수용인원	20명
시 설	- 쉼자리 숙소 : 25평 연립아파트 2채 - 1층 : 사무실, 상담실, 요리실, 제과제빵실, 피부미용실, 목욕실, 찜질방 - 2층 : 집단활동프로그램실, 도서실, 화장실, 숙직실		
인 력	관장 1명, 상담원 2명		
설립목적	창원여성의집(무지개 뜨는 쉼자리)은 정부의 지원으로 가톨릭 사회복지 법인(법숙)이 설립하여 윤락행위방지법에 준한 선도보호시설로서 가톨릭정신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함		
사업내용	- 보호사업(중·장기 서비스) : 숙식제공(피부, 의료, 위생서비스), 가정공동체 생활 - 상담사업 :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성계발, MBTI, 심리검사프로그램, 전화상담, 면접상담, 미술진단, 야외활동 - 교육사업 : 성교육, 삶의 현장학습, 건강 다이어트댄스, 검정고시, 진로지도, 직업보도서비스, 취미교실, 문학교실, 정서교육 - 문화사업 : 비디오영화감상, 테마가 있는 청소년CAMP, 견학, 야외활동, 문화행사관람 - 홍보 / 협력활동 경찰, 학교, 교육청 공문발송, 팸플렛 및 전단배포 언론사, 방송국, 주간정보지, 홍보매체 활용 카페, 여관, 주점, 유흥업소 협조요청 사회단체, 관련기관, 언론기관, 학교, 가정, 지역사회등과 유기적 관계		
특기사항	- 97년 6월 9일 : 창원여성의 집 개관(선도보호시설 정원 50명) - 97년 6월 9일 : 초대관장 조 현 순 취임 - 98년 9월 15일 : 청소년상담소·쉼자리전국협의회 창립 및 초대회장을 조현순 관장이 역임하여 선도일시보호시설을 확대해 나감. - 99년 4월 1일 : 선도보호시설(무지개 뜨는 청소년 쉼자리) 정원 20명 모자일시보호시설 40명 ⇒병행운영으로 변경		

백 합 누 리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190-1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전화번호	053) 254-6566
설립일자	1999년 3월 25일		
운영주체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대구관구		
지원단체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대구관구		
성 별	여	연 령 대	10-20세
이용기간	자립시까지	수용인원	10명
시 설	독서실 겸 기도실, 물품창고, 집단활동 프로그램, 상담실, 침실, 식당, 목욕실 등		
인 력	시설장 1명, 지도교사 1명		
설립목적	본 시설은 가출청소년의 선도 및 자립자활시설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상담 및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상담과 선도로 입소자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고, 개인의 욕구와 재능에 따라 가정 및 학교복귀, 진학, 기술교육, 취업알선 등으로 가출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와줌.		
사업내용	숙식제공, 의료봉사, 상담(전화, 면담, 서신, 방문상담 및 심리검사), 귀가조치, 교육활동(인성교육, 소양교육, 진로지도 등), 문화활동(견학, 야외활동, 문화행사관람, 특별프로그램), 지역사회내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용돈지급		
특기사항	- 입소자 및 내담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며, 비밀을 보장함 -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중시함. 가정, 학교, 직업훈련원, 2차 의뢰기관 등 퇴소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 - 본 수녀회는 1990년 9월 17일 사회복지재단 “애덕원” 산하 「성바오로 청소년의집」을 개소하여 가출청소년들을 보호, 선도, 진학, 직업훈련 등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주 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50-1	전화번호	051) 621-0042
설립일자	96. 11. 1		
운영주체	한국청소년부산연맹		
지원단체	문화관광부/부산시		
성 별	여	연 령 대	만 9세~24세
이용기간	2주~1개월 (상황에 따라)	수용인원	15명
시 설	1 층 : 사무실, 개별 및 집단상담실, 숙직실, 도서실, 운동실, 시청각교육실겸 음악감상실, 식당, 목욕실겸 화장실 2 층 : 입소자 침실, 목욕실겸 화장실		
인 력	실장 1명, 부장 1명, 상담원 2명, 생활지도사 1명, 생활관리원 1명		
설립목적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기능의 약화 및 가족해체, 임시위주의 교육,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년 증가되는 청소년의 가출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들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숙식제공 및 보호와 지도를 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비행에 방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사업내용	· 상담 : 보호활동, 전화상담, 면접상담, 입소자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미술진단, 서신상담, PC상담 (천리안 : Shelter3) · 교육 : 성교육, 심성개발 및 자아강화훈련, 의사소통훈련, Follow-up 학부모교실, 문화활동(영화, 연극, 전시회 등 관람), 체육활동, 나눔교실(학교로부터 특별교육 의뢰) · 홍보·협력활동 : 유관기관 방문, 학교, 경찰서에 공문발송, 전단배포, 부산 시내 지구별 학교선도위원회 참여, 종합사회복지관, 성폭력상담소, 아동청소년회관, 검찰청 등과 연계하여 입소자 개인 및 가정환경 조정 지원 · 연구 : 활동 및 연구보고서 발간		
특기사항	· 한국청소년부산광역시연맹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 전문상담원을 24시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위탁기관인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의 지원을 받음 · 상담업무를 위해 업무일지, Intake Sheet, 상담기록대장 비치·운영		

빛 누 리 집			
주 소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3가 3-1	전화번호	0551) 245-9297
설립일자	1995년 9월		
운영주체	그리스도의 성혈흡송 수녀회		
지원단체	그리스도의 성혈흡송 수녀회		
성 별	여	연 령 대	만 6-18세
이용기간	자립시 까지	수용인원	10명
시 설	- 1 층 : 거실, 도서실, 사무실 겸 상담실, 응접실, 식당, 목욕실겸 화장실1개. - 2 층 : 침실3개, 화장실1개, 목욕실 겸용 화장실1개.		
인 력	책임자 1명, 생활지도자 1명		
설립목적	그리스도의 성혈흡송수녀회 참사회회에서 결손 또는 해체가정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치료 및 치유가 필요한 불우한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어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며, 이미 받아왔던 심신의 허약함과 상처를 치유하면서 점차적으로 학교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사업내용	- 학교교육: 정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방과후 학습지도 - 심리적 성숙: 안정감안에서 점차적으로 자기를 수용하며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줌, 자신의 여성됨에 감사하도록 도와줌 - 신체적 성장: 질병을 치료해 주며 건강 및 성장발육을 위하여 영양, 청결 그리고 운동면에서 보살핌 - 사회적 성숙: 예의와 교양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함 친교와 사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인류애를 가지며 자연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덕적 성숙: 성실하며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근면할 수 있도록 지도 - 가정으로의 복귀 또는 자립 만 18세가 되어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		
특기사항	아동의 심리적인 면을 그대로 방치하여 도덕적,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많을 것이므로, 현재 아동인 그의 일회적(一回的)인 인간 삶의 존엄성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함		

성 심 의 어 머 니 집			
주 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 본동 102-280	전화번호	02) 691-4365
설립일자	1996년 10월 16일		
운영주체	예수성심전교 수녀회		
지원단체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성 별	여	연 령 대	14-25세
이용기간	2주~6개월	수용인원	6명
시 설	- 지하 : 독서실 겸 기도실, 물품창고 - 1층 : 집단활동 프로그램, 상담실, 침실, 식당, 목욕실		
인 력	실무 책임자 1명, 생활관리 (상담) 1명		
설립목적	가톨릭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가출청소년의 윤락방지 및 보호·육성과 이를 통한 가정복귀, 중장기 선도보호시설과의 인계를 통해 그들의 건전하고 바른 사회화를 유도함		
사업내용	- 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보호활동(의료혜택) - 교육 : 성교육, 예법, 산책으로 심신훈련, 취미교실, 특별활동, 현장학습, 취업알선 - 홍보 : 가톨릭(서울) 주보에 한달에 한바, PBC 게시판 - 연구 : 준비중		
특기사항	- 지금까지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들 90명에게 혜택을 줌. - 미혼모들을 위한 일시보호, 상담지도, 정신적·신체적 의료혜택, 사후지도, 직업·교육알선 - 생명 수호를 위해 국내입양 활성화		

새 날 을 여 는 청 소 녀 쉼 자 리			
주 소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 135-72	전화번호	02) 867-1255
설립일자	1998년 1월 15일		
운영주체	함께가는 감리교여성회		
지원단체	함께가는 감리교여성회		
성 별	여	연 령 대	5-15세
이용기간	2주 ~ 6개월	수용인원	15명
시 설	사무실, 상담실, 식당, 목욕실, 공부방, 침실 2, 화장실		
인 력	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생활관리인 2명		
설립목적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는 함께가는 감리교여성회원들의 신앙적인 결의로 시작됨.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인식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납부로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감리교회와 교우들에게 이일의 중요성을 알려 협조를 구하는 식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사업내용	- 상담 : 보호활동,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사후관리 - 교육 : 성교육, 예법교실, 봉사활동, 감수성훈련, 체육활동, 취업알선, 취미교실, 자치활동, 특별활동, 현장학습, 학습지도 등 - 홍보·협력활동 : 유기관 방문, 학교, 경찰서에 공문발송, 전단배포 등		
특기사항	어두운 사회의 희생자인 청소년을 구하는 일은 이땅의 어머니된 우리의 몫이며 가출청소년을 '우범'청소년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아 보호·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자율성을 존중하여 청소년 스스로 잃어버린 자아를 찾음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여 사회에 통합하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자 함. 가출소녀의 자활과 부모상담에 주력하며, 지역사회를 청소년안전지대로 구축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문화행사와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수 지 의 집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5-1	전화번호	053) 741-3122
설립일자	1998년 11월 5일		
운영주체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지원단체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성 별	여	연 령 대	만 7-20세
이용기간	2개월 이내	수용인원	10명
시 설	2층 :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3층 : 침실, 거실, 목욕실, 화장실		
인 력	시설장 1명, 상담원 1명, 유료봉사자 1명, 무료봉사자 1명		
설립목적	가톨릭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가출청소년의 윤락방지 및 보호·육성과 이를 통한 가정복귀, 중장기 선도보호시설과의 인계를 통해 그들의 건전하고 바른 사회화를 유도함		
사업내용	숙식제공, 용돈지급, 야외놀이(놀이동산, 문화답사, 산행), 생일파티,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가족회의(생각나누기), 손님초대, 미술치료, 종이접기, 의료서비스(산부인과, 정신과 등), 물놀이		
특기사항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 쉽자리는 교육시키는 곳도, 요구하는 곳도, 교육장소도 아니며 기준과 형태가 있는 곳도 아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이 그들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곳이다		

신림 청소년쉼터 우리 세상			
주 소	관악구 신림 5동 1428-12	전화번호	(02) 876-7942
설립일자	1998년 5월 18일		
운영주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지원단체	서울특별시		
성 별	남	연 령 대	12~20세
이용기간	1개월	수용인원	24명
시 설	총시설 면적 : 137.8평 (전용면적 : 124.77평) 침실 1, 침실2, 상담실, 집단프로그램실, 소그룹활동실 1(노래방), 2, 사무실, 정보이용방, 카페, 소극장 등.		
인 력	소장 1, 실장 1, 보호상담부 3, 교육문화부 3, 총무부 2		
설립목적	나눔의 집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스스로를 청소년센터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가난과 빈곤·문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새로운 인간상, 사회상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라는 원칙 아래 활동을 펼친다.		
사업내용	· 상담 및 보호사업 - 현장중심적 접근방법 (이동 거리상담, 거리상담자원봉사자 활성화) - 부적응 청소년의 문제유형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개방형 일시보호 및 치료적 단기보호) - 안전지대(safety zone)활동 · 청소년문화사업 - 문화소모임 활동 및 수련활동(각자의 소망에 따라 그룹운영) - 청소년 정보이용방(대화방과 게임통한 여가보내기) - 청소년 문화마당(짜즈콘서트, 뽕내기한다당, 방황하는 별들 연극) · 지역청소년 육성사업 - 지역청소년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 내 청소년 문제를 연구, 대처하기 위한 지역청소년 지지방 형성 -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청소년을 발굴, 선도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청소년으로 육성 -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동(아르바이트 연결, 인적연계를 통한 결연) · 연구 및 교육사업 - 다양한 연구조사 및 출판활동을 통해 대안적 청소년정책 개발, 홍보 - 정기적인 기관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검증 - 직원 및 자원봉사자, 실습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으로 실무능력배양		
특기사항	주요철학 - 청소년 스스로 센터의 주인으로 서게한다. -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 열린교육을 지향한다. - 빈곤·결손 및 가출·비행 등의 요보호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한다. - 새로운 인간상, 사회상을 만들어 나간다.		

씨 튼 해 바 라 기 의 집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가 115	전화번호	(02) 747-4713
설립일자	1999년 3월 25일		
운영주체	사랑의 씨튼 수녀회		
지원단체			
성 별	여	연 령 대	12-20세
이용기간	6개월 이내	수용인원	10명
시 설	- 1층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공동실, 식당, 목욕실, 화장실 2개 - 2층 : 침실 3개		
인 력	책임자 1명, 생활지도 및 상담원 1명, 사무원 1명, 취사원 1명, 야간근무자 1명		
설립목적	가톨릭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가출청소년의 윤락방지 및 보호·육성과 이를 통한 가정복귀, 중장기 선도보호시설과의 인계를 통해 그들의 건전하고 바른 사회화를 유도함		
사업내용	- 상담 : 보호활동, 개별상담, 가족상담 - 취미활동 : 종이접기, 매듭 등 - 교육 : 성교육, 예법교실, 봉사활동, 체육활동, 학습지도, 중장기 기관으로 연계 등 - 홍보·협력활동 : 유관기관 방문, 학교, 경찰서에 공문발송, 전단배포 등		
특기사항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 쉽자리는 교육시키는 곳도, 요구하는 곳도, 교육장소도 아니며 기준과 형태가 있는 곳도 아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이 그들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곳이다		

열 린 문 켜 터			
주 소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325-58	전화번호	02) 2207-4310
설립일자	1994년 11월 30일		
운영주체	열린문사회복지센터		
지원단체	열린문 사회복지센터 후원회, 서울시, 전국공동모금회		
성 별	남	연 령 대	10~19세
이용기간	자립할 때 까지	수용인원	20명
시 설	- 1층 : 식당, 상담실, 침실 2, 응접실, 화장실, 목욕실 등 - 2층 : 침실 2, 거실, 욕실 1, - 3층 : 침실 2, 거실, 욕실 1 - 욕상 : 다용도실, 의류보관실 전문 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 예방교육치료센터에서 시행		
인 력	대표: 1명, 상담간사: 1명, 생활지도간사: 3명, 상담심리사: 5명 등		
설립목적	가정폭력이나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 및 가출청소년들에게 부담없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는 가정개념의 집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중단된 학교교육이 지속되도록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생활공동체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 보호서비스: 숙식 및 피복제공, 의료 및 위생 서비스, 사회 활동비 제공 등 - 교육서비스: 학교 교육, 성교육, 감수성 훈련, 약물예방 교육, 예절 교육, 취미생활 등 - 문화교양서비스: 연극교실, 노래교실, 영화관람, 놀이문화 활동, 캠프 - 상담서비스: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MBTI, MMTIC, MMPI, TAT, 16P 등), 시간-에너지 관리프로그램, 인지행동 집단프로그램, 진로탐색 검사, 적성검사 등		
특기사항	유기된 아동들이 유해 업소에 유입되거나 또래집단으로 부터 이탈되어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수용시설에서 나타나는 획일된 행동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재능이 개발되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가정개념의 그룹 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사회적응 및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사고를 하도록 지지해 줌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우 리 들 쉼 자 리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 1동 120-87	전화번호	02)765-0635
설립일자	1999년 4월 26일		
운영주체	위로의 성모수녀회		
지원단체	위로의 성모수녀회		
성 별	여	연 령 대	10대청소년
이용기간	2개월 이내	수용인원	10명
시 설	-1층 : 부엌과 식당겸 거실, 화장실 3, 샤워 3, 침실 2		
인 력	소장(사회복지사) 1명, 생활보조원 2명		
설립목적	본 시설은 윤락행위방지법에 준한 선도일시보호시설로서 가톨릭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 가출청소년의 윤락방지 및 보호·육성과 이를 통한 가정복귀, 중장기 선도보호시설과의 인계를 통해 그들의 건전하고 바른 사회화를 유도한다		
사업내용	- 숙식제공 - 상담 : 보호, 개별상담, 가족상담, 전문상담원 의뢰 - 교육 : 성교육, 취미활동을 위한 소정의 교육(종이접기, 십자수 놓기) 견학 등의 문화활동,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지도 (영어 등)		
특기사항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 쉼자리는 교육시키는 곳도, 요구하는 곳도, 교육장소도 아니며 기준과 형태가 있는 곳도 아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이 그들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곳이다		

우 리 청 소 녀 쉼 자 리			
주 소	대전시 중구 대흥동 183-2	전화번호	042) 226-6300
설립일자	1999년 6월		
운영주체	동정성모회 수도법인		
지원단체	동정성모수도회		
성 별	여	연 령 대	13-20세
이용기간	1개월 ~ 2개월	수용인원	10명
시 설	1층 : 사무실, 상담실, 단기보호대상자 침실, 응접실, 식당, 화장실(샤워실), 물품창고, 시청각실 2층 : 침실, 화장실(샤워실), 물품창고, 집단활동 프로그램실		
인 력	소장 1명, 상담원 2명		
설립목적	가톨릭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이바지 함 을 그 목적으로 함. 가출청소년의 윤락방지 및 보호·육성과 이 를 통한 가정복귀, 중장기 선도보호시설과의 인계를 통해 그들의 건전하고 바른 사회화를 유도함		
사업내용	- 상담 : 보호활동,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사후관리 - 교육 : 성교육, 예법교실, 봉사활동, 심성개발프로그램, 체육활동, 취업알선, 취미교실, 자치활동, 특별활동 등 - 홍보·협력활동 : 유기관 방문, 학교, 경찰서에 공문발송, 전단배포 등		
특기사항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 쉽자리는 교육시키는 곳도, 요구하는 곳도, 교육장소도 아니며 기준과 형태가 있는 곳도 아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이 그들일 수 있 도록 장을 열어주는 곳이다		

은 성 직 업 기 술 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1327	전화번호	(02) 844-0486
설립일자	1953년 10월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은성원		
지원단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성 별	여	연 령 대	15~20세
이용기간	6개월~12개월	수용인원	22명
시 설	- 1층 : 피부미용교실(직업재활), 식당, 주방, 샤워실, 보일러실, 마당, 창고, 화장실 - 2층 : 사무실, 미용교실(직업재활) - 3층 : 기숙사 - 4층 : 옥상, 기숙사		
인 력	시설장 1명, 총무 1명, 상담원 2명, 직업재활교사 2명		
설립목적	가정교육 : 가족애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면을 키우도록 하며, 서로의 신뢰와 개방을 기초로 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함 - 신앙생활 : 평일 미사에 참석하여 신앙을 깊게 하고, 신부님과의 만남		
사업내용	- 가정교육 : 가족애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면을 키우도록 하며, 서로의 신뢰와 개방을 기초로 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함 - 신앙생활 : 평일 미사에 참석하여 신앙을 깊게 하고, 신부님과의 만남으로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구체적인 생활을 반성하고 나누므로써 서로의 생활을 개방함 - 정서교육 : 생활의 리듬안에서 정서적인 아늑함과 편안한 공간을 만들도록 함. 특히 학업이 부진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아동들에게는 피아노, 컴퓨터, 웅변, 태권도 및 가정학습지를 통해 지도하고, 한주에 한번 독후감 나누기를 하고 주말에는 등산, 놀이 등으로 휴식을 취함.		
특기사항	- 소년소녀 가장 및 결손가정 아동의 양육 -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방문하고 함께 연대 - 문맹자들을 위한 한글공부 및 지역 아동들과의 상담 - 소년소녀 가장 및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장학금 결연사업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2가 1	전화번호	032) 761-7942
설립일자	1997년 4월 9일		
운영주체	대한교청소년교회연합회		
지원단체	문화관광부, 인천광역시		
성 별	남·녀	연 령 대	만 13~18세
이용기간	2주~3개월	수용인원	15 명
시 설	1층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여자방, 응접실, 식당, 목욕실, 물품창고, 사물함, 화장실 2층 : 프로그램운영실, 남자방, 공부방, 화장실		
인 력	관장 1명, 실장 1명, 상담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교사 1명		
설립목적	불교 석가세존이 설하신 진리의 근본교리를 실행하고, 초종파적으로 청소년불자의 실행활동을 지도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인류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회생·봉사하는 보살의 원력을 제득케하는 건실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함		
사업내용	· 일시보호사업: 무료숙식, 의료서비스, 의복제공, 이미용 서비스, 상담서비스 · 상담사업: 전화상담, 내방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집단상담, 출장상담 · 교육사업: 학교청소년위탁교육, 재재미있는 미술여행, 심성훈련, '성' 바로 알기 교실, 실습생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 문화사업: 지역사회공공기관 이용하기, 자연학습 · 연구조사사업: 청소년 가출 실태조사, 쉼터 이용 청소년의 가출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 특별사업: 이동거리상담(가출청소년 찾아나서기),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생각발표」 토론회, · 홍보사업: 인쇄·전파매체 홍보, 전단 및 책갈피 제작 배포 · 대외협력사업: 전국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 관련시설 및 의료시설 공문발송		
특기사항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청소년 위탁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자신의 객관적인 심리상태를 알아보고, 평소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관계개선을 모색해보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가치관정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친 구 살 이 켜 자 리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841-11	전화번호	02) 765-0635
설립일자	1998년 9월 8일		
운영주체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지원단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 별	여	연 령 대	만 13-18세
이용기간	6개월 이내	수용인원	4명
시 설	거실, 침실, 도서실, 사무실 겸 상담실, 응접실, 식당, 목욕실겸 화장실 등		
인 력	수녀 2명		
설립목적	가톨릭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가출청소년의 윤락방지 및 보호·육성과 이를 통한 가정복귀, 중장기 선도보호시설과의 인계를 통해 그들의 건전하고 바른 사회화를 유도함		
사업내용	- 상담서비스 : 가정, 사회, 도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동안 보살피며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예방교육 : 가정, 학교, 사회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청소년비행을 예방함 - 위탁교육 : 쉼자리를 찾아오는 소녀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갈 수 없는 경우 중장기 보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연결함		
특기사항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 쉼자리는 교육시키는 곳도, 요구하는 곳도, 교육장소도 아니며 기준과 형태가 있는 곳도 아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이 그들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곳이다		

하 늘 바 라 기 집			
주 소	강원도 태백시 장성2동 180-1	전화번호	0395) 581-2126
설립일자	1994년 1월 6일		
운영주체	마리아 프란치스코 수녀회		
지원단체	마리아 프란치스코 수녀회		
성 별	여	연 령 대	10-20세
이용기간	자립시까지	수용인원	10명
시 설	- 규모 : 건물 39평 - 부대시설 : 침실 5개, 화장실 2개, 공부방, 주방		
인 력	수녀2명, 생활관리인 1명		
설립목적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 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 폐질환자, 알콜중독자 등 다른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의 발전과 변화를 도모함		
사업내용	- 가정교육 : 가족애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면을 키우도록 하며, 서로의 신뢰와 개방을 기초로 하여 집안의 분위기 밝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함 - 신앙생활 : 평일 미사에 참석하여 신앙을 깊게 하고, 신부님과의 만남으로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구체적인 생활을 반성하고 나누므로써 서로의 생활을 개방함 - 정서교육 : 생활의 리듬안에서 정서적인 아늑함과 편안한 공간을 만들도록 함. 특히 학업이 부진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아동들에게는 피아노, 컴퓨터, 웅변, 태권도 및 가정학습지를 통해 지도하고, 한주에 한번 독후감 나누기를 하고 주말에는 등산, 놀이 등으로 휴식을 취함.		
특기사항	- 소년소녀 가장 및 결손가정 아동의 양육 -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방문하고 함께 연대 - 문맹자들을 위한 한글공부 및 지역 아동들과의 상담 - 소년소녀 가장 및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장학금 결연사업		

ABSTRACT

A Study to develop the Protection-System for Runaway Youths

Every year, we can see increasing number of adolescents run away from home. A running away as a disruptive social phenomenon is a very serious problem, because youths are exposed to social evils without any defence mechanism to be a victim of drug, prostitution and other deviant behavior.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governmental Protection-System and the Network Model of community-based resources, which can be applied to protect runaway youths from dangerous situations.

For this purpose, previous studies about runaway youths and social welfare systems were reviewed. Through official statistics was presented the reality of runaway youths and services for them. As a field study were investigated nationwide facilities for runaway youths, which are divided into three forms: crisis shelter, short-term shelter and long-term shelter such as group home.

To investigate the real picture of running away was carrying out the case-study about runaway youths. In the

case-study were examined why they run away from home, what they do after runaway and how the deviation is happening in runaway states etc. In addition were searched several cases of foreign social-welfare project for runaway youths. The 'covenant house' and the 'attention home' as american welfare projects, the netherlands INSTAP-project and the german ISE-project were introduce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developed the systematical Protection-Model for runaway youths.